

연구보고서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정경희·박종서·김경래·오신희·임지영

【책임연구자】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박중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저자 오영희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법신사

정가 9,000원

발간사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추적 데이터를 생산하여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세 번째 수행한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오영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박종서 부연구위원, 김경래 부연구위원, 오신희 전문연구위원, 임지영 연구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이삼식 선임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중원대학교 염지혜 교수, 서울대학교 진미정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2동,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의 동·면장 및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1
제2장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23
제1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25
제2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	33
제3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51
제3장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55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57
제2절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67
제3절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88
제4절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	117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161
제1절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행태	163
제2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19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19
제1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221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40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연구 제한점	245
 참고문헌	 249
 부 록	 253

표 목차

〈표 1- 1〉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사전표본관리 결과(2014.12.)	13
〈표 1- 2〉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현장조사 결과	14
〈표 1- 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기본 조사내용	19
〈표 1- 4〉 2015년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내용	20
〈표 1- 5〉 저출산 및 고령사회분야 심층사례연구를 위한 주제 탐색	21
〈표 2- 1〉 조사지역별 영유아·아동·가임기여성인구(2014년)	27
〈표 2- 2〉 조사지역별 노인인구(2014년)	28
〈표 2- 3〉 조사지역별 보육·아동돌봄 관련 시설현황(2014년)	29
〈표 2- 4〉 조사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30
〈표 2- 5〉 조사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30
〈표 2- 6〉 조사지역별 주요시설별 개소당 평균 이용가능자수(2014년)	32
〈표 3- 1〉 조사지역별 가구 일반사항	59
〈표 3- 2〉 조사지역별 가구주 일반사항	61
〈표 3- 3〉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득상태	63
〈표 3- 4〉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비상태	65
〈표 3- 5〉 조사지역별 주거상태	66
〈표 3- 6〉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70
〈표 3- 7〉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성별 분포	71
〈표 3- 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평균 총교육연장기간	73
〈표 3- 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총교육연장기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75
〈표 3-1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미혼지속기간	77
〈표 3-1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	77
〈표 3-1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 ...	78
〈표 3-1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	78
〈표 3-1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	79
〈표 3-1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79

〈표 3-1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미혼지속기간	81
〈표 3-1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81
〈표 3-1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택소유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82
〈표 3-1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압력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83
〈표 3-2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이성교제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83
〈표 3-2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관적 건강상태	84
〈표 3-2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	85
〈표 3-2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흡연정도	85
〈표 3-2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음주빈도	86
〈표 3-2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87
〈표 3-2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90
〈표 3-2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91
〈표 3-2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항목별 노후준비율	92
〈표 3-29〉 조사지역별 유배우여성 배우자의 노후준비율	92
〈표 3-3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93
〈표 3-3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	94
〈표 3-3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임신결과	95
〈표 3-3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방법	96
〈표 3-3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체중	96
〈표 3-3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산후조리방법	97
〈표 3-3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98
〈표 3-3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 여부	99
〈표 3-3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중복응답)	100
〈표 3-3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101
〈표 3-40〉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보육·교육 이용(중복응답)	102
〈표 3-41〉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개인양육지원 이용	103
〈표 3-42〉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총 자녀수별 평균 양육비용	104
〈표 3-43〉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 가사 및 육아 참여율	105

〈표 3-44〉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의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 ..	106
〈표 3-4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1일 평균 육아활동 분담 시간 ..	107
〈표 3-4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가사 및 양육 관련 평등분배 인식	107
〈표 3-4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부모 생존율 및 동거율	108
〈표 3-4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원의 교환율	109
〈표 3-4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의 배우자의 근로 관련 특성	110
〈표 3-5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취업경험	111
〈표 3-5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111
〈표 3-5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112
〈표 3-5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만족도 및 비용부담 ..	113
〈표 3-5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공급적정성 인식	114
〈표 3-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역환경 인식을	114
〈표 3-56〉 조사지역별 정책대상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 및 만족도	116
〈표 3-57〉 조사지역별 지역추적조사(1~3차) 응답가구의 인구고령화 현황	117
〈표 3-5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규모	118
〈표 3-5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	119
〈표 3-6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개인특성	121
〈표 3-6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122
〈표 3-62〉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	122
〈표 3-6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	124
〈표 3-6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현황	126
〈표 3-6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	127
〈표 3-6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	128
〈표 3-6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제특성	129
〈표 3-6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	130
〈표 3-6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비동거자녀의 생활수준	131
〈표 3-7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132

〈표 3-7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의 특성	134
〈표 3-7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135
〈표 3-7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생존 여부 및 거주 형태	137
〈표 3-7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37
〈표 3-7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138
〈표 3-7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139
〈표 3-7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형제·자매수	140
〈표 3-7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사회관계	142
〈표 3-79〉 조사지역별 독거 중고령자의 독거 기간 및 독거 이유	144
〈표 3-8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부가구 기간 및 자녀동거시 이유	146
〈표 3-8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148
〈표 3-8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 및 치료비 지불	150
〈표 3-83〉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151
〈표 3-84〉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신체근력상태(평균 점수)	152
〈표 3-8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155
〈표 3-86〉 조사지역별 유배우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156
〈표 3-8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보건복지자원 이용 경험률	158
〈표 3-8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거주지역 만족 정도 및 친밀도	159
〈표 4- 1〉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미혼자)	163
〈표 4- 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주거독립여부(1인 주거)	168
〈표 4- 3〉 조사지역별 주거독립 미혼자의 독립 이유	169
〈표 4- 4〉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의사	171
〈표 4- 5〉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을 하고 싶은 시기	172
〈표 4- 6〉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고 싶은 이유	173
〈표 4- 7〉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지 못한 이유	175
〈표 4- 8〉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 의사가 없는 이유	176
〈표 4- 9〉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이상적인 독립시기	177
〈표 4-10〉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186

〈표 4-11〉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7
〈표 4-1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압력 경험	188
〈표 4-13〉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기혼여성)	198
〈표 4-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 기관 보육 이용률(중복응답)	201
〈표 4-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기관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203
〈표 4-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돌봄 조력자 이용건수 및 평균 이용시간 ..	204
〈표 4-1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평균 양육비	206
〈표 4-18〉 조사지역별 부부의 가사 및 육아활동 분담시간	208
〈표 4-1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남편 외 가사분담 지원율(중복응답)	209
〈표 4-20〉 익산시 영등2동 심층연구 사례(2-4)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211
〈표 4-21〉 충주시 소태면 심층연구 사례(2-7)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213
〈표 5- 1〉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	222
〈표 5- 2〉 조사지역의 정책추진 환경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224
〈표 5- 3〉 조사지역별 응답가구 특성 비교	226
〈표 5- 4〉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특성 비교	227
〈표 5- 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230
〈표 5- 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235
〈표 5- 7〉 20~49세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주요 항목별 노후준비율 비교	237
〈표 5- 8〉 지역추적조사 1~3차년도 가구변동에 따른 가구원 일반특성 비교	239
〈표 5- 9〉 향후 지역추적조사 심층사례연구의 수정·보완 방안(안)	246

그림 목차

[그림 1- 1] 지역추적조사의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13
[그림 1- 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진행 절차	16
[그림 2- 1] 조사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분포	34
[그림 2- 2] 조사지역별 민간·가정어린이집 분포	35
[그림 2- 3] 조사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분포	36
[그림 2- 4] 조사지역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분포	37
[그림 2- 5] 조사지역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38
[그림 2- 6] 조사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39
[그림 2- 7]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1(노인복지관) 분포	40
[그림 2- 8]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2(경로당) 분포	41
[그림 2- 9] 조사지역별 소아청소년과 분포	42
[그림 2-10] 조사지역별 산부인과 분포	43
[그림 2-11] 조사지역별 중대형 병원 분포	44
[그림 2-12] 조사지역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분포	45
[그림 2-13] 조사지역별 노인요양병원 분포	46
[그림 2-14] 조사지역별 개별 어린이집별 반경 2km Buffer	48
[그림 2-15] 조사지역별 개별 경로당별 반경 2km Buffer	49
[그림 2-16] 조사지역별 개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별 반경 2km Buffer	50
[그림 3- 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	73
[그림 3- 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	74
[그림 4- 1]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분석 모형	164

Abstract <<

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III): Focusing on three select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performed as the third research. That is, this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community tracking data, which observes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care and for policies on aging through analyz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g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dynamic analysis includ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 survey includes total 901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areas with approximately 300 households each.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17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 to 49 years, 343 married women aged 20 to 49 years, and 949 persons aged 50 and over living in the sample household.

With this sample, descriptive statistics of survey results were presented. Additionally, this study includes further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never-married men and women, and married women. It also includes further analysis of Community Tracking Survey of 2013, that focuses on the factors that affec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on social network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accessibility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should be improved. Second, it should be intensified to settle an never-married person in employment and housing. Third, the infrastructures that support childcare in home and the childcare after school should be developed and enhanced. Finally, the effective preparation with economically for the aged should be more improved.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3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조사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인구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2015년 저출산분야의 부가조사와 심층사례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심층사례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심층사례연구 주제는 미혼자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과 자녀 양육 규범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정책적 함의

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에서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인구 집단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급측면에도 해당 시·도 특성이 반영된 수준이고 지역별 수급상 불균형은 의미가 적었다. 그러나 지역내 자원분포는 조사지역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림현상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 미혼자의 독립 및 가족형성 지원 정책

본 연구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자료 분석 결과, 현재 미혼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는 고용 안정의 문제, 독립과 혼인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강화와 자기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청년층 고용정책이 다양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지원 대책도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가정보육 인프라 확산과 방과후 교실 확대

본 연구 결과에서 보육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돌봄 문제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관 보육 교육의 욕구는 대체로 충족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기관 미이용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10~20만원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현금 급여 이외의 돌봄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관이용 이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취업모의 경우는 조부모와 같은 사적 돌봄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양육 보호자와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프로그램)를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이 시간의 돌봄 공백은 곧 사교육으로 이어지거나 아동의 방임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제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화된 수단들을 통해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세 지역마다 조금씩 경향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의 가입하는 비율이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활용인 듯하지만, 가입률에 있어서는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가입유인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각 항목별 노후준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여자 노인의 빈곤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가 요구되고, 노인의 경우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현재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추후 계속적인 지역추적조사를 통해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선도적인 정책과제 발굴이나 생애주기상의 급변하는 단계(결혼 및 출산, 은퇴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용어: 추적조사, 결혼·임신·출산·양육 행태, 중고령자 생활실태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만혼화 추세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고령사회 도래 등에 대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최근에도 출산율의 저하 추세는 지속되어 201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1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5).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3 출생아(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81.9년이고, 남자의 기대수명은 78.5년, 여자는 85.1년으로 예상된다.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2013년 기준 60세 남자와 여자는 각각 22.0년, 27.0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4).

현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가 각

각 전국표본으로 3년을 주기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또는 고령사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가 모두 횡단적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어, 매 조사마다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포착하는 데 문제가 있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관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단적 조사방법으로서 지역추적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단위의 소규모 패널을 활용하여 혼인 및 출산,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심층적 욕구의 변화 및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욱 길어진 노후 삶의 다각적인 변화와 그 적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¹⁾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실시되었고, 2015년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과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고령화 및 노인복지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동태적 분석이란 인구학적 의미에서 확정된 개인 삶의 변화 과정에서의 적응 모습, 역할 변화, 기능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오영희 외, 201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방법

지역추적조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주요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조사지역의 보건 복지서비스 공급 및 수요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종단적 조사방법(longitudinal research)으로서 지역추적조사의 기본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실시를 통한 양적·질적 혼합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표본지역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조사가 아닌 지역사례조사의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만, 조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패널조사(panel survey)의 특성이 있다. 조사지역 선정의 기본방향은 본 조사의 목표가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체계 구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활한 추적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시·도 지역을 안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오영희 외, 2013).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중위수(median)의 $\pm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를 추출하였고, 농촌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화 수준 및 지속적인 조사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하였다. 지자체 내의 동읍·면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통(리)는 동 주민센터 및 면 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규모, 인구 이동, 지역적 특성, 조사협조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조사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수도권), 충북 충주시 소태면(중부권), 전북 익산시 영등2동(남부권)이다. 조사가구는 생활권 위주로 선정하고, 가구수가 적어 1개 통·리로 300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근 몇 개 생활권을 묶어서 선정(1개 통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구수가 적을 경우 인근 통·리 지역을 포함)하였다.

가구조사는 3개 조사지역에서 지역별로 300가구씩 조사하여 총 900가구를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만 20~49세), 기혼여성(만 15~49세), 중고령자(만 50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과 실습을 2일간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4명으로 1개 팀을 편성하여 조사지역별 2개 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미혼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일정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자기기입으로 작성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여 부족한 내용은 전화 확인 등으로 보완하였다.

3차년도 현장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23일~8월 6일(15일간)이었으며, 2015년의 경우 고령사회분야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저출산분야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림 1-1 참조). 이는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려는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그림 1-1] 지역추적조사의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조사 내용			조사주기
가구 일반사항	저출산분야(기본조사)	고령사회분야(기본조사)	매년 조사
	저출산분야(부가조사)	고령사회분야(부가조사)	격년 주기
	저출산분야(심층사례)	고령사회분야(심층사례)	격년 주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다. 2014년 조사표본 가구의 사후관리

적극적·체계적 표본관리는 패널의 지속성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추적조사의 표본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에 각 지역별 2명의 조사원이 원표본가구를 재방문하여 가구의 주소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3차연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1〉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사전표본관리 결과(2014.12.)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전체
2014년(제2차) 조사 가구수	300	301	300	901
2015년 사전조사 완료 가구수	272	276	292	840
2015년 사전조사 미완 가구수 ¹⁾	28	25	8	61
(사전조사 표본유지율)	(90.6)	(91.7)	(97.3)	(93.2)
2015년 사전조사 신규진입가구	6	9	2	17
2015년 조사 가능 가구수	278	285	294	857

주: 1) 장기출타, 권역 외 이사, 사망, 거부 등

라. 현장조사 결과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에서는 901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가구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78.1%(704가구)이고, 2차 및 3차 진입가구는 21.9%(197가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약 70%)에 비하여 농촌지역(약 90%)에서 원표본유지율이 더 높았다. 본 조사에서도 대도시인 정릉3동은 미혼자조사의 사례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반면, 중소도시인 영등2동은 기혼여성조사 사례수가 많고, 농촌지역인 소태면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사례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원표본가구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 동·읍·면으로의 이동이면 그 가구는 계속 추적을 하고, 타 동·면으로 이동하여 지역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거처에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씩 표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현장조사 결과

(단위: 가구,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전체
2015년(제3차) 조사완료수				
가구조사	300	301	300	901
원표본가구수	212	221	271	704
(원표본유지율)	(70.7)	(73.4)	(90.3)	(78.1)
2차 진입가구수 ¹⁾	40	49	16	105
3차 진입가구수 ¹⁾	48	31	13	92
개인조사 ²⁾				
20~49세 미혼자조사	55	36	26	117
(원표본유지율)	(49.1)	(41.7)	(61.5)	(49.6)
20~49세 기혼여성조사	74	235	34	343
(원표본유지율)	(66.2)	(71.9)	(94.1)	(72.9)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348	117	484	949
(원표본유지율)	(75.9)	(80.3)	(91.3)	(84.3)

주: 1) 신규 진입가구: 응답거부, 전출(조사지역 이외 동·면), 장기출타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동일 조사지역(동·리 단위)에서 대체함.

2) 개인조사 원표본유지율: 가구 기준임

3) 조사지역별 30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익산시 영등2동은 1 가구를 초과하여 조사 완료함.

마. 자료 처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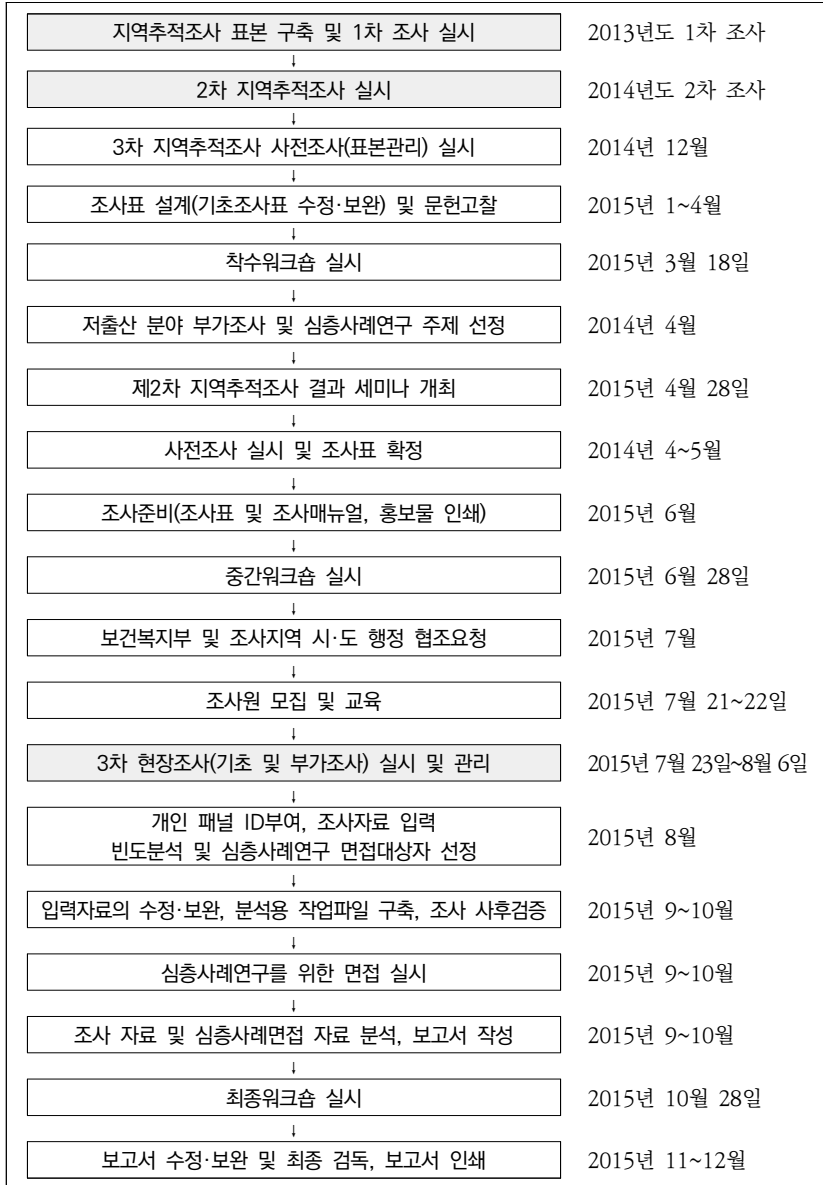
조사원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 지역별 지도원에 의하여 1차 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로직 체크 및 무응답 검토 등으로 해당 조사지역에서 재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보완 및 수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완료 후 2차 에디팅을 통하여 통일된 지침에 의한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문항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전산입력 이전에 개인별 패널아이디 부여 작업을 실시하고,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과정과 개별 조사표 간 관련 항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본데이터를 결과 분석이 가능한 작업파일로 생성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 3개 지역 전체(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항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백분율(빈도)과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다.

1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진행 절차



2. 연구 내용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조사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5년 저출산분야의 부가조사와 심층사례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심층사례면접의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심층사례연구 주제는 미혼자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과 자녀 양육 규범에 관한 것이다. 미혼자의 독립은 독립 이전의 동거와 독립 이후의 결혼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에서 규범적 측면은 자녀 양육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층사례연구에서 특히 주목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별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조사 내용

가구조사는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내용이고, 각 개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노후준비, 건강상태,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연령대별

특화된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1-3 참조).

구체적으로 미혼자조사에서는 학력 및 직업력, 주거상황 및 독립, 이성 교제 및 결혼관, 보건 관련 사항, 신혼부부 주택 관련 정책 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기혼여성조사는 직업력, 노후준비, 결혼력, 임신력, 자녀양육, 남편의 가사·육아 지원, 부모 지원,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지원, 직장요인, 지역사회인프라, 지역환경, 보육관련 정책 수혜 및 만족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중고령자조사는 중고령자의 자녀 사항,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및 형제·자매·이웃과의 관계,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후준비,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등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간병수발과 기초연금 수혜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5년도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는 ‘미혼자의 경우 (거주)독립에 대한 인식과 이성교제·결혼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설계하였고,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 자원의 이용 행태와 부모와의 자원 교환, 추가출산 의지와 출산 예정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설계하였다(표 1-4 참조).

미혼자의 이성교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자원에 관련된 문헌의 고찰 등으로 장기적인 심층분석을 위한 주요 주제를 정리하고, 당해 연도에는 연속적인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층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였다(표 1-5 참조).

〈표 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기본 조사내용

영역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미혼 남녀(만 20~49세)	기혼 여자(만 15~49세)	중고령 남녀(만 50세 이상)
가구 특성 (공통)	-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업, 종교, 등록 장애인 여부 - 가구 경제상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되는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소득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연간 소득 금액, 주택 소유형태 및 주택 가격 - 가구원 변동사항: 신규·분가·사망 가구원 수 및 변동 이유		
개인 특성 (공통)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개인 특성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가족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변화) 거주거리 • (변화) 경제적 도움	- 자녀 일반 사항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자녀와의 관계 • (변화) 자녀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배우자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형제자매수
노후 준비	-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및 준비금
건강 상태	- 흡연·음주 및 보건 관련 사항	- 생식보건 관련 검진	- (변화)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연령 대별 특화된 주제	〈결혼 등 미래 설계〉 - 이성교제 여부 - 결혼 준비 〈주거독립〉 - 주거독립 여부 - 주거독립 시기 및 이유 - 주거독립 의사 및 시기	〈임신 및 출산〉 - 결혼력 - 임신·출산력 - 자녀관 〈자녀 양육〉 - 이용 시설 및 서비스 - 양육 비용 및 시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여부 〈가족 지원 사항〉 - 가사 및 육아 지원 사항 〈직장 요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	〈5년 내 변화〉* - 경제활동 및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 -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친구·아웃 〈여가문화활동〉* - 여행, 평생교육 -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 정도 - 기타여가문화 활동 - 자원봉사활동 〈65세 이상 노인〉 - 기능상태 및 가족수발
지역 사회 요인	-	- 보육관련 인프라 접근성 및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 여가시설 및 보건소 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정책 요인	- 결혼관련 정책의 인지도	-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책의 수혜 정도	- 기초연금 수혜 여부 (65세 이상 노인)

주: *는 격년을 주기로 조사되는 항목임.

2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표 1-4〉 2015년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내용

구분	주제 및 내용
부가조사	
미혼자조사	- 주거상황 및 독립 • 현 주거 형태 • 주거형태별 주거독립 의사 및 시기 • 주거독립을 하려는 이유와 현재 주거독립하지 못한 이유 • 주거독립 의사가 없는 이유 • 일반적인 주거독립 시기 - 이성교제 대상과의 결혼의사 및 시기 • 과거 및 현재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결혼의사와 그 시기
기혼여성조사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 기관보육·교육과 개인 양육지원 형태별 사용유무 및 시간 • 지출형태별 양육비 • 자녀와 부모가 같이 지내는 시간 - 임신력 • 출산형태, 산후관리 및 임신 당시 모성·부성휴가 사용 등 - 부모와의 자원교환 • 응답자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사, 육아 등의 교환 형태 및 횟수, 비용
심층사례연구	
미혼자조사	- 미혼자의 (주거)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 동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 및 영향 요인 • 독립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이성친구 및 동거 경험과 독립 의사의 관계 • 결혼 및 결혼의 조건에 대한 인식 • 독립 경험이나 의사와 결혼의 관계
기혼여성조사	- 기혼여성 가구의 보육 및 교육 자원 이용 행태 분석 • 기혼 여성 가구의 기관 보육 및 교육 자원 동원행태 • 보육·교육 이용 행태와 개인 양육자원 동원 행태 • 보육·교육 관련 지역의 환경적 요인 • 자녀양육 규범의 특징과 지역별 차이

〈표 1-5〉 저출산 및 고령사회분야 심층사례연구를 위한 주제 탐색

영역		내용
저출산분야		
가족주기	미혼자의 가족 형성	- 주거독립 영향요인 분석 - 만혼화와 영향요인 분석 - 이성교제와 성의식
	임신과 출산	- 임신력 - 난임력 - 피임실태
	자녀양육	- 일·가정 양립실태와 제도 활용도 - 경제활동 특성과 출산 및 양육 - 가정보육실태 및 비공식적 자원활용 실태
	가족주기	-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가족구성		- 가사분담 - 가족구성과 동거형태
지역사회	지역사회구조	- 자원의 배분과 접근성 - 정책적 지원, 공동체적 지원 - 사회적 자본 - 산업구조와 일자리 가용성
	지역문화와 개인의 의식	-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개인의 문화적 배경		-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
경제활동		- 여성경제활동 특성, 일가족양립 특성
고령사회분야		
자녀 등 가족관계		- 확대가족-수정확대-핵가족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 자녀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차이가 있는가? 세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대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부양의 교환실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중고령자에게 있어 배우자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2014) - 다세대(bean pole family)의 실제 현황은? -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샌드위치층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사회적 관계망		- 연계망의 크기와 특성 비교: 1차 조사자료의 심층분석(2014) - 사회적 관계망의 동질성: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 가치관, 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 중고령자의 직업력, 은퇴에 관한 연구 -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과정의 탐색
건강 및 지역사회자원		-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의 간병수발 실태 - 여가문화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2 장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제1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제2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

제3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2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지역간, 그리고 세대의 형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욕구의 차이를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간 격차의 문제로 귀결된다(한영수, 2002; 박세경 외, 2013 재인용).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적합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이 된다. 여기서 접근성은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편의성, 적합성 등의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용가능성 측면에 국한되어 인식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지역이나 대상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또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13).

본 장에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은 조사지역 동·읍·면 단위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조사지역 관할 시·군·구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제1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1.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추정 논의의 대부분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잠

재적 이용집단이 표출하는 서비스 욕구(needs)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 이용경험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실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수요 정도를 양적으로나 또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가늠할 수 있는 실증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박세경 외,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요규모의 기초선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대상 인구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우선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이다.

저출산정책 관련 서비스대상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무상보육서비스는 모든 영유아(0~5세)에게 제공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실수요집단 규모는 성북구가 23,12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15,486명), 충주시(9,633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5% 내외이며, 전국 평균인 5.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동돌봄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또는 일반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 교실(교육부)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잠재수요집단인 6~18세 아동인구 규모는 성북구(58,205명), 익산시(45,876명), 충주시(29,529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아동 비율은 12~15% 수준이며, 전국평균인 14.3%를 웃돌거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주로 가임기 여성(15~49세)에게 제공된다. 임신·출산 서비스의 잠재수요집단인 가임기 여성인구 역시 성북구(123,719명), 익산시(72,065명), 충주시(47,331명)의 순이다.

〈표 2-1〉 조사지역별 영유아·아동·가임기여성인구(2014년)

(단위: 명, %)

지역	총인구	영유아(0~5세)		아동 (6~18세)		가임기 여성인구 (15~49세)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50,763,158	2,754,764	5.4	7,237,817	14.3	12,909,337	25.4
성북구	464,357	23,124	5.0	58,205	12.5	123,719	26.6
익산시	303,246	15,486	5.1	45,876	15.1	72,065	22.9
충주시	207,079	9,633	4.7	29,529	14.3	47,331	23.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고령사회정책, 특히 노인복지정책 관련 서비스대상 인구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조). 노인복지정책은 종류가 다양하다. 개별 정책별로 서비스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종류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실수요집단 또는 잠재수요집단이 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수요 또는 잠재수요집단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성북구(59,216명), 익산시(44,128명), 충주시(32,719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15.8%이며, 전국평균인 12.4%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신체적 노화 진행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수요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후기노인 인구규모는 익산시(9,789명), 성북구(9,378명), 충주시(6,658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이며, 전국평균인 2.4% 내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남녀비율은 세 지역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노인이 서비스정책의 핵심대상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조사지역별 노인인구(2014년)

(단위: 명, %)

지역	성별	65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노인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계	6,296,931		1,206,729	
	남자	2,623,269	12.4	359,794	2.4
	여자	3,673,663		846,936	
성북구	계	59,216		9,378	
	남자	25,598	12.8	3,038	2.0
	여자	33,618		6,340	
익산시	계	44,128		9,789	
	남자	17,743	14.6	2,889	3.2
	여자	26,385		6,900	
충주시	계	32,719		6,658	
	남자	13,453	15.8	2,002	3.2
	여자	19,267		4,65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2. 보건복지서비스 공급현황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성북구가 33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익산시 269개소, 충주시 128개소의 순이다. 이를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경우, 성북구는 국공립 35개소, 민간·가정 296개소(민간 144, 가정 152), 익산시는 국공립 10개소, 민간·가정 259개소(민간 78, 가정 138, 법인단체 13, 사회복지법인 23, 직장 4), 충주시는 국공립 8개소, 민간·가정 120개소(법인·단체 3, 사회복지법인 15, 민간 62, 직장 1, 가정 38, 부모협동 1)가 설치되어 있다(표 2-3 참조).

아동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익산시가 46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36개소), 성북구(33개소, 방과후교실 5개소 포함) 순이다.

〈표 2-3〉 조사지역별 보육·아동돌봄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총 개소수	(국공립)	(민간)	
성북구	331	(35)	(296)	33
익산시	269	(10)	(259)	46
충주시	128	(8)	(120)	36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원 현황은 〈표 2-4〉와 같다.²⁾ 성북구는 공동생활가정(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9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1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경로당 152개소, 노인교실 7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익산시는 양로시설(주거) 3개소, 공동생활가정(주거) 1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25개, 노인재가복지시설 18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3개, 경로당(여가) 651개 등이 있다.

충주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4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경로당(여가) 529개소, 노인교실 25개소 등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익산시는 여러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이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에서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4〉 조사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재가 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¹⁾	경로당	노인교실
성북구	3	19	12	6	152	7
익산시	19	25	18	5	651	6
충주시	7	34	3	2	529	25

주: 1)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과 교육문화사업(노인 여가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현황은 〈표 2-5〉와 같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익산시가 40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5, 보건진료소 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주시가 30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3, 보건진료소 16)이며, 성북구는 2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에 불과하다.

한편, 민간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성북구 6개, 익산시 8개, 충주시 5개로 파악되고,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설치된 병의원은 성북구 13개소, 익산시 9개소, 충주시 4개소이며,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은 성북구 14개소, 익산시 11개소, 충주시 9개소 등이다. 의원과 치과(병)의원은 대도시 지역인 성북구에 매우 많고, 요양병원은 익산시가 가장 많다.

〈표 2-5〉 조사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종합) 병원 ¹⁾	요양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성북구	2	13	14	6	7	249	153
익산시	40	9	11	8	13	159	87
충주시	30	4	9	5	5	113	43

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요양병원은 제외함).
자료: 1)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2) 요양기관현황(<http://kosis.kr>), 2015.8.

주요시설별 개소당 이용가능자수(잠재적 서비스대상)를 평균한 값은 <표 2-6>과 같다. 잠재적 서비스대상집단을 시설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잠재적 이용대상자 대비 시설수가 많아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0~5세아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익산시가 58명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성북구(70명), 충주시(75명) 순이다. 시설수 측면에서 익산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충주시(268명)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익산시(337명)이며, 성북구(701명)는 타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1개소당 대상아동인원이 성북구 6,256명으로 가장 낮고, 충주시가 9,790명으로 가장 높다. 이 역시 의료시설이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취약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로당은 충주시(62명)와 익산시(68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성북구(390명)는 5배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문화시설이 많은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의 여가생활은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잠재적 서비스이용률은 높을 수 있으나 여가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이용을 전제로 보건소를 살펴보면, 충주시(1,091명), 익산시(1,103명)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성북구(29,608명)는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이용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노인들은 여전히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접근성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15~49세 가임기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산부인과를 살펴보면, 충주시(5,259명), 익산시(6,551명)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성북구(8,837명)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는 서울시 전역의 산부인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내에 산부인과가 적다는 점이 이용상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6〉 조사지역별 주요시설별 개소당 평균 이용가능자수(2014년)

(단위: 개소)

지역	어린이집 (0~5세)	지역아동센터 (6~18세)	소아청소년과 (0~18세)	경로당 (65세 이상)	보건소 (65세 이상)	산부인과 (15~49세 여성)
성북구	70	701	6,256	390	29,608	8,837
익산시	58	337	6,818	68	1,103	6,551
충주시	75	268	9,790	62	1,091	5,259

제2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수급이 원활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분포와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서비스 접근성이란 서비스 욕구를 가진 인구 집단과 해당 서비스의 자원 사이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욕구를 인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찾고 자원에 도달하고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된 시설이용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시설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용가능성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자원이 지역수준에 따라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때 제한되며, 특히 고령이나 장애에 의해 이동성이 제한될 때 접근성의 제약을 강하게 받게 된다(박세경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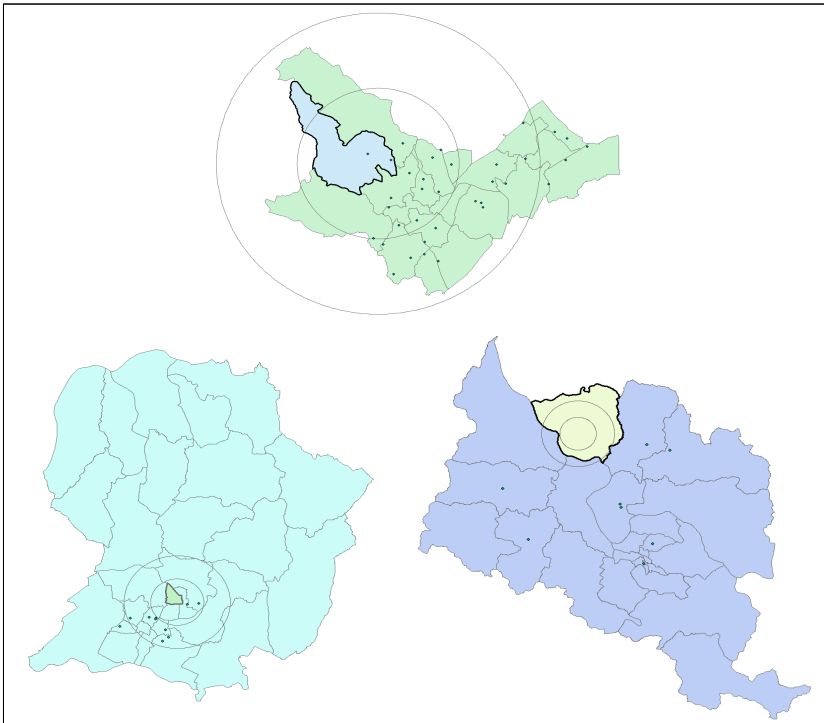
이러한 이용가능성 관점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요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르게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거주지역으로부터 자원까지 도달거리는 적절한 수준인지, 거주지역내에 다양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선택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공급의 분포현황을 시각화하고 거주지역 및 자원을 중심으로 Buffer³⁾를 생성하여 적정거리에 포함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원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자원정보는 지자체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입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지도에 점을 찍어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동·읍·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km(도보 30분거리), 4km(도보 1시간 거리) 원을 그려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3) 본 절에서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 또는 4km 거리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1. 보육·아동복지 부문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지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릉3동 주민센터로부터 2km 또는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익산시는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도심 외곽지역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등2동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대부분 산재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충주시는 개소수는 적지만,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편에 속하며, 소태면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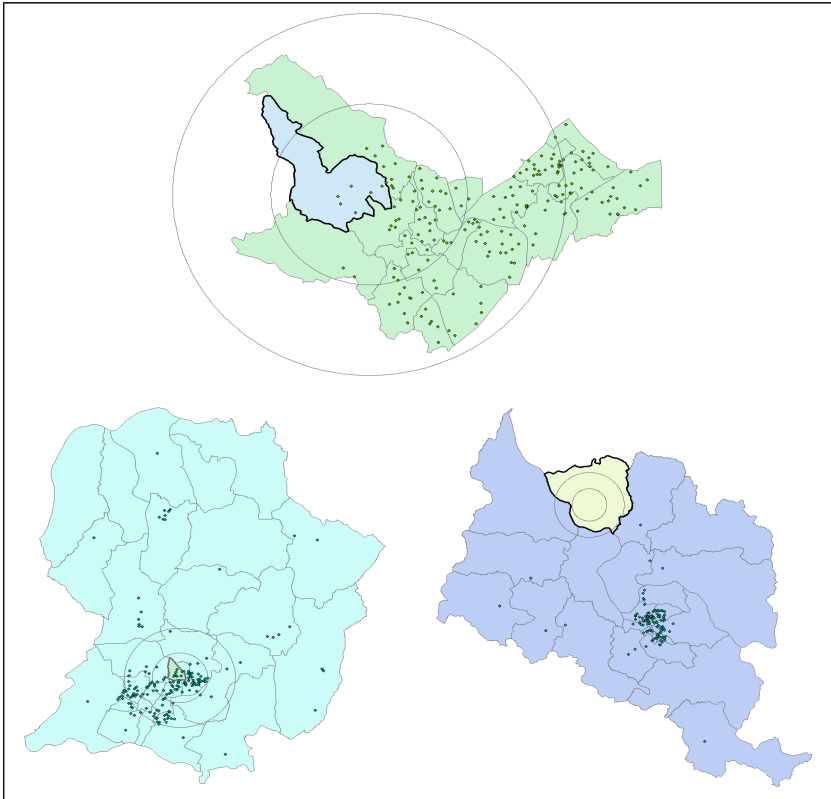
[그림 2-1] 조사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분포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영등2동), 하단 우측 그림은 충북 충주시(소태면)임. 사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km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km 이내의 지역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개소수도 월등히 많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성북구의 경우 대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익산시와 충주시의 경우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보육수요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어린이집이 반경 4km내에 존재하지 않는 동·읍·면 지역도 나타나고 있어 시설보육에 애로를 겪는 가정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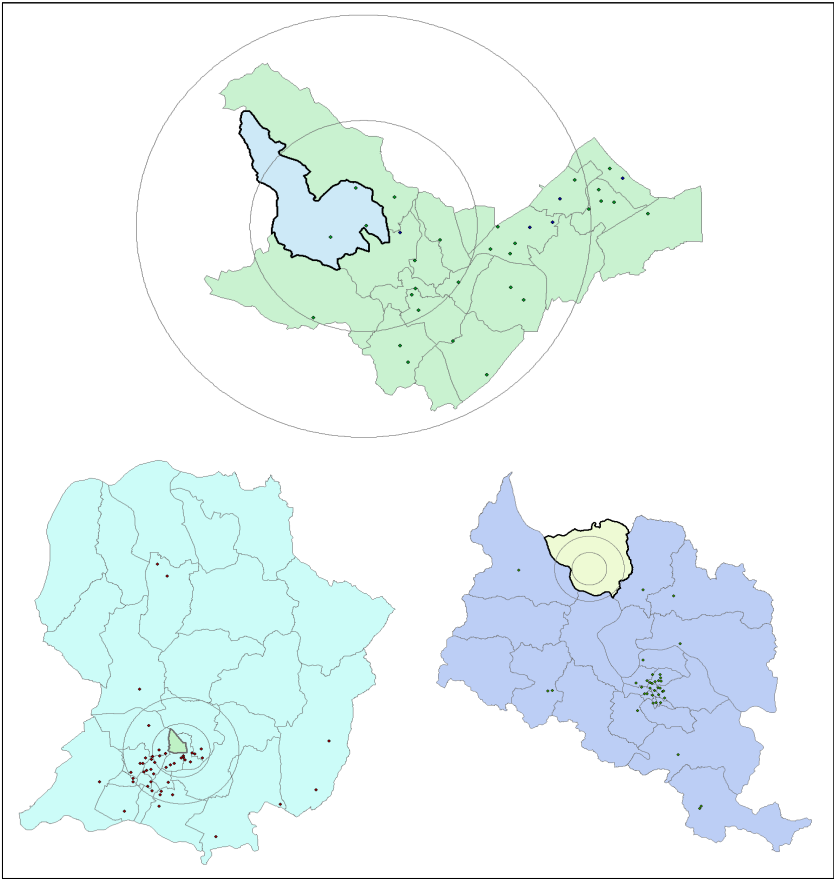
[그림 2-2] 조사지역별 민간·가정어린이집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지역아동센터 역시 성북구는 편중현상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익산시와 충주시는 동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읍면 단위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조사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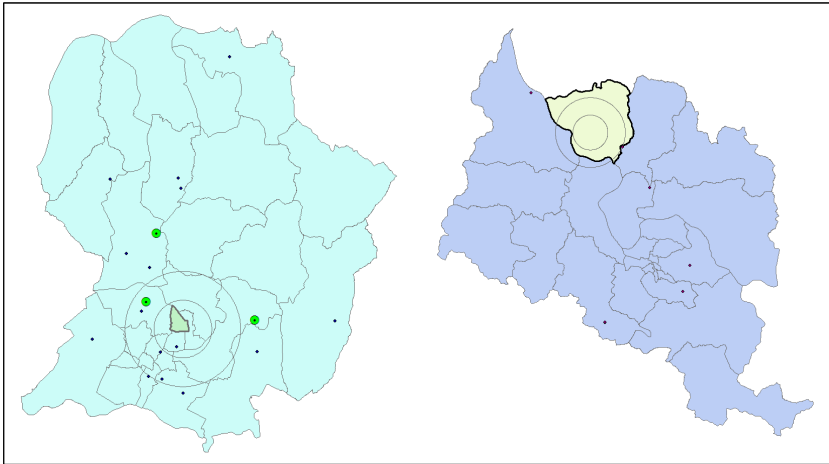
주: [그림 2-1]과 동일

2. 노인복지 부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입소지원,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 주거시설 임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다.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으나 주소불명인 성북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시설 개소수는 많지 않으나 익산시, 충주시 양지역 모두 동일 시내에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영등2동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에 1개의 양로시설과 5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해 있는 반면, 충주시는 소태면 관내에 관련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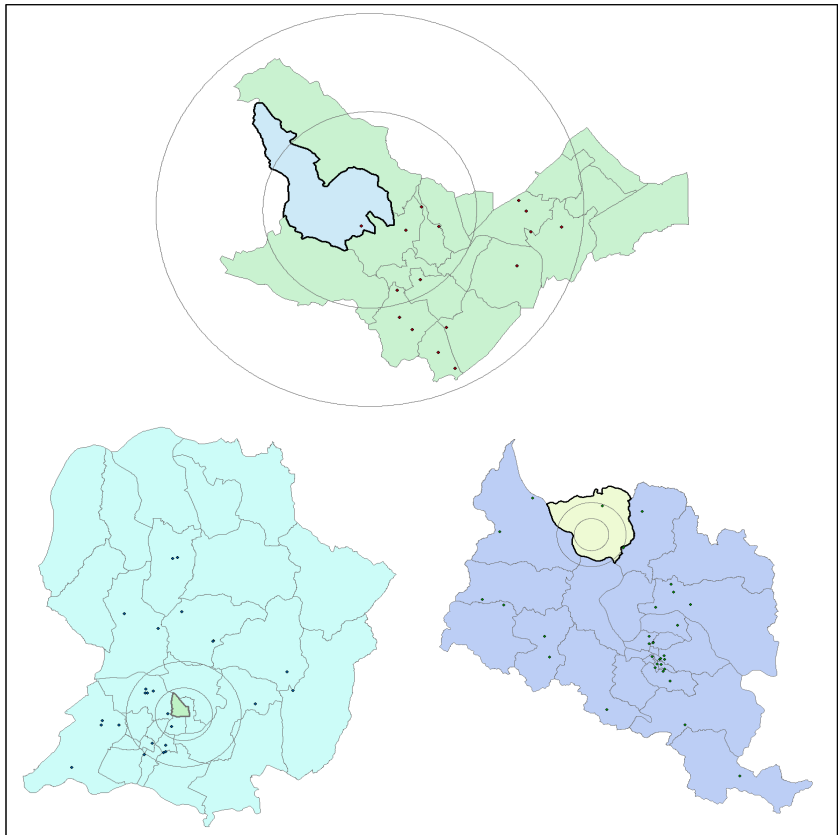
[그림 2-4] 조사지역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분포



-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는 공동생활가정만 3개소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km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km 이내의 지역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 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으로 건강 유지·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세지역 모두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충주시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하지만, 중심 동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된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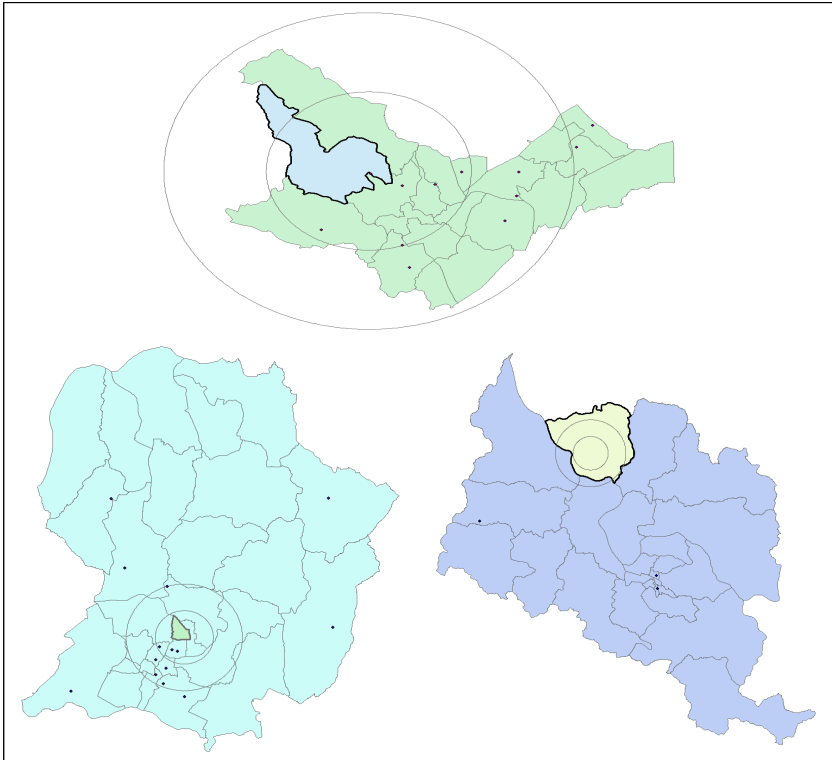
[그림 2-5] 조사지역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동불편 노인이지만,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요양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북구의 경우 정릉3동에는 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반경 4km 내외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익산시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하나, 중심 동지역에 편중된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충주시는 시설 수도 적고 편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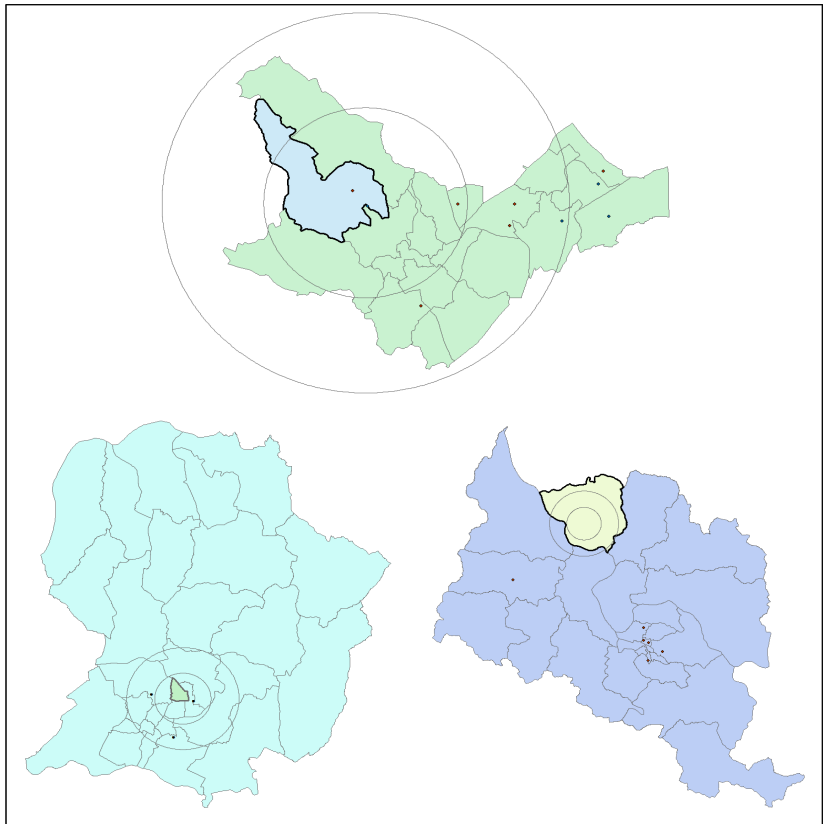
[그림 2-6] 조사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노인복지관은 여가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경우에 따라 급식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포함)은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양 지역 모두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영등2동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고, 충주시는 중심지역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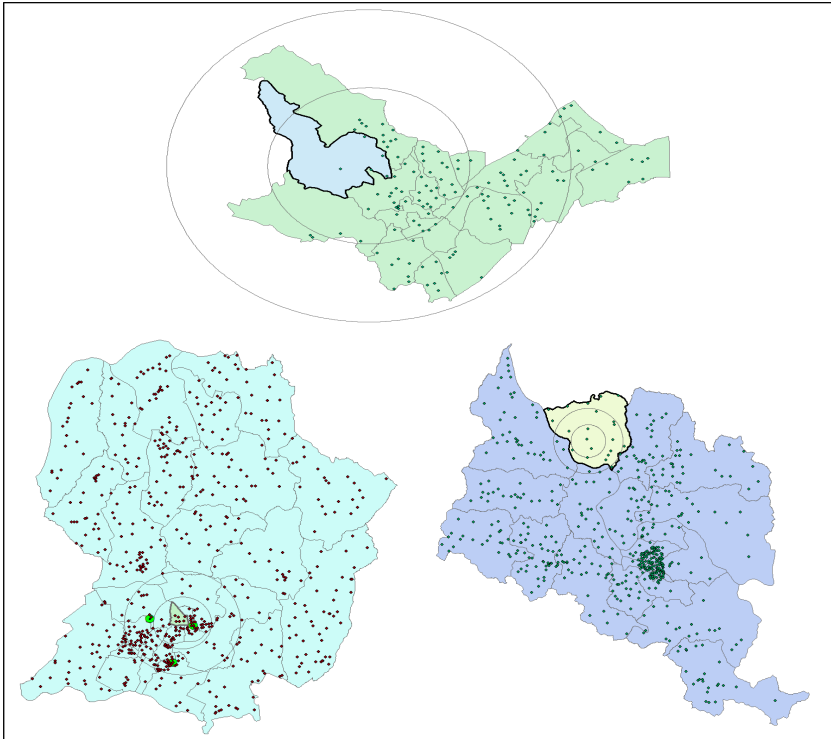
[그림 2-7]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1(노인복지관)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경로당이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이다.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시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아파트가 많은 동지역에 더 밀집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읍면지역에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다만,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특수성과 대도시 지역으로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여가시설이 많다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2(경로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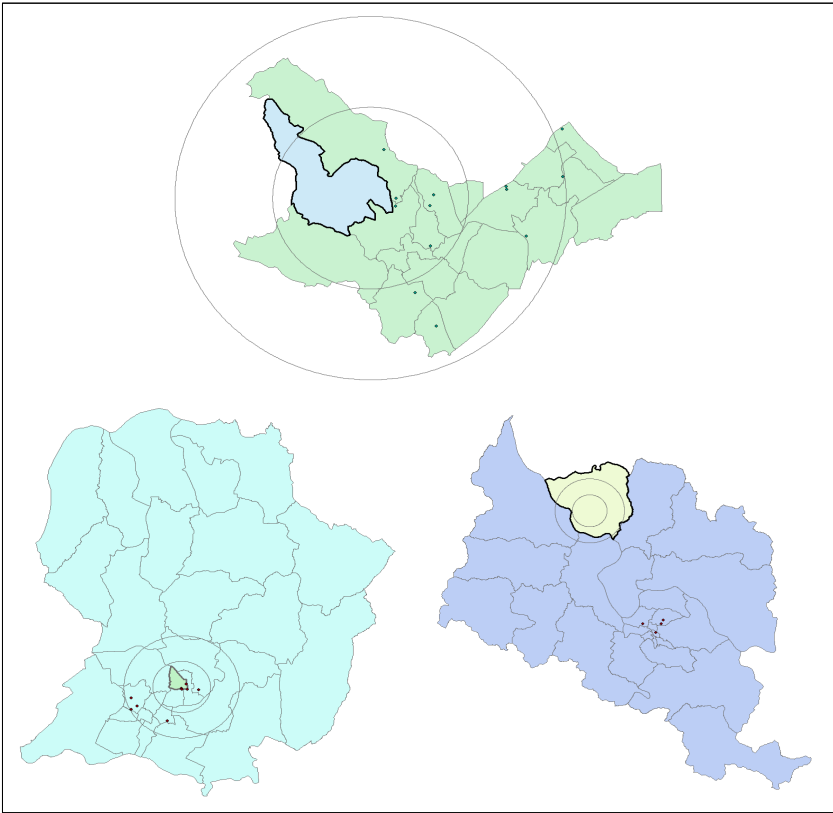


주: [그림 2-1]과 동일

3. 보건의료부문

병원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진료하고 있는 병의원은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양 지역 모두 도심지역에 밀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외곽지역은 전무한 양상으로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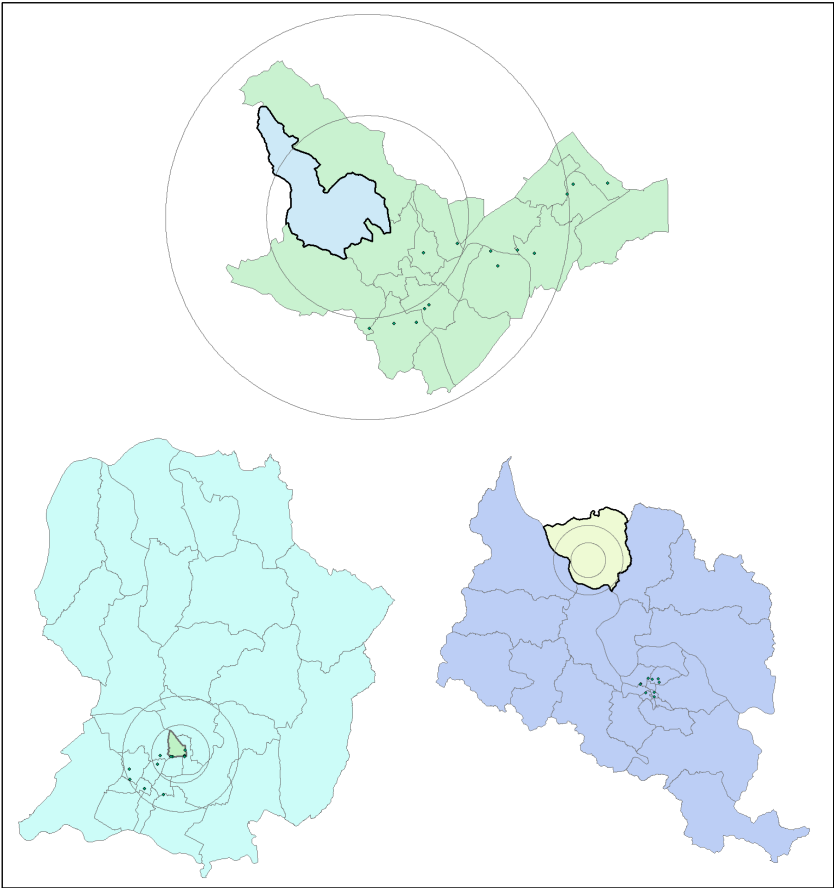
[그림 2-9] 조사지역별 소아청소년과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산부인과 또한 동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지역 시·군·구 외곽지역은 산부인과가 전혀 위치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기적 진료가 필요한 임신부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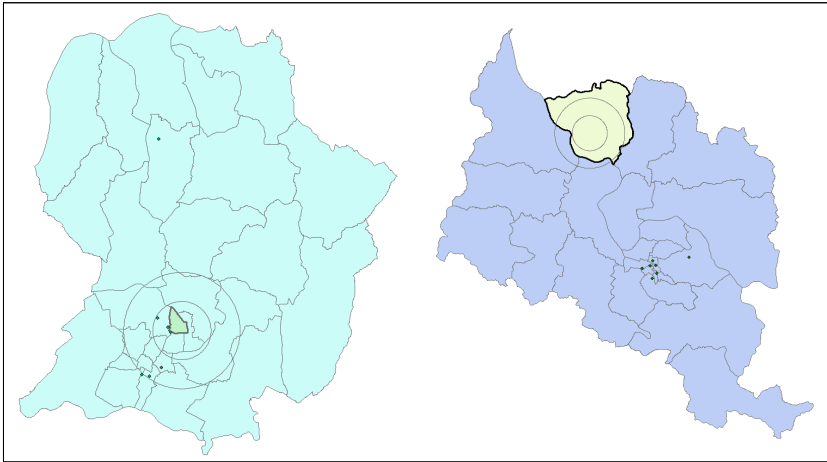
[그림 2-10] 조사지역별 산부인과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과,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중대형병원 역시 중심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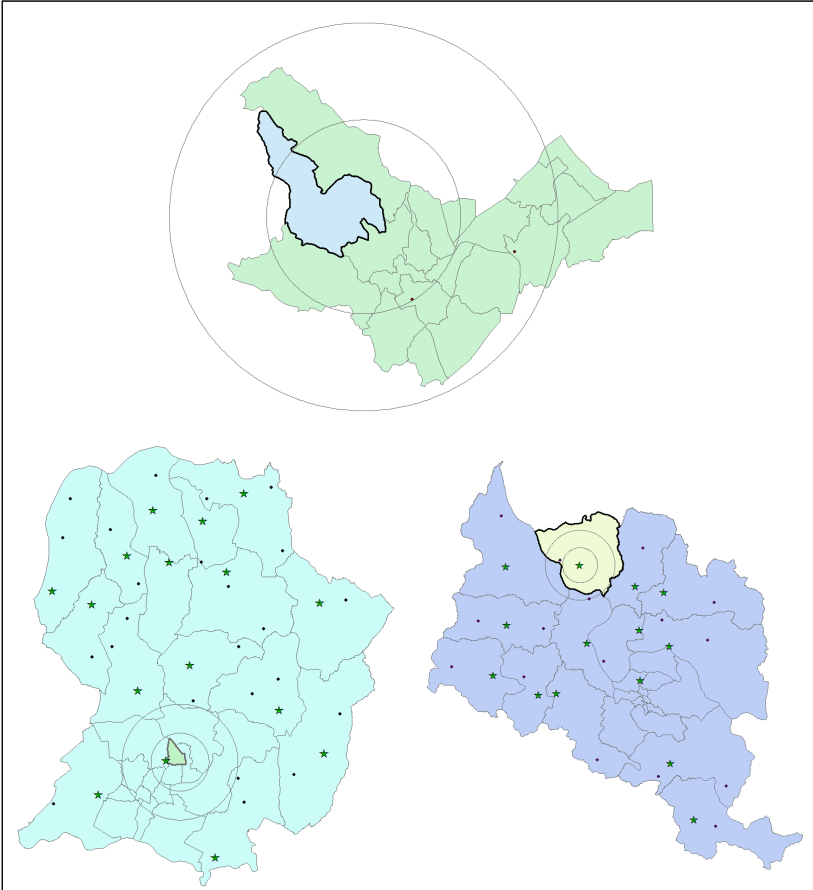
[그림 2-11] 조사지역별 중대형 병원 분포



-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km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km 이내의 지역임.

민간의료기관의 도심지역 편중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며,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그것이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로 1개소씩 두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 지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그림 2-12] 과 같이 지역별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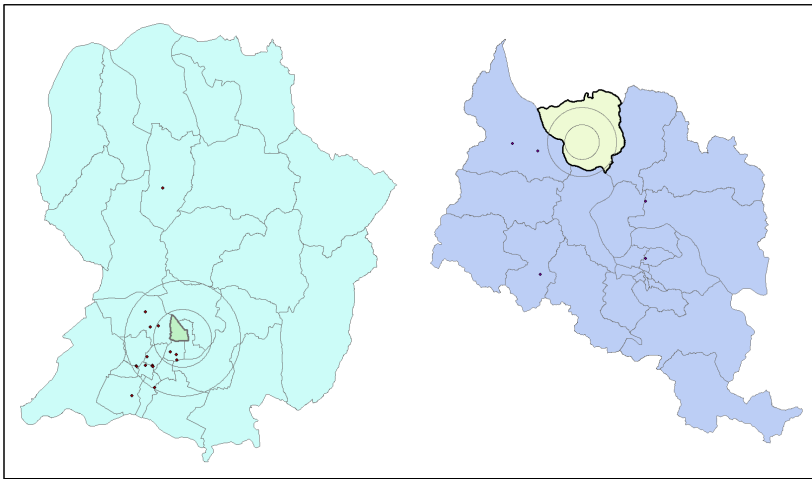
[그림 2-12] 조사지역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분포



-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영등2동), 하단 우측 그림은 충북 충주시(소태면)임. 시·군·구 내의 붉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km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km 이내의 지역임.
 3) 별표(☆)는 보건(지)소이고, 점(●)은 보건진료소

한편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익산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충주시는 비록 적은 수이나 전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림 2-13] 조사지역별 노인요양병원 분포



-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붉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km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km 이내의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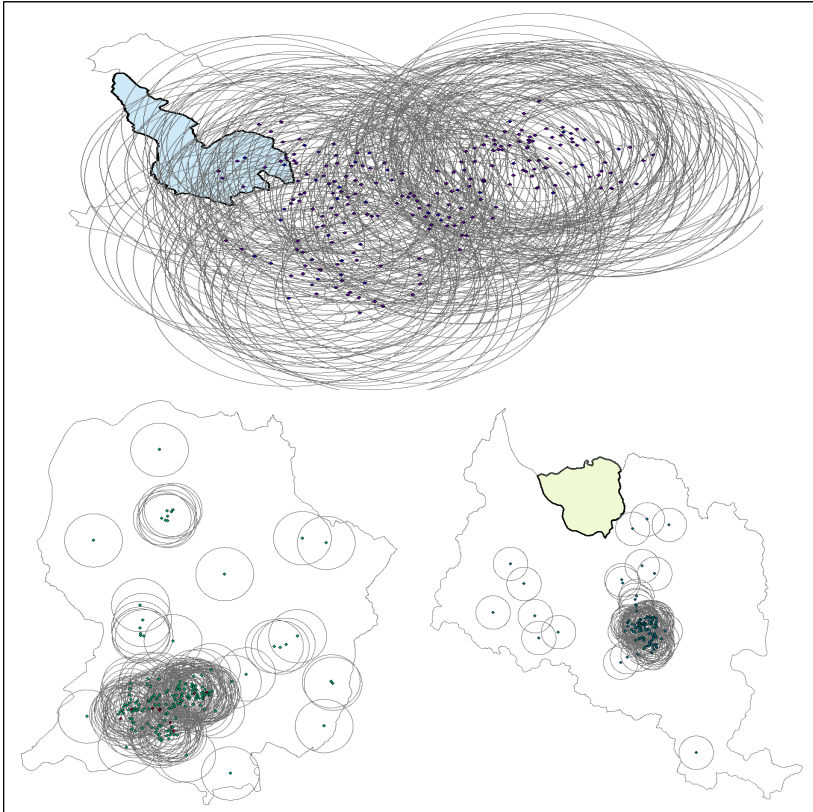
4. 주요 자원의 공급자중심 접근성

앞서 성북구, 익산시, 충주시 지역의 시설분포와 함께 정릉3동(성북구), 영등2동(익산시), 소태면(충주시)의 주민센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2km, 4km Buffer를 생성한 후 그 범위내에 시설들이 얼마나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전과 달리 공급자 중심으로, 즉 각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km Buffer를 생성하여 얼마나 많은 선들이 조사지역에 걸쳐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지)소·진료소 등 주요시설만 다루고자 한다.

성북구의 경우, 반경 2km Buffer의 수많은 선들이 정릉3동을 지나가고 있다. 이는 보육수요자인 정릉3동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어떠한 어린이집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시 영등2동도 마찬가지이다. 영등2동은 익산시의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들이 걸쳐져 있다. 따라서 영등2동의 학부모도 어떠한 어린이집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은 그러하지 아니다. 충주시의 어린이집도 충주시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소태면에 걸쳐있는 선은 전혀 없다.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소태면 관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선이 전혀 걸쳐 있지 않은 다른 면단위 지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접근성에 있어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르게 되는 상황이다.

[그림 2-14] 조사지역별 개별 어린이집별 반경 2km Bu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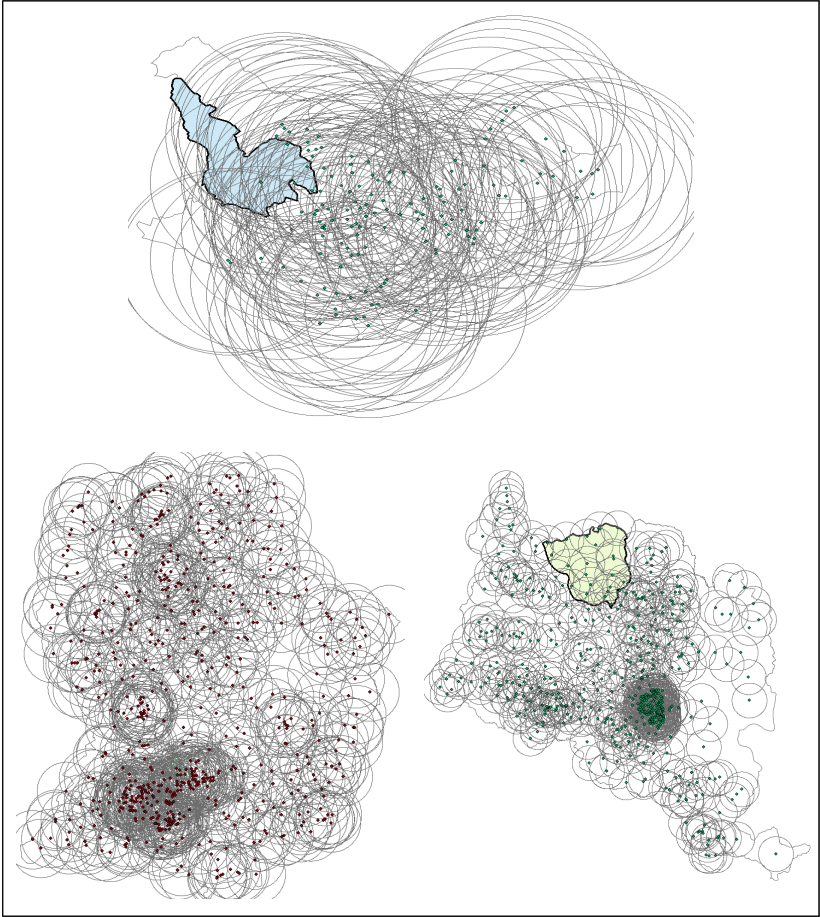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하단 우측 그림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는 시설 반경 2km 이내의 지역임.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정릉3동(성북구), 영등2동(익산시), 소태면(충주시) 등 3지역 모두 많은 선들이 걸쳐져 있다. 경로당 자체가 소외된 지역 없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 지역주민, 특히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많은 선들이 사례지역에 걸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가능성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마을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을간 친목관계가 돈독하다면 마을 구분 없이 여가선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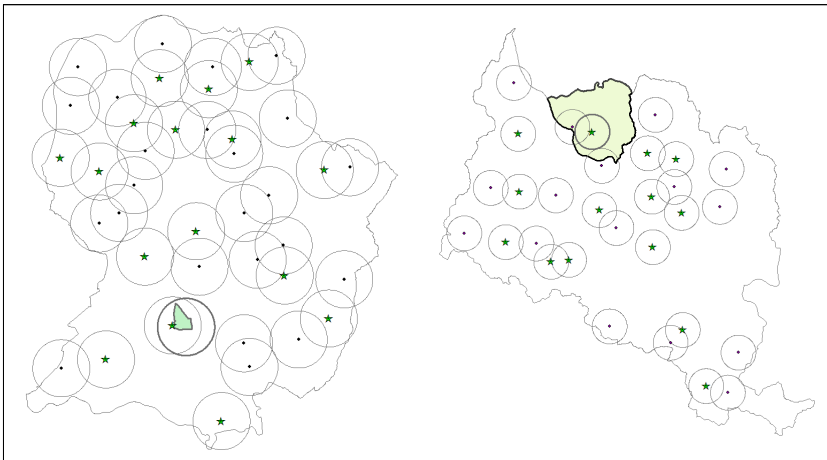
[그림 2-15] 조사지역별 개별 경로당별 반경 2km Buffer



주: [그림 2-14]와 동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분포와 관할범위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등2동(익산시)의 경우가 그러한데, 반경 2km Buffer가 균형적으로 걸쳐져 있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Buffer내에 포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태면의 경우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경 2km Buffer를 벗어나는 지역도 상당하다. 이는 산간지역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정도 수준이면 접근성은 양호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6] 조사지역별 개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별 반경 2km Buffer



-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시설 2km 이내의 지역임.
 4) 별표(☆)는 보건(지)소이고, 점(.)은 보건진료소

제3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구조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부응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임기 인구의 출산행동과 노년층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측면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의료시설,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지역특성 감안시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이었다. 수요측면에서 서비스 대상 인구집단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노인 인구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지역별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특성이 각각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의료시설은 익산시, 충주시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성북구에 비해 적게 설치되었고, 경로당은 익산시, 충주시에 비해 성북구가 개소당 이용가능자수 평균치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익산시, 충주시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의료시설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었고, 성북구는

경로당의 여가대체시설로서 다른 공공·민간 여가문화시설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분포 불균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2-6, 3-93 참조).

둘째, 지역내에서의 자원분포는 사례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림현상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포함), 민간의료시설(중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읍면 단위에서는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읍·면 지역은 시설보육에 애로를 겪거나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전 연령층의 인구가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인들은 여가생활의 중심이 경로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경로당 이용률이 충주시 소태면(80.9%), 익산시 영등2동(33.3%), 성북구 정릉3동(5.7%)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87 참조).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읍면 단위 경로당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린이집, 경로당으로부터 각각 2km Buffer(도보 30분 거리)를 생성하여 조사지역 동·읍면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겹쳐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은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 많은 선들이 겹쳐져 있었고, 특히 소태면에 있어 어린이집 Buffer선은 전혀 지나가지 않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소태면의 어린이들은 보육시설 이용 선택권이 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 역시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취약지역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나 인근 읍면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비 지원을 통한 등하원 편의 제공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제2절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제3절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제4절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

3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본 장에서는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로 실시한 가구조사, 미혼자조사,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 등 4 종류의 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서술하였다.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본 절은 가구조사 결과의 분석으로 조사응답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구주의 일반특성, 그리고 조사응답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였다.

1.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3차 지역추적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는 총 901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성북구 정릉3동이 300가구, 익산시 영등2동은 301가구, 충주시 소태면 300가구 등이다. <표 3-1>에서 조사지역별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인가구가 24.3%, 부부가구 21.7%, 자녀동거가구 50.0%, 기타가구 4.0%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인가구가 6.3%, 부부가구 12.3%, 자녀동거가구 80.7%, 기타가구 0.7% 등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1인가구가 26.0%, 부부가구 43.3%, 자녀동거가구 22.3%, 기타가구 8.3% 등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2개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

면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1차년도보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가 감소하였으나,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이다.

가구단위의 동거가구원 수를 보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1명 24.3%, 2명 29.0%, 3명 21.3%, 4명 18.0%, 5명 이상 7.3%로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명 6.3%, 2명 14.0%, 3명 20.9%, 4명 48.5%, 5명 이상 10.3%로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가장 많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1명 26.0%, 2명 50.0%, 3명 11.3%, 4명 8.0%, 5명 이상 4.7%로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이며 동거가구원수가 가장 적다.

동거가구원의 연령은 개인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항목을 선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미혼자조사 및 기혼여성조사 대상자는 주로 20~49세 연령층의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되고, 중고령자조사는 5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대상자이며, 9세 이하 연령층은 기혼여성조사 내의 자녀양육 관련 조사내용과 연관된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9세 이하 연령층은 17.7%, 20~49세 33.7%, 50세 이상 48.6% 등으로 중고령자 비율이 높고, 익산시 영등2동은 19세 이하가 40.3%, 20~49세 48.1%, 50세 이상 11.5% 등으로 20~49세 청장년층과 19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충주시 소태면은 19세 이하가 10.0%, 20~49세 14.6%, 50세 이상 75.3% 등으로 2개 도시지역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19세 이하 연령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49세 연령층의 혼인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유배우(기혼)상태가 47.1%, 미혼 46.4%, 무배우(기혼) 6.5%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상태가 58.3%, 미혼 35.4% 무배우(기혼) 6.3% 등으로 2개 지역은 유배우자(기혼) 비율이 60% 이하인데 비하여, 익산시 영등2동은 90.6%로 매우 높다.

〈표 3-1〉 조사지역별 가구 일반사항

(단위: %, 명, 가구, 세)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형태									
1인 가구	24.3	6.3	26.0	20.3	4.7	25.3	19.3	6.0	24.7
부부 가구	21.7	12.3	43.3	17.7	14.3	44.0	17.7	10.3	42.7
자녀동거가구	50.0	80.7	22.3	57.3	80.4	21.7	60.7	83.7	25.3
기타 가구	4.0	0.7	8.3	4.7	0.7	9.0	2.3	-	7.3
동거가구원 수									
1명	24.3	6.3	26.0	20.3	4.7	25.3	19.3	6.0	24.7
2명	29.0	14.0	50.0	28.0	15.3	50.7	27.3	11.3	48.3
3명	21.3	20.9	11.3	25.0	22.3	13.7	24.3	19.9	13.3
4명	18.0	48.5	8.0	16.0	47.5	5.0	18.0	53.2	6.7
5명 이상	7.3	10.3	4.7	10.7	10.3	5.3	11.0	9.6	7.0
(평균)	(2.6)	(3.4)	(2.2)	(2.7)	(3.5)	(2.2)	(2.8)	(3.5)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300)	(301)	(300)	(300)	(301)	(300)
동거가구원 연령									
9세 이하	7.4	19.4	5.0	8.6	19.5	5.8	7.7	20.5	6.0
10~19세	10.3	20.9	5.0	12.2	20.7	4.0	12.5	21.7	4.6
20~29세	8.9	4.2	2.4	8.8	3.9	2.5	10.2	4.1	4.1
30~39세	11.0	19.7	3.8	13.4	20.2	3.8	12.3	21.0	4.3
40~49세	13.8	24.2	8.4	16.0	23.8	8.3	15.6	23.4	9.0
50~59세	16.5	5.6	19.8	14.9	5.8	20.5	17.5	5.1	19.9
60세 이상	32.1	5.9	55.5	26.0	6.1	55.1	24.3	4.2	52.2
(평균)	(45.5)	(29.8)	(58.0)	(42.5)	(29.7)	(57.9)	(42.4)	(28.3)	(5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75)	(1,036)	(656)	(818)	(1,040)	(653)	(835)	(1,056)	(680)
20~49세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46.4	8.0	35.4	38.3	7.2	32.6	42.5	6.4	33.1
유배우(기혼)	47.1	90.6	58.3	57.5	91.8	62.1	53.1	92.4	55.1
무배우(기혼)	6.5	1.4	6.3	4.2	1.0	5.3	4.4	1.2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1)	(499)	(96)	(313)	(499)	(95)	(318)	(512)	(118)
50세 이상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1.9	0.8	0.6	1.8	0.8	0.6	1.1	1.0	1.0
유배우(기혼)	69.2	78.2	73.3	66.3	82.1	74.7	70.2	78.6	75.1
무배우(기혼)	28.9	21.0	26.1	31.9	17.1	24.7	28.7	20.4	2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7)	(119)	(494)	(335)	(123)	(494)	(349)	(98)	(490)

한편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혼인상태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유배우(기혼) 69.2%, 무배우(기혼) 28.9%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유배우(기혼) 78.2%, 무배우(기혼) 21.0%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 73.3%, 무배우(기혼) 26.1%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적은 익산시 영등2동은 유배우(기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가 68.7%, 여자 31.3%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가 93.7%, 여자 6.3%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74.0%, 여자 26.0% 등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남자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다(표 3-2 참조).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65세 이상이 44.0%로 가장 많고, 55~64세 22.3%, 45~54세 15.7%, 35~44세 14.7% 등의 순으로 평균 연령이 60.2세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35~44세가 41.9%로 가장 높고, 45~54세 30.2%, 34세 이하 11.6% 등으로 평균 연령이 45.9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은 65세 이상이 58.0%로 과반수이고, 55~64세 25.3%, 45~54세 13.7% 등으로 평균 연령이 66.4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가구주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약 20세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9.0%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 20.0%, 초등학교 이하 25.0%, 중학교 16.0% 등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익산시 영등2동은 대학 이상의 비율이 60.8%로 높고, 고등학교 29.2%, 중학교 이하는 10.0%이다. 가구주 연령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초등학교 이하가 51.7%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23.3%, 중학교 16.7%, 대학 이상 8.3% 등이다.

가구주의 취업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88.4%로 가장 높고, 충주시 소태면 79.0%, 성북구 정릉3동 64.3% 등이다.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직

중은 성북구 정릉3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4.9%로 가장 많고, 익산시 영등2동은 사무종사자 25.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9%이며,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81.4% 등으로 3개 조사지역의 산업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조사지역별 가구주 일반사항

(단위: %,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주 성			
남자	68.7	93.7	74.0
여자	31.3	6.3	26.0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3.3	11.6	0.3
35~44세	14.7	41.9	2.7
45~54세	15.7	30.2	13.7
55~64세	22.3	6.6	25.3
65세 이상	44.0	9.6	58.0
(평균)	(60.2)	(45.9)	(66.4)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5.0	6.3	51.7
중학교	16.0	3.7	16.7
고등학교	39.0	29.2	23.3
대학 이상	20.0	60.8	8.3
가구주의 취업 여부			
예(취업)	64.3	88.4	79.0
아니오	35.7	11.6	21.0
계	100.0	100.0	100.0
(명)	(300)	(301)	(300)
가구주의 종사 직종 ¹⁾			
관리자	3.6	2.3	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2	10.2	1.7
사무 종사자	10.4	25.6	1.3
서비스 종사자	4.7	6.0	5.5
판매 종사자	17.6	8.6	2.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0	1.5	8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6	13.9	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	22.9	2.1
단순노무 종사자	24.9	7.1	4.6
군인	-	1.1	-
기타	-	0.8	-
계	100.0	100.0	100.0
(명)	(193)	(266)	(237)

주: 1) 현재 취업중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조사가구의 경제상황

응답가구의 2014년 가구소득에서 소득종류별 소득원 여부를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근로소득이 71.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사적이전소득이 69.3%, 공적이전소득 58.7%, 사업소득 22.0%, 재산소득 9.0% 등의 순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근로소득이 7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적이전소득이 68.8%, 사업소득 26.5%, 공적이전소득 25.2%, 재산소득 5.4% 등의 순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공적이전소득이 86.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사적이전소득 78.0%, 사업소득 75.3%, 근로소득 30.3%, 재산소득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도시지역은 근로소득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농업에 의한 사업소득과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령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세 개 조사지역에서 기타 소득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원가구의 경우 2014년 사전조사, 현장조사, 심층면접조사 등에서 조사답례품으로 제공한 일정액의 상품권이 가구소득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만원 미만 23.0%, 100~200만원 미만 18.3%, 300~400만원 미만 17.7%, 200~300만원 미만 17.3%, 500만원 이상 15.0%, 400~500만원 미만 8.7% 등으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구(41.3%) 비율이 높았다. 익산시 영등2동은 300~400만원 미만 28.2%, 500만원 이상 26.5%, 400~500만원 미만 20.8%, 200~300만원 미만 14.4%, 100~200만원 미만 6.0%, 100만원 미만 4.0% 등으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절반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원 미만 27.0%, 200~300만원 미만 18.0%, 500만원 이상 7.7%, 300~400만원 미만 7.3%, 400~500만원 미만 6.7% 등의 순으로 2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약 60% 수준이다.

〈표 3-3〉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득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소득종류별 소득원 ¹⁾			
근로소득	71.0	78.2	30.3
사업소득	22.0	26.5	75.3
재산소득	9.0	5.4	13.0
사적이전소득	69.3	68.8	78.0
공적이전소득	58.7	25.2	86.0
기타소득 ²⁾	85.0	90.9	95.0
(대상 가구수)	(300)	(298)	(300)
월평균 가구소득액 ³⁾			
100만원 미만	23.0	4.0	33.3
100~200만원 미만	18.3	6.0	27.0
200~300만원 미만	17.3	14.4	18.0
300~400만원 미만	17.7	28.2	7.3
400~500만원 미만	8.7	20.8	6.7
500만원 이상	15.0	26.5	7.7
계	100.0	100.0	100.0
(가구)	(298)	(298)	(300)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다	0.3	-	-
높은 편이다	2.3	8.3	8.3
그저 그렇다	33.3	74.8	58.3
낮은 편이다	42.7	16.6	24.7
매우 낮다	21.3	0.3	8.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예(수급)	7.3	1.0	5.3
아니오	92.7	99.0	94.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주: 1) 소득종류별 소득이 있다고 한 비율임.

2)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환급금, 할인혜택(무료 쿠폰)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등에서 구분되지 않은 소득임. 조사응답가구의 경우 2014년 조사답례품으로 제공한 농협상품권이 포함되어 기타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월평균 가구 소득액=(연간 총소득/12)의 값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의 경우 ‘낮은 편이다’ 또는 ‘매우 낮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64.0%,

익산시 영등2동은 16.9%, 충주시 소태면은 33.4% 등이고,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2.6%,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8.3%로 같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분포 비율에서 충주시 소태면보다 저소득 비율이 적은 수준이나 주관적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1.0%로 가장 낮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7.3%, 5.3%이다.

〈표 3-4〉에서 조사가구의 2014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200만원 미만인 3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인 23.7%, 100만원 미만 19.3%이며, 300~400만원 미만 17.7%, 400만원 이상 8.0% 등의 순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200~300만원 미만이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00~400만원 미만이 30.5%, 400만원 이상 17.8%, 100~200만원 미만 12.1%, 100만원 미만 5.4%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 30.7%, 200~300만원 미만 17.0%, 300~400만원 미만 8.7%, 400만원 이상 4.7% 등으로 나타났다. 3개 지역 중 자녀동거 비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적은 익산시 영등2동의 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비 중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주거관련비(23.3%)와 식료품비(17.0%), 의료비(16.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혼자녀 동거 비율이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교육비(29.9%), 식료품비(22.0%), 기타(15.8%) 등의 순이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28.7%), 식료품(18.7%), 의료비(12.7%),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관련비의 부담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은 주거관련비(49.7%)와 식료품비(38.7%)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54.8%)와 교육비(48.8%),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55.0%)와 의료비(32.0%)라고 응답하였다.

〈표 3-4〉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비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100만원 미만	19.3	5.4	39.0
100~200만원 미만	31.3	12.1	30.7
200~300만원 미만	23.7	34.1	17.0
300~400만원 미만	17.7	30.5	8.7
400만원 이상	8.0	17.8	4.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298)	(300)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17.0	22.0	18.7
주거관련비	23.3	4.4	28.7
교육비	15.0	29.9	5.7
의료비	16.0	4.7	12.7
교통비	1.7	3.4	12.3
통신비	2.0	6.0	0.3
경조비	5.3	4.0	4.0
부채상환	6.3	8.4	5.7
기타(민간보험료 등)	7.3	15.8	7.7
없음	6.0	0.7	4.3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복수응답률)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38.7	54.8	30.7
주거관련비	49.7	18.3	55.0
교육비(보육비 포함)	21.3	48.8	10.3
의료비	30.3	11.3	32.0
교통비	9.0	20.3	29.3
통신비	18.0	33.9	10.3
경조비	18.3	13.0	15.0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13.7	21.6	8.7
기타(민간보험료 등)	21.3	46.5	13.0

〈표 3-5〉에서 주택의 소유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자가소유율이 50.7%이고, 전세 27.0%, 월세 18.3%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자가소유율이 각각 88.7%, 75.0%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주택 종류는 성북구 정릉3동은 단독주택이 53.0%, 다세대주택이 36.3%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대부분 아파트(98.7%)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98.7%가 단독주택이다.

〈표 3-5〉 조사지역별 주거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거 소유상태			
자가	50.7	88.7	75.0
전세	27.0	5.0	0.3
월세	18.3	3.7	1.0
기타	4.0	2.7	23.7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53.0	0.3	98.7
아파트	1.3	98.7	-
연립주택	9.0	0.3	-
다세대주택(빌라)	36.3	0.3	-
기타	0.3	0.3	1.3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제2절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⁴⁾

본 절에서는 1차와 2차 조사에 이어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15년에는 저출산 분야의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부가조사는 격년 시행)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는 세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미혼자의 학력, 직업력, 경제상황 및 결혼준비, 보건관련 사항 및 정책적 요인 등에 대해 다루었고, 부가조사는 미혼자의 주거상황 및 독립에 관한 사항과 이성교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가조사의 문항들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조사하지 않았던 신규 항목들이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사용한 미혼지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남녀의 연령으로, 아직 결혼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연령을 미혼지속기간으로 본다.

한편,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센서링 효과(censoring effect)를 유의하여야 한다. 고연령층일수록 이미 결혼한 인구는 조사대상 집단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남아 있는 고연령 미혼남녀는 동일 연령(코호트)의 전체 집단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오영희 외, 2013).

미혼자의 기초분석에서는 부가항목인 주거상황 및 독립, 이성교제 관련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4장의 부가조사 관련 분석에서 자세히 다룬다.

4)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미혼지속기간’, ‘총교육연장기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혼지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남녀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총교육연장기간’은 중학교까지의 학력을 0으로 둔 뒤 고등학교 이후의 총 교육기간(휴학이나 군입대 등을 포함하여 최종학력 졸업 혹은 재학)으로 정의한다.

1. 조사지역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미혼남녀는 총 117명이다(표 3-6 참조). 2013년 1차 원표본 중 2015년 조사에도 응답한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 27명(남자 16명, 여자 11명), 익산시 영등2동 15명(남자 6명, 여자 9명), 충주시 소태면 16명(남자 13명, 여자 3명)으로,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한 두 도시지역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였다.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의 미혼남녀가 대폭 감소하고 익산시 영등2동의 미혼남녀가 증가하였으나 조사지역 자체의 미혼자가 줄었다기보다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혼남녀의 일반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31명, 여자 24명으로 총 55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19명, 여자 17명으로 총 36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1명, 여자 5명으로 총 26명이다. 2014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50명, 여자 34명으로 총 84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18명, 여자 12명으로 총 30명, 충주시 소태면 남자 21명, 여자 4명으로 총 25명이 조사되었다. 2013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34명, 여자 28명, 총 62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13명, 여자 16명으로 총 29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명, 여자 6명, 총 32명이 조사되었다. 각 차수별로 조사완료 미혼남녀 수의 변동이 가장 큰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지역의 연령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20대 후반이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은 2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30대 초반이 분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진입과 퇴출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익산시 영등2동은 3년 모두 꾸준히 20대 초반의 비율이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연령이 높아 질수록 미혼남녀의 분포가 감소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센서링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모두 500만원 이상이 34.5%, 33.3%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충주시 소태면은 200~300만원 미만이 26.9%, 100~200만원 미만이 2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3년에 걸친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세 지역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은 80.0%, 익산시 영등2동 83.3%로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은 69.2%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지역 미혼남녀의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세 지역 모두 취업상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2014년 43.3%가 취업상태였던 반면 2015년에는 61.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조사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에는 4~5월에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7~8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2015년의 조사시기가 여름방학과 겹쳐 20대가 83.3%인 익산시 영등2동의 미혼남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겸하여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31(56.4)	19(52.8)	21(80.8)	50(59.5)	18(60.0)	21(84.0)	34(54.8)	13(44.8)	26(81.3)
여자	24(43.6)	17(47.2)	5(19.2)	34(40.5)	12(40.0)	4(16.0)	28(45.2)	16(55.2)	6(18.8)
연령									
20~24세	14(25.5)	22(61.1)	5(19.2)	25(29.8)	16(53.3)	2(8.0)	17(27.4)	14(48.3)	9(28.1)
25~29세	16(29.1)	8(22.2)	5(19.2)	19(22.6)	7(23.3)	8(32.0)	13(21.0)	5(17.2)	10(31.3)
30~34세	9(16.4)	3(8.3)	8(30.8)	20(23.8)	4(13.3)	8(32.0)	16(25.8)	6(20.7)	7(21.9)
35~39세	8(14.5)	1(2.8)	3(11.5)	10(11.9)	1(3.3)	4(16.0)	5(8.1)	1(3.4)	2(6.3)
40~44세	4(7.3)	1(2.8)	2(7.7)	7(8.3)	1(3.3)	3(12.0)	7(11.3)	1(3.4)	4(12.5)
45~49세	4(7.3)	1(2.8)	3(11.5)	3(3.6)	1(3.3)	-	4(6.5)	2(6.9)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8)	-	-	8(9.5)	1(3.3)	3(12.0)	7(10.7)	1(3.6)	4(13.3)
100~200만원 미만	5(9.1)	1(2.8)	6(23.1)	15(17.9)	2(6.7)	3(12.0)	13(21.4)	1(3.6)	6(20.0)
200~300만원 미만	9(16.4)	4(11.1)	7(26.9)	12(14.3)	7(23.3)	3(12.0)	12(19.6)	8(28.6)	7(23.3)
300~400만원 미만	12(21.8)	11(30.6)	5(19.2)	16(19.0)	5(16.7)	6(24.0)	10(16.1)	3(10.7)	5(16.7)
400~500만원 미만	9(16.4)	8(22.2)	3(11.5)	8(9.5)	9(30.0)	5(20.0)	8(12.5)	8(28.6)	4(13.3)
500만원 이상	19(34.5)	12(33.3)	5(19.2)	25(29.8)	6(20.0)	5(20.0)	12(19.6)	7(25.0)	4(13.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	-	-	1(4.0)	-	-	1(3.1)
중학교	-	1(2.8)	-	2(2.4)	1(3.3)	1(4.0)	2(3.2)	1(3.4)	-
고등학교	11(20.0)	5(13.9)	8(30.8)	20(23.8)	3(10.0)	5(20.0)	14(22.6)	1(3.4)	8(25.0)
대학 이상	44(80.0)	30(83.3)	18(69.2)	62(73.8)	26(86.7)	18(72.0)	46(74.2)	18(93.1)	23(71.9)
취업 여부									
예(취업)	40(72.7)	22(61.1)	21(80.8)	56(66.7)	13(43.3)	20(80.0)	36(58.1)	15(51.7)	24(75.0)
아니오	15(27.3)	14(38.9)	5(19.2)	28(33.3)	17(56.7)	5(20.0)	26(41.9)	14(48.3)	8(25.0)
계(%)	55(100.0)	36(100.0)	26(100.0)	84(100.0)	30(100.0)	25(100.0)	62(100.0)	29(100.0)	32(100.0)

〈표 3-7〉은 조사지역의 지난 3년 동안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 남녀는 2014년에 비해

20대의 분포가 증가하였고, 30대의 분포는 감소하였다. 특히 익산시 영등2동 20~24세 남자가 7명에서 10명으로 3명 늘어났고, 여자는 9명에서 12명으로 3명 더 조사되어 20대 초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정릉3동은 조사완료 미혼남녀가 총 29명이 줄어들어 연령별 성별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3년 동안 분포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 3-7〉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5년						
20~24세	6(19.4)	8(33.3)	10(52.6)	12(70.6)	2(9.5)	3(60.0)
25~29세	7(22.6)	9(37.5)	4(21.1)	4(23.5)	4(19.0)	1(20.0)
30~34세	7(22.6)	2(8.3)	3(15.8)	-	7(33.3)	1(20.0)
35~39세	7(22.6)	1(4.2)	1(5.3)	-	3(14.3)	-
40~44세	3(9.7)	1(4.2)	-	1(5.9)	2(9.5)	-
45~49세	1(3.2)	3(12.5)	1(5.3)	-	3(14.3)	-
계(%)	31(100.0)	24(100.0)	19(100.0)	17(100.0)	21(100.0)	5(100.0)
2014년						
20~24세	13(26.0)	12(35.3)	7(38.9)	9(75.0)	1(4.8)	1(25.0)
25~29세	9(18.0)	10(29.4)	5(27.8)	2(16.7)	7(33.3)	1(25.0)
30~34세	16(32.0)	4(11.8)	4(22.2)	-	6(28.6)	2(50.0)
35~39세	7(14.0)	3(8.8)	-	1(8.3)	4(19.0)	-
40~44세	4(8.0)	3(8.8)	1(5.6)	-	3(14.3)	-
45~49세	1(2.0)	2(5.9)	1(5.6)	-	-	-
계(%)	50(100.0)	34(100.0)	18(100.0)	12(100.0)	21(100.0)	4(100.0)
2013년						
20~24세	8(23.5)	9(32.1)	5(38.5)	9(56.3)	7(26.9)	2(33.3)
25~29세	8(23.5)	5(17.9)	2(15.4)	3(18.8)	7(26.9)	3(50.0)
30~34세	10(29.4)	6(21.4)	4(30.8)	2(12.5)	6(23.1)	1(16.7)
35~39세	3(8.8)	2(7.1)	1(7.7)	-	2(7.7)	-
40~44세	4(11.8)	3(10.7)	-	1(6.3)	4(15.4)	-
45~49세	1(2.9)	3(10.7)	1(7.7)	1(6.3)	-	-
계(%)	34(100.0)	28(100.0)	13(100.0)	16(100.0)	26(100.0)	6(100.0)

2. 교육과 만혼화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결혼시기를 늦추는 영향요인으로 꼽고 있다(이상림, 2013; 박다은·유계숙, 2011; 류기철·박영화, 2009; 강현철·김기영, 1994). 이는 만혼화와 저출산의 영향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 만혼화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교육수준이 아닌 총교육연장기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교육연장기간은 고등학교부터 최종학력 재학 혹은 졸업기간까지의 기간(휴학, 취업 등으로 인한 기간 포함)을 의미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최근 미혼남녀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조사대상자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세 지역 통틀어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은 0으로 계산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최종학력 졸업 시기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총교육연장기간으로 정의하였다.

가. 교육과 미혼지속기간

세 지역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7.0년, 여자 6.5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6.0년, 여자 5.3년, 충주시 소태면 남자 7.7년, 여자 5.2년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2014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6.3년, 여자 6.5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7.4년, 여자 6.0년, 충주시 소태면 남자 7.8년, 여자 9.4년이였다. 2014년과 2015년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의 경우 1.4년, 여자의 경우 0.7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20대 초반 분포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성북구 정릉3동 여자(45~49세 평균 12.9년, 3명)와 충주시 소태면 남자(40~49세 평균 12.4년, 5명)에서 40대 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상위학교급으로 이행하기 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늦게 상위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평균치를 상승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평균 총교육연장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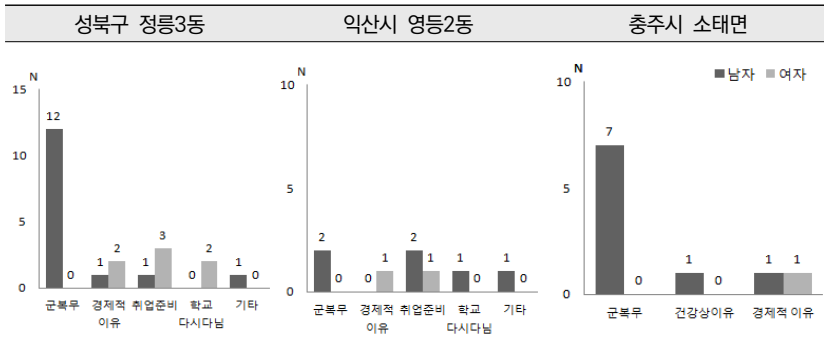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4세	5.0(6)	4.1(8)	4.7(10)	4.6(12)	2.9(2)	4.7(3)
25~29세	7.1(7)	7.3(9)	9.7(4)	7.4(4)	6.4(4)	6.9(1)
30~34세	9.1(7)	6.4(2)	5.6(3)	-	6.6(7)	4.9(1)
35~39세	5.9(7)	2.9(1)	8.9(1)	-	6.9(3)	-
40~44세	7.6(3)	2.9(1)	-	4.9(1)	11.0(2)	-
45~49세	9.9(1)	12.9(3)	2.9(1)	-	13.3(3)	-
전체(명)	7.0(31)	6.5(24)	6.0(19)	5.3(17)	7.7(21)	5.2(5)

[그림 3-1]은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세 지역 모두에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경제적 이유, 취업준비 등을 응답하여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3-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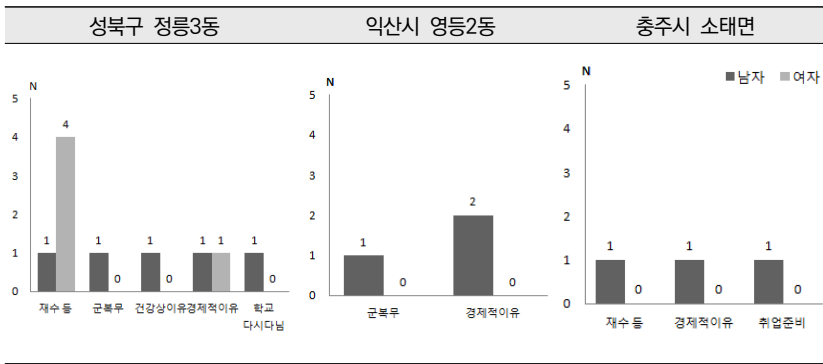
(단위: 명)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며 간격이 생긴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 여자와 충주시 소태면 여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지역의 남자에 한해 각각 3사례씩만 발견되었다(그림 3-2 참조).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응답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 고등학교-대학교급 간 간격 발생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재수 등의 상위학교로 이행하기 위한 간격 발생이었다.

[그림 3-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

(단위: 명)



나. 교육과 결혼행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결혼에 관한 의식 내지 가치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오영희 외, 2013; 이삼식, 2006). 결혼행태는 결혼의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의사는 설문지를 통해 6가지5)로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

5)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현재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잘 모르겠다’로 6가지 항목을 두어 응답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 결혼의사 유무를 재계산함.

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표 3-9〉는 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의사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의 경우 총교육연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의사가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의사가 낮았으나,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2015년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의사가 높았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 여자는 모두 결혼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미혼남녀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결혼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 미혼여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다는 점이 있지만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이 결혼의사가 높다는 점은 지역특성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총교육연장기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42.9(7)	100.0(1)	100.0(3)	66.7(3)	100.0(6)	-
3년~7년	80.0(5)	57.1(7)	50.0(4)	55.6(9)	100.0(3)	100.0(4)
7년~10년	42.9(7)	50.0(2)	25.0(4)	100.0(1)	100.0(6)	-
10년 이상	85.7(7)	0.0(1)	-	-	66.7(3)	-
전체(명)	61.5(26)	54.5(11)	54.5(11)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3. 직업과 만혼화

총교육연장기간과 더불어 만혼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직업 관련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의 직업 혹은 경제적 자원 관련 요인은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태현, 2010; 유홍준·현성민, 2010; 김정석, 2006). 본 분석에서 이와 같은 직업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와 미혼지속기간 및 결혼의사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직업과 미혼지속기간

〈표 3-10〉을 통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을 알아본 결과, 지난 3년 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상관성이 없으나 성북구 정릉3동 남자와 익산시 영등2동 여자의 경우 직업경험횟수가 없거나 3회일 때 직업경험횟수가 1~2회인 때보다 평균 미혼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경험횟수가 0회인 경우 아직 학생일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잦은 직업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은 〈표 3-11〉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소득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근로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23.7(3)	24.0(2)	23.7(3)	21.5(4)	33.0(2)	-
1회	32.5(26)	31.5(11)	27.8(11)	25.1(8)	34.1(10)	23.0(4)
2회	31.0(1)	25.7(7)	24.8(4)	25.0(3)	33.4(7)	32.0(1)
3회	21.0(1)	21.0(1)	34.0(1)	22.5(2)	29.0(2)	-
4회	-	24.0(2)	-	-	-	-
5회	-	47.0(1)	-	-	-	-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5)

〈표 3-1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3.7(3)	24.0(2)	23.7(3)	21.5(4)	33.0(2)	-
100만원미만	26.3(3)	24.0(4)	22.5(4)	20.6(5)	34.5(4)	24.5(2)
100~200만원	34.1(12)	29.8(12)	28.0(9)	24.2(5)	32.2(9)	25.0(3)
200~300만원	31.2(11)	31.3(6)	29.5(2)	27.0(2)	31.7(3)	-
300~400만원	32.5(2)	-	38.0(1)	43.0(1)	33.0(1)	-
400만원이상	-	-	-	-	38.5(2)	-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5)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은 비경제활동집단과 경제활동집단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표 3-12 참조). 경제활동집단 중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 집단의 미혼지속기간은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주당 40~60시간 미만 일하는 집단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시간 이상 일하는 집단의 경우 40~60시간 일하는 집단에 비해 미혼지속기간이 짧아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미혼지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3.7(3)	24.0(2)	23.7(3)	21.5(4)	33.0(2)	-
40시간미만	29.8(5)	20.3(3)	22.0(2)	20.8(4)	34.0(1)	-
40~60시간	33.5(19)	31.4(17)	28.8(13)	26.4(9)	34.0(12)	23.7(3)
60시간이상	27.8(4)	23.5(2)	21.0(1)	-	31.8(6)	26.5(2)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5)

나. 직업력과 결혼행태

각 지역별 미혼남녀의 성별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성별에 구분 없이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직업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증가하여 결혼의사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질수록 결혼을 통해 안정을 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2014년 연구에서 분석하였다(오영희 외, 2014). 2015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33.3(3)	0.0(1)	-	66.7(3)	100.0(1)	-
1회	68.2(22)	60.0(5)	55.6(9)	50.0(6)	100.0(9)	100.0(3)
2회	100.0(1)	75.0(4)	50.0(2)	66.7(3)	83.3(6)	100.0(1)
3회	0.0(1)	-	100.0(1)	100.0(1)	100.0(2)	-
4회 이상	-	0.0(1)	-	-	-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부터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표 3-14〉는 근로소득수준별 결혼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5〉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결혼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수준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역시 결혼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의사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33.3(3)	0.0(1)	-	66.7(3)	100.0(1)	-
100만원미만	-	66.7(3)	66.7(3)	66.7(3)	100.0(4)	100.0(2)
100~200만원	45.5(11)	50.0(4)	42.9(7)	50.0(4)	87.5(8)	100.0(2)
200~300만원	90.9(11)	66.7(3)	100.0(1)	100.0(2)	100.0(2)	-
300~400만원	50.0(2)	-	100.0(1)	0.0(1)	100.0(1)	-
400만원이상	-	-	-	-	100.0(2)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표 3-1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33.3(3)	0.0(1)	-	66.7(3)	100.0(1)	-
40시간미만	100.0(2)	50.0(2)	50.0(2)	50.0(2)	100.0(1)	-
40~60시간	57.9(19)	62.5(8)	55.6(9)	62.5(8)	90.9(11)	100.0(2)
60시간이상	100.0(3)	-	100.0(1)	-	100.0(5)	100.0(2)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표 3-13〉~〈표 3-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직업경험이 있는 집단이 직업경험이 없는 집단(비경제활동)보다 결혼의사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활성화되어야 결혼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4. 가족관계와 만혼화

가. 가족관계와 미혼지속기간

2013년과 2014년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통해 만혼화를 분석하였으나, 2015년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에서는 주거독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주거독립(경제적 독립과 상관없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 1인 주거를 의미함.)을 통해 세 지역 미혼남녀의 미혼지속기간과 결혼의사를 알아보도록 한다.

세 지역의 미혼남녀는 대부분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19.4%, 여자의 4.2%,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10.5%,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4.8%만이 1인주거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주거독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거독립(1인 주거)인 경우는 주거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명확하게 미혼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표 3-16 참조). 이는 2013년 1차 조사와 2014년 2차 조사의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이 외 주거독립과 관련한 분석은 4장의 부가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표 3-1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인주거	37.3(6)	47.0(1)	36.0(2)	-	40.0(1)	-
비독립	30.5(28)	28.0(23)	25.8(17)	23.9(17)	33.0(20)	24.8(5)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5)

나. 가족관계와 결혼행태

성북구 정릉3동의 남자와 여자, 익산시 영등2동 여자는 주거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17 참조). 반면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경우 1인 주거일 경우에 주거독립하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의사가 더 높았다.

〈표 3-1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인주거	33.3(3)	0.0(1)	100.0(2)	0.0(1)	100.0(1)	-
비독립	66.7(24)	60.0(10)	50.0(10)	66.7(12)	94.1(17)	100.0(4)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부터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결혼의사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지역별, 성별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3-18 참조). 성북구 정릉3동 남자 1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4명과 여자 2명, 충주시 소태면 남자 2명만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을 소유한 세 지역의 남자

7명 중 1명만이 결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2명 모두 결혼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 조사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 여자에서 주택을 소유한 집단의 경우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의사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보면, 주택 소유여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해 추후 후속 연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택소유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유	0.0(1)	-	100.0(4)	0.0(2)	100.0(2)	-
비소유	65.4(26)	54.5(11)	37.5(8)	72.7(11)	93.8(16)	100.0(4)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미혼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혼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오영희 외, 2014). 결혼에 대한 압력을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가족·친지'로 분류하고 직장동료, 친구 및 이웃사촌과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 '주변 사람'으로 집단화하여 결혼압력여부별 결혼의사를 파악하였다.

결혼압력여부별 결혼의사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19 참조). 남자의 경우 세 지역 모두에서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는 집단이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 여자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받지 않는 경우보다 결혼의사가 더 낮았다.

〈표 3-1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압력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받지 않음	60.0(15)	55.6(9)	55.6(9)	61.5(13)	87.5(8)	100.0(3)
가족·친지	66.7(12)	50.0(2)	66.7(3)	-	100.0(9)	100.0(1)
주변 사람	-	-	-	-	100.0(1)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부터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5.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이성교제 실태와 만혼화

〈표 3-20〉은 이성교제여부에 따른 결혼의사에 관한 것이다. 세 지역 모두 성별 차이 없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보다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의 결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분석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것이 결혼 의사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교제 관련사항은 2015년 주거독립과 마찬가지로 부가조사를 실시한 항목이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4장의 부가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에서 주거독립과 함께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표 3-2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이성교제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제	72.7(11)	100.0(4)	100.0(4)	80.0(5)	100.0(5)	100.0(1)
비교제	56.3(16)	28.6(7)	37.5(8)	50.0(8)	92.3(13)	100.0(3)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부터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6. 건강관리

건강은 결혼으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세 지역 미혼남녀가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세 지역 남녀 모두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 남자 19명 중 2명이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타 지역에 비해 다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3-21 참조).

〈표 3-2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매우 건강하다	22.6	12.5	15.8	11.8	9.5	-
건강한 편이다	48.4	58.3	36.8	47.1	61.9	60.0
그저 그렇다	25.8	16.7	26.3	35.3	23.8	40.0
나쁜 편이다	3.2	12.5	21.1	5.9	4.8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5)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통한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특히 충주시 소태면 여자의 경우 5명 모두 진찰 및 검진 경험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다.

〈표 3-2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음	32.3	54.2	15.8	47.1	23.8	100.0
없음	67.7	45.8	84.2	52.9	76.2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5)

〈표 3-23〉에서는 세 지역 모두 여자는 흡연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도 세 지역 모두 50% 이상이 피운 적이 없거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끔 피우기보다 매일 흡연하고 있었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1일 평균 13.8개비, 익산시 영등2동 남자는 1일 평균 13.8개비로 동일한 흡연량을 보였고, 충주시 소태면은 1일 평균 15개비로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3-2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흡연정도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피운 적 없음	38.7	100.0	31.6	100.0	42.9	100.0
현재 피우지 않음	25.8	-	21.1	-	14.3	-
가끔 피움	-	-	10.5	-	4.8	-
매일 피움	35.5	-	36.8	-	38.1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5)

음주는 세 지역 모두 흡연에 비해 좀 더 경험하고 있었다(표 3-24 참조). 최근 1년간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을 제외하고 두 지역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남

자가 좀 더 잦은 빈도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각 지역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7.6잔, 여자 4.7잔, 익산시 영등2동 남자 6.0잔, 여자 4.7잔, 충주시 소태면 남자 6.6잔, 여자 8.0잔으로 나타났다.

〈표 3-2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음주빈도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최근1년 마시지 않음	12.9	8.3	5.3	17.6	33.3	20.0
한 달에 1번 미만	22.6	12.5	21.1	17.6	9.5	40.0
한 달에 1번 정도	6.5	12.5	5.3	17.6	14.3	-
한 달에 2~3번 정도	9.7	37.5	21.1	41.2	4.8	20.0
1주일에 1번 정도	16.1	16.7	21.1	5.9	19.0	20.0
1주일에 2~3번 정도	29.0	12.5	15.8	-	19.0	-
1주일에 4~6번 정도	3.2	-	10.5	-	-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5)

7.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결혼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결혼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별 인식 정도는 〈표 3-25〉와 같다. 두 정책 모두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알고 있는 비율이 적었다. 이 두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지역별 성별 차이는 없었다.

미혼자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주택을 마련하는데 현재 주택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결혼을 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을 제외하면 미혼자들이 아직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면 결혼의사를 높이거나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61.3	41.7	31.6	41.2	47.6	40.0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71.0	58.3	31.6	52.9	47.6	20.0
(사례수)	(31)	(24)	(19)	(17)	(21)	(5)

주: 각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제3절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본 절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3개 지역의 가임연령 기혼여성 응답자의 임신·출산 및 양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3차년도 지역추적조사는 기본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차년도에서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특성은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생애주기이론(life course theory)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도 2차년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따른다. 우선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어 거시적으로 기혼여성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와 정책이라는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시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기혼여성과 이들의 임신 및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특성 및 미래계획

가. 사회경제적 특성

2015년 지역추적조사의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6>과 같다. 우선 연령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성북구 정릉3동은 40대가 59.4%로 나타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0대는 35.1%로 다음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30대가 46.9%, 40대가 49.8%로 30대와 40대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30대가 20.6%, 40대가 67.6%로 나타나 40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다른 두 지역

에 비해 30대 젊은 기혼여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혼인상태는 세 지역 모두 유배우 상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성북구 정릉3동 86.5%, 익산시 영등2동 99.1%, 충주시 소태면 94.1%).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미혼모가 포함되었고, 이혼 상태의 조사대상자가 6명 포함되어 있었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혼인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 23.0%, 300~400만원 미만 25.7%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 31.9%, 400~500만원 미만 25.0%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 17.6%, 200~300만원 미만 23.5%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소득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이며,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도 익산시 영등2동,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학력수준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충주시 소태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순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은 응답자의 62.2%가 취업상태였으며, 익산시 영등2동은 58.3%, 충주시 소태면은 82.4%로 나타났다. 소태면의 경우 주 산업이 농업인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총 출산자녀 평균을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2.24명), 익산시 영등2동(1.92명), 성북구 정릉3동(1.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태면 거주 여성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출산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20~24세	2.7	-	-	2.0	-	2.9	1.1	0.8	4.8
25~29세	2.7	3.4	11.8	6.9	5.1	8.6	4.3	4.9	11.9
30~34세	18.9	20.9	11.8	20.8	21.1	11.4	20.2	20.0	7.1
35~39세	16.2	26.0	8.8	14.9	27.0	11.4	19.1	30.2	14.3
40~44세	32.4	31.1	29.4	26.7	30.8	37.1	27.7	31.0	31.0
45~49세	27.0	18.7	38.2	28.7	16.0	28.6	27.7	13.1	31.0
혼인상태									
미혼(미혼모)	1.4	-	-	1.0	-	-	-	-	-
유배우	86.5	99.1	94.1	92.1	97.1	99.2	92.6	99.2	90.2
사별	1.4	0.4	2.9	2.0	2.9	0.4	3.2	0.4	4.9
이혼	8.1	0.4	2.9	4.0	-	0.4	1.1	0.4	4.9
별거	2.7	-	-	1.0	-	-	3.2	-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	-	5.9	5.0	2.1	2.9	3.2	-	14.3
100~200만원 미만	8.1	2.2	17.6	10.9	2.6	14.3	12.8	5.7	23.8
200~300만원 미만	23.0	10.8	23.5	22.8	13.2	34.3	25.5	15.9	14.3
300~400만원 미만	25.7	31.9	8.8	18.8	34.5	14.3	18.1	28.2	16.7
400~500만원 미만	14.9	25.0	17.6	16.8	20.4	17.1	14.9	28.2	11.9
500만원 이상	25.7	30.2	26.5	25.7	27.2	17.1	25.5	22.0	1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4	-	8.8	-	0.4	8.6	-	0.4	19.0
중학교	2.7	1.3	26.5	6.9	0.8	25.7	10.6	1.2	21.4
고등학교	54.1	34.5	44.1	45.5	32.9	42.9	43.6	39.3	47.6
대학 이상	41.9	64.3	20.6	47.5	65.8	22.9	45.7	59.0	11.9
취업 여부									
예(취업)	62.2	58.3	82.4	56.4	53.4	85.7	56.4	52.2	76.2
아니오	37.8	41.7	17.6	43.6	46.6	14.3	43.6	47.8	23.8
자녀수									
0명	9.5	3.4	2.9	10.9	5.9	2.9	8.5	4.5	4.8
1명	24.3	17.0	14.7	26.7	16.9	11.4	26.6	13.9	11.9
2명	48.6	66.0	41.2	45.5	64.1	42.9	50.0	69.8	47.6
3명	14.9	12.3	32.4	13.9	11.8	28.6	12.8	10.6	26.2
4명 이상	2.7	1.3	8.8	2.0	1.2	14.3	2.1	1.2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4)	(235)	(34)	(101)	(237)	(35)	(94)	(245)	(42)

주: 1) 2015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임(N=232).

2) 2014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이며(N=235) 취업 여부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236).

나. 미래계획

기혼여성의 미래계획은 생애주기이론 관점에서 현재의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미래 삶에 대한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미래계획은 인적자본의 개발 측면에서 진학계획과 노후 삶의 질 측면에서 노후준비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학계획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비율은 2.9%,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은 5.6%,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은 5.2%로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런 특성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은 농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기개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있음	5.6	5.2	2.9	6.9	11.4	-	17.3	12.4	5.3
없음	94.4	94.8	97.1	93.1	88.6	100.0	82.7	87.6	9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1)	(230)	(34)	(101)	(237)	(35)	(94)	(245)	(42)

노후 준비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서 충주시 소태면의 공적연금 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공적연금 준비율이 각각 54.1%, 50.2%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26.5%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준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아 40.0%로 나타났고, 성북구 정릉3동은 28.4%, 충주시 소태면은 20.6%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 거주 기혼여성 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가장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항목별 노후준비율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54.1	50.2	26.5	54.5	64.6	22.9	60.0	55.8	50.0
개인연금	28.4	40.0	20.6	25.7	40.1	34.3	45.0	63.6	55.6
기업퇴직연금	8.1	10.6	2.9	7.9	9.3	-	-	7.1	-
부동산	1.4	4.7	14.7	24.8	8.4	37.1	2.5	9.1	16.7
저축	12.2	18.3	23.5	18.8	21.9	25.7	30.0	46.8	38.9
주식·채권	2.7	3.4	-	5.9	4.2	-	2.5	10.4	-
기타	-	1.3	-	1.0	-	-	2.5	-	5.6
(대상자 수)	(74)	(235)	(34)	(101)	(237)	(35)	(94)	(245)	(42)

주: 항목별 노후 준비율은 전체 응답 중 각 항목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 노후준비율 역시 다른 2개 지역에 비해서 충주시 소태면의 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후준비 상태는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주시 소태면의 노후준비 상태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조사지역별 유배우여성 배우자의 노후준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78.6	92.1	57.1
개인연금	21.4	40.5	23.8
기업퇴직연금	12.5	34.9	-
부동산	8.9	7.4	38.1
저축	12.5	18.6	42.9
주식·채권	1.8	3.7	-
기타	-	1.9	-
(사례수)	(56)	(215)	(21)

주: 기혼여성응답자 중 유배우여성의 배우자 연령이 50세 미만인 대상자를 분석함.

2. 임신·출산·양육 특성

가. 결혼과 임신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생애사건이 혼인일 것이다. 혼인에 관한 많은 부분이 이후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중에서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의 초혼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 초혼연령은 약 26세로 거의 유사하지만,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이 23.7세로 낮게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적으면 연령이 많은 여성에 비해 총 가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산 가능성도 커진다.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출생아수가 높은 점에 초혼연령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초산연령 또한 충주시 소태면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태면 여성은 24.5세, 익산시 영등2동 여성은 26.9세, 성북구 정릉3동 여성은 26.7세로 나타났다.

〈표 3-3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 초혼연령	26.5	26.3	23.7
최소	20	14	14
최대	40	39	39
표준편차	4.85	3.09	4.46
(대상자수)	(73)	(235)	(34)
평균 초산연령	26.7	26.9	24.5
최소	20	19	15
최대	40	37	36
표준편차	4.47	3.23	4.50
(대상자수)	(67)	(227)	(33)

그리고 총 임신횟수를 살펴보면,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 횟수가 2.9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은 평균 2.6회, 익산시 영등2동은 평균 2.3회로 나타나,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임신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평균출생아수의 차이로 이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	2.6	2.3	2.9
최소	0.0	0.0	0.0
최대	7.0	5.0	5.0
표준편차	1.42	0.95	1.31
(사례수)	(74)	(235)	(34)

임신별 임신결과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대체로 셋째 임신부터 인공 임신중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의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여 2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2자녀 규범은 그 이후 현재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조사 결과도 이런 2자녀 규범의 일반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셋째 임신부터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임신을 기준으로 볼 때,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모성 건강과 직결됨으로써 정책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3-3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임신결과

(단위: %, 명)

구분	첫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일곱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사산	-	14.0	-	-	-	-	-
자연유산	15.7	7.0	15.8	-	33.3	-	-
인공임신중절	17.1	1.8	18.4	26.7	33.3	33.3	-
임신 중	-	-	5.3	-	-	-	-
정상출산	67.1	77.2	60.5	73.3	33.3	66.7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0)	(57)	(38)	(15)	(6)	(3)	(1)
익산시 영등2동							
사산	0.4	7.5	1.1	-	-	-	-
자연유산	8.7	3.0	9.2	4.5	16.7	-	-
인공임신중절	2.6	1.5	25.3	36.4	33.3	-	-
임신 중	-	-	3.4	-	-	-	-
정상출산	88.2	88.1	60.9	59.1	50.0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명)	(229)	(201)	(87)	(22)	(6)	-	-
충주시 소태면							
사산	-	17.2	-	-	-	-	-
자연유산	18.2	3.4	-	18.2	-	-	-
인공임신중절	3.0	-	25.0	9.1	-	-	-
임신 중	-	-	-	-	-	-	-
정상출산	78.8	79.3	75.0	72.7	100.0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명)	(33)	(29)	(20)	(11)	(4)	-	-

나. 출산과 산후조리

전체 임신 횟수 중 출산방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출산방법에서 자연분만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지만, 제왕절개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의사 권유 또는 본인 결정, 그리고 불가피한 제왕절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전체 임신 중 40.8%가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의 전체 임신 중 31.9%, 충주시 소태면 기혼

여성 전체 임신 중 17.1%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분만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 분만 비율도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3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방법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연분만	59.2	68.1	82.9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의사권유)	32.3	17.9	11.8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본인결정)	2.3	5.1	5.3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6.2	8.9	-
계	100.0	100.0	100.0
(임신허수)	(130)	(448)	(76)

임신의 결과로서 출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저체중아 출산 횟수를 살펴 보면,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 전체임신 129회 중에서 7.8%(10명) 출생 아동이 저체중아였고,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 전체임신 448회 중에서 3.6%(16명),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 전체 임신 76회 중에서 5.3%(4명) 출생 아동이 저체중아였다.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체중

(단위 : kg,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첫 임신	3.2(47)	2	3.2(202)	11	3.1(26)	2
두 번째 임신	3.2(44)	4	3.2(177)	5	3.1(23)	2
세 번째 임신	3.2(22)	3	3.3(53)	-	3.1(15)	-
네 번째 임신	3.4(11)	-	3.3(13)	-	3.1(8)	-
다섯 번째 임신	3.7(2)	-	3.4(3)	-	3.4(4)	-
여섯 번째 임신	2.8(2)	1	-	-	-	-
일곱 번째 임신	3.4(1)	-	-	-	-	-
전체(임신허수)	3.2(129)	(129)	3.2(448)	(448)	3.1(76)	(76)

출산 후 산후조리방법에서 세 지역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은 첫 임신을 기준을 볼 때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전체 응답건수의 16.7%(9건), 익산시 영등2동 17.8%(39건), 충주시 소태면 6.9%(2건)로 나타났다. 대도시 성북구 정릉3동보다도 중소도시 익산시 영등2동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소득수준이 익산시 영등2동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가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의 이용 비율은 세 지역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산후조리방법

(단위: 건)

구분	첫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일곱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산후조리원	9	3	-	2	-	-	-
산모도우미	3	6	2	3	1	1	1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37	30	18	6	1	2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	2	2	2	-	-	-
기타	5	7	2	-	-	-	-
계(응답수)	54	48	24	13	2	3	1
익산시 영등2동							
산후조리원	39	26	5	1	-	-	-
산모도우미	13	16	7	2	1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159	136	41	9	2	-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3	4	2	1	-	-	-
기타	5	6	2	-	-	-	-
계(응답수)	219	188	57	13	3	-	-
충주시 소태면							
산후조리원	2	-	-	-	-	-	-
산모도우미	3	2	-	-	1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20	20	11	5	3	-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3	1	3	2	-	-	-
기타	1	2	1	1	-	-	-
계(응답수)	29	25	15	8	4	-	-

다.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향후 자녀계획

일반적으로 출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계출산율 이외에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가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현재 자녀수의 격차에 주목하는데, 이 격차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3동의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격차는 0.78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0.66명, 충주시 소태면은 0.3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표 3-3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존자녀수									
남자	0.96	0.96	1.10	0.99	0.94	1.20	1.0	1.0	1.1
여자	0.82	0.96	1.20	0.99	0.93	1.22	0.9	0.9	1.0
전체 평균	1.8	1.9	2.3	1.7	1.9	2.4	2.0	2.0	2.3
이상적인 자녀수	2.58	2.56	2.65	2.7	2.6	2.4	2.6	2.6	2.7

출산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추가 출산계획이다. 합계출산율 지표가 출산 지연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출산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17.2%가 향후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11.5%, 충주시 소태면은 6.3%가 향후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향후 출산 계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현재 자녀수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여성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이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은 향후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주시 소태면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빨리 출산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획 있음	17.2(11)	11.5(27)	6.3(2)
계획 없음	82.8(53)	86.3(202)	93.8(30)
잘 모름	-	2.1(5)	-
계(사례수)	100.0(64)	100.0(234)	100.0(32)

앞서 추가 출산 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도 역시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다만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계획한 자녀를 다 낳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세 지역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고, 익산시 영등2동은 젊은 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점을 고려해 성북구 정릉3동의 늦은 출산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자녀교육비 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응답한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 소태면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 사교육의 기회가 적고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표 3-3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실업상태여서	-	3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1	4	-
소득이 적어서	3	19	3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3	4	-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12	44	10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8	118	6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5	9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4	13	-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	10	-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	4	-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	1	-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	2	-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2	-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4	42	12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	1	-
아이가 많아서	-	2	1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1	4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	1	-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3	6	-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5	20	3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1	1	-
나이가 많아서	28	86	19
기타	-	5	1
계(응답수)	98	401	56

라. 양육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은 여러 가지 가족생활과 여성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연계되며,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맥락과도 연계되어 있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지역의 기혼여성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우선 지역별 가구당 양육자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북구 정릉3동의 응답 가구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없는 가구는 54.1%, 익산시 영등2동은 48.1%, 충주시 소태면 58.8%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세 지역 모두 대체로 40% 이상의 가구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0명	54.1	48.1	58.8
1명	18.9	28.1	17.6
2명	23.0	20.0	17.6
3명	4.1	3.8	5.9
계	100.0	100.0	100.0
(명)	(74)	(235)	(34)

다음으로 가장 어린 자녀(자녀1)를 기준으로 보육교육 등의 시설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고, 부가적으로 특기 및 보습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 빈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충주시 소태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외의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자녀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0〉의 ‘자녀2’를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학원이용 사례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점에서 익산시 영등2동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표 3-40〉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보육·교육 이용(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자녀1	자녀2	자녀3
성북구 정릉3동	.	.	.
어린이집	22	9	-
유치원	2	5	-
학원(반일반 이상)	1	-	-
학원(특기 및 보습)	8	8	3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2	4	1
시간제보육 등 기타	3	2	1
계(이용 서비스 수)	38	28	6
익산시 영등2동			
어린이집	30	7	-
유치원	28	18	3
학원(반일반 이상)	5	7	5
학원(특기 및 보습)	35	26	3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2	2	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7	1	1
시간제보육 등 기타	25	13	2
계(이용 서비스 수)	132	74	15
충주시 소태면			
어린이집	4	2	-
유치원	4	2	2
학원(반일반 이상)	-	-	-
학원(특기 및 보습)	1	-	-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	-
시간제보육 등 기타	-	-	-
계(이용 서비스 수)	94	4	2

주: 자녀1이 가장 어린 자녀이며, 순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개인적 양육자원 이용형태를 보면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익산시 영등2동에 1가구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로 친정 또는 시댁의 조부모 도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가구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3개 조사지역에서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41〉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개인양육지원 이용

(단위 : 명)

구분	자녀1	자녀2	자녀3
성북구 정릉3동			
친조부모	9	3	-
외조부모	4	2	-
친인척	1	-	-
베이비시터	-	-	-
육아전문파견인력	1	1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1	1	-
계(아동 수)	16	7	-
익산시 영등2동			
친조부모	5	3	2
외조부모	10	2	-
친인척	1	-	-
베이비시터	1	-	-
육아전문파견인력	-	-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	-	-
계(아동 수)	17	5	2
충주시 소태면			
친조부모	6	5	2
외조부모	-	-	-
친인척	-	-	-
베이비시터	-	-	-
육아전문파견인력	-	-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	-	-
계(아동 수)	6	5	2

주: 자녀1이 가장 어린 자녀이며, 순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

자녀 양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양육비용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토대가 가족생활의 많은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 1명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46만원이었고, 익산시 영등2동은 76만 5천원, 충주시 소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살펴보아도 익산시 영등2동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자녀 1명일 때에 비해서 자녀가 3명일 때 145만 8천원을 더 지출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29만 7천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성북구 정릉3동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76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보다 3명일 때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충주시 소태면 가구에 비해서 116만 1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가구 내 지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주거비 비중이 차지하는 부담이 커 자녀수가 증가해도 교육비 지출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중서, 2015), 이 조사 결과도 이 같은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연도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양육비용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2013년 47만 9천원에 비해서 2015년 81만 9천원으로 34만원 증가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44만 2천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오히려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5만 9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수와 연령, 또는 가구소득의 영향일 수 있으나,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3-42〉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총 자녀수별 평균 양육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명	46.0(14)	76.5(66)	23.8(6)	55.3(24)	54.5(62)	28.6(8)	38.5(28)	55.4(49)	33.1(10)
2명	104.4(17)	161.8(47)	47.7(6)	82.8(17)	102.7(52)	37.2(6)	65.2(11)	87.6(64)	49.9(7)
3명	122.0(3)	222.3(9)	53.5(2)	94.0(2)	108.9(9)	62.5(2)	86.0(2)	100.6(10)	67.7(3)
전체(계)	81.9(34)	120.1(122)	38.3(14)	68.0(43)	78.9(123)	36.1(16)	47.9(40)	75.9(123)	44.2(20)

주: 2013년 성북구 정릉3동에서 조사된 자녀 4명의 가구는 3명에 포함하여 분석(사례수 1건)

3. 가족 및 경제활동

가. 남편지원

기혼여성 가구의 가족생활은 돌봄자녀 유무, 배우자의 가사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100.0%를 나타냈다. 충주시 소태면은 78.6%를 나타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없지만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성북구 정릉3동은 71.0%, 익산시 영등2동은 90.2%, 충주시 소태면은 61.1%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 영등2동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

〈표 3-43〉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 가사 및 육아 참여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있음	100.0(33)	100.0(121)	78.6(14)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없음	71.0(31)	90.2(112)	61.1(18)
전체(명)	85.9(64)	95.3(233)	38.8(32)

주: 참여율은 가사 및 육아 참여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표 3-44〉는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참여율이 높은 항목은 집안청소와 시장보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시장보기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

석된다. 즉 마을과 떨어진 시내 시장을 이용할 경우 배우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대체로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쓰레기 버리기 항목인데,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남편의 가사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이 바로 쓰레기 버리기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쓰레기 버리기 비율이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자녀가 없으면 1순위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쓰레기 버리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44〉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의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식사준비	27.3(9)	35.5(11)	39.7(48)	30.4(34)	21.4(3)	27.8(5)
설거지	42.4(14)	41.9(13)	65.3(79)	56.3(63)	28.6(4)	22.2(4)
빨래	39.4(13)	38.7(12)	48.8(59)	33.9(38)	14.3(2)	11.1(2)
시장보기	63.6(21)	41.9(13)	75.2(91)	66.1(74)	64.3(9)	38.9(7)
집안 청소	57.6(19)	58.1(18)	74.4(90)	61.6(69)	28.6(4)	27.8(5)
쓰레기 버리기	69.7(23)	61.3(19)	86.0(104)	71.4(80)	35.7(5)	44.4(8)
(사례수)	(33)	(31)	(121)	(112)	(14)	(18)

주: 각 가사형태별 지원율은 기사지원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기사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앞서 살펴본 내용은 가사활동이나 육아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그러나 〈표 3-45〉는 특별히 육아활동 참여 정도를 시간으로 측정한 것을 나타낸다. 평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육아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보다 더 낮은 분담 시간을 보였는데, 〈표 3-43〉에서 보았듯이 참여율은 100%로 높았지만, 참여하는 시간(표 3-45 참조)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1일 평균 육아활동 분담 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	모	부	모	부	모
평일	1.2	5.1	0.9	3.8	1.0	2.2
주말	3.6	7.2	2.7	4.6	1.6	2.6
사례수	33	33	121	121	14	14

다른 한편, 배우자의 참여도와 부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평등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표 3-46〉은 평등분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평등 정도에서 보통 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3-4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가사 및 양육 관련 평등분배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평균	3.8	2.8	3.1	3.2	3.3	3.4
최소값	1.0	1.0	1.0	1.0	2.0	2.0
최대값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1.2	1.2	1.7	1.1	1.2	1.2
(사례수)	(33)	(22)	(121)	(98)	(11)	(11)

나. 부모(친정/시댁) 지원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세대와 자원의 교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 생존 및 동거율을 살펴보면 〈표 3-47〉과 같다. 특징적인 것은 동거율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 동거율이 특히 낮다

는 점과 충주시 소태면에서 부모 동거율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통적 가족가치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이나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도시지역 특성을 가지는 곳으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 동거율이 낮은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4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부모 생존율 및 동거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생존율	동거율	생존율	동거율	생존율	동거율
친정 아버지	52.7	2.6	66.4	0.6	47.1	6.3
친정 어머니	89.5	4.5	90.4	0.5	68.6	4.2
시아버지	54.7	8.6	59.1	1.4	24.2	62.5
시어머니	87.5	14.3	85.1	0.0	72.7	58.3
(사례수)	(74)	(39)	(235)	(156)	(34)	(16)

실제로 부모 세대와 자원의 교환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경제적·비경제적 교환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은 대체로 80%대를 나타내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50%대로 나타났다. 앞서 동거율을 살펴보았을 때,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 동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부모 지원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모 동거율이 높은 편이고, 자원 제공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충주시 소태면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원의 교환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지원율(부모)	지원율(자녀)	지원율(부모)	지원율(자녀)	지원율(부모)	지원율(자녀)
친정 아버지	76.9	41.0	96.2	43.6	62.5	-
친정 어머니	80.6	41.8	95.7	55.9	58.3	8.3
시아버지	85.7	42.9	93.5	51.1	50.0	12.5
시아머니	85.7	51.8	95.0	46.5	50.0	54.2
(사례수)	(39)	(39)	(156)	(156)	(16)	(16)

다. 경제활동

다음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충주시 소태면의 기혼여성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농사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취업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에서 시간제 근무 비율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에서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15.2%, 충주시 소태면은 시간제 근무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상태와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가구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이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여성이 취업한 직종이 저임금 직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성이 45.4시간,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성이 38.6시간,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성이 35.7시간으로 소태면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고, 정릉3동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3-4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 배우자의 근로 관련 특성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취업						
취업	96.9	62.2	98.7	57.7	100.0	82.4
비취업	3.1	37.8	1.3	42.3	0.0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4)	(74)	(233)	(234)	(32)	(34)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98.4	84.8	96.1	78.6	100.0	100.0
시간제	1.6	15.2	3.9	21.4	0.0	0.0
교대제						
예	11.3	4.3	9.1	2.9	3.1	3.6
아니오	88.7	95.7	90.9	97.1	96.9	96.4
평균 근로시간(1주)	53.1	45.4	49.0	38.6	53.0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62)	(46)	(230)	(140)	(32)	(28)

주: 1)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과 함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경력단절은 그동안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임신 당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에서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43.2%, 충주시 소태면은 36.4%였다. 문제는 둘째 임신부터 취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점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둘째 임신에서 취업률이 29.8%에 불과했고,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둘째 임신 시기 취업률이 22.4%로 낮아졌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36.4%에서 31.0%로 거의 변화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서 임신,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되고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서 성북구 정릉3동에서 유독 이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임금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5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취업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취업	비취업	사례수	취업	비취업	사례수	취업	비취업	사례수
첫 번째 임신	51.4	48.6	70	43.2	56.8	229	36.4	63.6	33
두 번째 임신	29.8	70.2	57	22.4	77.6	201	31.0	69.0	29
세 번째 임신	23.7	76.3	38	21.8	78.2	87	30.0	70.0	20
네 번째 임신	26.7	73.3	15	13.6	86.4	22	27.3	72.7	11
다섯 번째 임신	33.3	66.7	6	-	100.0	6	50.0	50.0	4
여섯 번째 임신	33.3	66.7	3	-	-	-	-	-	-
일곱 번째 임신	-	100.0	1	-	-	-	-	-	-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영유아기 아동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세 지역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다. 육아휴직 역시 이용자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향후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5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출산휴가(마지막 정상출산)						
사용	2	4	38	32	-	-
비사용	9	6	28	20	2	1
회사에서 제공 안 함	28	4	83	3	8	1
계(명)	(39)	(25)	(149)	(65)	(10)	(12)
육아휴직(가장 어린 자녀)						
사용	-	4	1	16	-	-
비사용	16	4	86	28	2	1
회사에서 제공 안 함	5	3	10	2	3	1
계(명)	(21)	(11)	(97)	(46)	(5)	(2)

주: 기혼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응답자의 마지막 정상출산 당시의 정책 이용에 대한 것이며, 육아휴직은 가장 어린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됨.

4. 지역사회

가. 지역사회 인프라

본 연구가 세 개의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이고 지역의 환경을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보건의로 인프라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소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표 3-52 참조).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은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의료인프라가 면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된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3-5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단위 :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보건소	27.0	25.1	52.9	32.7	30.4	54.3	-	-	-
산부인과	40.5	54.0	29.4	54.5	56.5	25.7	64.0	75.2	48.7
신생아 집중치료실	-	1.7	-	1.0	0.4	-	4.0	0.5	-
소아과	56.8	71.5	38.2	56.4	69.6	54.3	45.3	63.3	41.0
어린이집	41.9	29.4	29.4	32.7	35.9	34.3	29.3	39.9	23.1
(사례수)	(74)	(235)	(34)	(101)	(237)	(35)	(75)	(218)	(39)

주: 2013년 1차 조사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지 않음.

시설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지역 간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표 3-53 참조).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만족도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정도는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 이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등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거의 없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만족도 및 비용부담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보건소	3.9	1.4	20	3.8	1.5	59	3.9	1.7	18
산부인과	4.0	2.9	30	3.8	3.0	126	3.9	2.7	10
신생아 집중치료실	-	-	-	4.0	4.3	4	-	-	-
소아과	3.9	2.3	42	3.9	2.5	168	4.1	2.5	13
어린이집	4.3	2.0	31	4.0	2.3	69	4.1	1.5	10

주: 만족도 및 비용부담 정도는 1점(매우 불만족, 낮은 비용부담)~5점(매우 만족, 높은 비용부담)의 척도로 측정됨.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의 공급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표 3-54 참조).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정책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이 시설에 대한 공급 적정성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시설의 전체 공급 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이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5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공급적정성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급적정성	사례수	공급적정성	사례수	공급적정성	사례수
산부인과	2.1	74	2.8	234	2.0	34
신생아 집중치료실	1.7	58	1.4	232	1.6	34
소아과	2.7	74	3.0	235	2.2	34
어린이집	2.7	74	3.0	233	2.1	34

주: 공급적정성 점수가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높을수록 많다고 느끼는 것임.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지역적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 답변이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 환경인가 질문할 결과,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도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긍정 정도가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과 같이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뢰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역환경 인식률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	2.9	4.0	2.8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 환경	2.9	3.7	3.8
(대상자 수)	(74)	(235)	(34)

주: 인식정도 점수가 낮을수록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높을수록 좋은 환경으로 인식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지역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율과 부담완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보건의료 관련 지원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56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의 수혜율은 39.2%로 나타났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수혜율은 36.5%,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율은 18.9%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 수혜율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수혜율은 29.4%,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28.5%, 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율은 14.5%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모두 2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수가 적어 같은 값이 나온 것을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이 세 가지 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방과후 학교 지원 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 추가로 지원되는 정책 체감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정책 수혜율은 세 지역에서 모두 3%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경우 저소득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완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율이 높은 정책의 경우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느끼는 체감도에서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4점에 못 미치지만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56〉 조사지역별 정책대상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을 및 만족도

(단위 : %, 명, 점, 개)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신혼부부 주택 관련 지원	1.4	5.0	0.4	5.0	-	-
임산출산 진료·출산비 지원	6.8	4.4	7.2	4.5	-	-
산모산생아 도우미 서비스	2.7	4.5	2.1	4.5	-	-
상담서비스	-	-	-	-	-	-
엽산제·철분제 지원	4.1	3.7	6.4	4.3	-	-
영양플러스 사업	-	-	-	-	-	-
난임부부 지원	1.4	4.0	0.4	4.0	-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4	4.0	2.6	4.3	-	-
산생아 청각 선별 검사/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4	5.0	1.7	4.3	-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9.2	3.7	31.9	4.4	23.5	4.3
국가예방접종 지원	36.5	3.9	29.4	4.5	23.5	4.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0~5세)	41.9	4.5	28.5	4.6	23.5	4.1
양육수당 지원(0~5세)	18.9	3.7	14.5	4.7	-	-
아이돌봄 지원	1.4	5.0	0.9	4.0	2.9	5.0
돌봄교실	1.4	5.0	3.8	4.4	11.8	4.3
방과후 학교 지원	5.4	4.8	6.8	4.4	26.5	4.3
지역아동센터	4.1	4.0	0.9	4.0	-	-
모성휴가·휴직급여	-	-	0.4	4.0	-	-
부성휴가·휴직급여	-	-	1.3	3.3	-	-
가족돌봄 휴직제도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0.4	5.0	-	-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1.4	1.0	-	-	-	-
(다자녀) 세제혜택	8.1	3.2	5.1	4.3	5.9	3.5
(다자녀) 전기요금 20% 감액	14.9	3.5	10.6	4.3	20.6	3.4
(다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	0.4	4.0	-	-
다자녀 우대카드	4.1	1.3	1.3	3.0	-	-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	-	-	-	-	-
장애아 이동수당·보육료·가족 양육지원	-	-	0.4	4.0	-	-
입양아 양육수당·의료급여 1종 지원	-	-	-	-	-	-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	-	-	-
기타	1.4	4.0	-	-	2.9	4.0
(사례수)	(74)		(235)		(34)	

제4절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

1. 중고령자의 일반특성

가. 조사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3개 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을 가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원수는 775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377명으로 48.6%이고, 65세 이상은 189명으로 24.4%이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 조사가구의 가구원수는 1,063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119명으로 11.5%이고, 65세 이상은 48명으로 4.6%인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젊은 지역이다. 충주시 소태면 조사가구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493명으로 전체 가구원 중 75.3%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은 302명으로 전체인구의 46.1%로 인구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지역이다. 본 조사는 3년차 조사결과로 1차 및 2차 조사가구의 인구고령화 현상보다 조금 더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7〉 조사지역별 지역추적조사(1~3차) 응답가구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명, %)

구분	3차(2015년)			2차(2014년)			1차(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조사가구 내 총 가구원수	775	1,063	655	818	1,040	653	835	1,056	680
노인인구수(65세 이상)	189	48	302	162	47	309	156	36	302
(노인인구 비율)	(24.4)	(4.6)	(46.1)	(19.8)	(4.5)	(47.3)	(18.7)	(3.4)	(44.4)
중고령자수(50세 이상)	377	119	493	335	123	494	349	98	490
(중고령자 비율)	(48.6)	(11.5)	(75.3)	(41.0)	(11.8)	(75.7)	(41.8)	(9.3)	(72.1)

주: 본 조사의 가구조사(가구원 사항) 완료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가구원수는 동거가구원수임.

나.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⁶⁾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을 개인단위로 보면 1인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가 성북구 정릉3동은 19.0%, 익산시 영등2동 12.0%, 충주시 소태면은 15.7%로 인구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인가구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56.8%로 매우 높은데, 이는 노년기에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가구단위로 비교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이 26.5%이며, 성북구 정릉3동이 28.3%,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17.3%이다(표 3-58 참조).

〈표 3-5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규모

(단위: %, 명,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거 가구원 수			
1명	19.0	12.0	15.7
2명	37.4	46.2	56.8
3명	24.1	23.9	13.6
4명	13.8	12.0	9.3
5명 이상	5.7	6.0	4.5
(평균)	(2.5)	(2.6)	(2.3)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가구원 규모			
1명	28.3	17.3	26.5
2명	32.6	37.0	51.9
3명	20.6	22.2	9.8
4명	12.9	16.0	8.0
5명 이상	5.6	7.4	3.8
(평균)	(2.4)	(2.6)	(2.1)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6) 본 절에서 개인단위와 가구단위의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 좀 더 분석적 의미가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며, 각 〈표〉에서 개인단위 분석인 경우는 '계(명)'으로, 가구단위 분석인 경우는 '계(가구)'로 표기하였다.

〈표 3-59〉에서 나타난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를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구 비율이 44.9%이고, 이중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비율이 높다(24.7%). 이는 성북구 정릉3동의 9.9%나 익산시 영등2동의 11.1%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녀세대 없이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도 7.0%에 달하여, 이 지역의 높은 고령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부부가 모두 64세 이하의 중고령자인 가구가 17.3%로 세 지역 중 가장 높다. 또한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형태는 46.9%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핵가족(38.2%) 또는 1인가구(28.3%)가 약 70%를 구성하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핵가족(46.9%), 부부가구(32.1%)가 대표적인 가구형태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부부가구(44.9%), 1인가구(26.5%), 핵가족(16.7%) 등의 순이다.

〈표 3-5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

구분	(단위: %, 가구)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인가구	28.3	17.3	26.5
부부가구(소계)	(24.9)	(32.1)	(44.9)
부부 모두 64세 이하 부부가구	7.3	17.3	14.3
1인만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7.7	3.7	5.9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9.9	11.1	24.7
미혼자녀 동거(핵가족)가구	38.2	46.9	16.7
기혼자녀 동거가구	3.4	1.2	3.1
조손가족가구	1.3	-	1.4
부모동거가구	3.0	2.5	7.0
기타가구	0.9	-	0.3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다.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

중고령자의 개인특성을 성별로 보면, 고령층이 많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고령화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응답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이 50.1%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50대가 47.9%로 대조적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50대(32.2%), 60대(34.2%), 70세 이상(33.6%) 연령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표 3-60 참조).

결혼상태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율이 77.8%이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도 72.9%로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유배우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무학의 비율이 약 18%인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의 비율이 52.2%에 달하고 있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도 동 비율이 43.9%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북구 정릉3동 조사지역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약 20% 수준으로(본 연구 조사결과 기준) 전국적인 고령화율(2015년) 13.1%(통계청, 2011)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 비율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6.6%로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 2.6%, 그리고 충주시 소태면은 5.0%로 나타났다.

〈표 3-6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개인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39.4	53.0	43.0
여자	60.6	47.0	57.0
연령			
50~54세	12.9	29.1	8.7
55~59세	19.3	18.8	17.4
60~64세	15.8	11.1	12.0
65~69세	18.4	12.0	11.8
70~74세	14.4	12.0	20.2
75~79세	10.9	8.5	15.9
80~84세	6.0	7.7	10.3
85세 이상	2.3	0.9	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4	77.8	72.9
배우자 없음(미혼포함)	31.6	22.2	27.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	2.6	9.3
무학(글자해독)	3.4	3.4	8.9
초등학교	24.4	23.9	42.8
중학교	23.6	17.9	17.8
고등학교	33.0	36.8	16.7
전문대학 이상	10.9	15.4	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예(수급가구)	6.6	2.6	5.0
아니오	93.4	97.4	95.0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2.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태 및 중고령자 경제활동

조사지역별로 중고령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을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 소태면이 5.6%, 익산시 영등2동 2.5% 순이었다(표 3-61 참조).

〈표 3-6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9.0	2.5	5.6
비수급 가구	91.0	97.5	94.4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표 3-62 참조), 충주시 소태면이 85.7%로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이 70.8%로 가장 낮았다. 반면, 평균 수급액에 있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185,151원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 2동이 178,294원으로 가장 낮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179,097원 수준이었다. 3개 지역 모두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액에 비해 상당부분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구 수급인 경우, 금액이 차감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평균 수급액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노인(65세 이상)들은 기초연금액의 최고급여액을 받는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표 3-62〉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¹⁾

(단위: %, 명, 원)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77.2	70.8	85.7
비수급 가구	22.8	29.2	14.3
계	100.0	100.0	100.0
(명)	(180)	(48)	(300)
평균 수급액(원) ²⁾	185,151	178,294	179,097

주: 1) 기초연금 수급 실태는 65세 이상 노인만을 응답 대상으로 분석함.

2)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표 3-63 참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모

두 높게 나타났다(성북구 정릉3동: 49.4%, 익산시 영등2동: 30.8%, 충주시 소태면: 61.6%). 반면, 4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30.8%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13.6%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비중의 소득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익산시 영등2동은 308.3만원, 충주시 소태면 213.5만원이었다(성북구 정릉3동: 264.4만원).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종류별 소득률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70.8%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28.2%로 가장 낮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충주시 소태면은 75.3%로 3개 지역에서 가장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근로소득 63.0%, 사업소득 22.2%로 두 지역의 중간수준에 위치했다. 재산소득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12%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은 80.8%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69.1%로 가장 낮았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기타소득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대체로 높았으나, 익산시 영등2동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충주시 소태면이 비율이 월등히 높는데 이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생활수준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은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 평균이 3개 지역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 70.4%가 (매우)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감의 주관적 차이를 여실히 살펴 볼 수 있다.

〈표 3-6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100만원 미만	28.8	14.8	34.1
100~200만원 미만	20.6	16.0	27.5
200~300만원 미만	15.0	22.2	17.1
300~400만원 미만	15.9	16.0	7.7
400~500만원 미만	7.3	14.8	5.9
500만원 이상	12.4	16.0	7.7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 ¹⁾	264.4	308.3	213.5
소득종류별 소득률 ²⁾			
근로소득	70.8	63.0	28.2
사업소득	18.5	22.2	75.3
재산소득	11.6	12.3	12.2
사적이전소득	70.4	69.1	80.8
공적이전소득	67.8	53.1	88.2
기타소득	83.3	96.3	94.8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은 편이다	2.6	7.4	8.0
그저 그렇다	27.0	61.7	57.8
(매우) 낮은 편이다	70.4	30.9	34.1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한편,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현황을 보면(표 3-64 참조),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는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11.1%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1.2% 수준로 가장 낮았다. 50~100만원 미만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의 소득구간에서는 익산시 영등2동의 지출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40.4%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중고령자 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소비행태, 노인 부부가구 등의 가구형태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역시 익산시 영등2동이 228.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152.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지출액 규모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관적 생활수준이 3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1순위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비(각각 25.8%, 29.6%),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27.2%)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의료비가(각각 19.7%, 17.3%), 충주시 소태면은 식료품비(18.5%)가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2순위 지출항목 역시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비(각각 18.0%, 19.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정릉3동은 식료품비(12.4%),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와 통신비(16.0%), 충주시 소태면은 교통비(13.2%)가 높았다. 의료비는 그 다음으로 3개 지역 모두 12% 수준에 위치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환경 및 지리적 접근성 한계에 의해 자가용 이용 등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주거비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 3-65>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높은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전세 및 월세의 비중은 낮지만, 농촌의 특성상 발생하는 지대비용,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관리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을 보면, 익산시 영등2동이 90.1%로 가장 높은 자가비율을 보였다(표 3-65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은 55.4%, 충주시 소태면은 75.6% 수준이었다. 전세 및 월세에 있어서도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은 전세 23.6%, 월세

16.7%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대도시의 주거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기타 비율이 23.0% 수준이었는데, 조사결과, 무상거주도 있었으나 지대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표 3-6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동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6.0	1.2	11.1
50~100만원 미만	18.0	17.3	29.3
100~200만원 미만	34.8	28.4	30.0
200~300만원 미만	21.5	22.2	17.1
300~400만원 미만	13.7	17.3	8.0
400만원 이상	6.0	13.6	4.5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¹⁾	(182.3)	(228.1)	(152.6)
가구소득 대비 지출액 규모 비중 ¹⁾	88.7	79.2	82.5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			
첫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17.2	27.2	18.5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25.8	9.9	29.6
교육비(보육비 포함)	9.4	12.3	4.2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9.7	17.3	13.2
교통비	2.1	-	12.5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1.7	4.9	0.3
경조비	6.4	8.6	4.2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4.7	4.9	5.2
기타	6.4	13.6	8.0
없음	6.4	1.2	4.2
두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12.4	16.0	9.1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18.0	7.4	19.2
교육비(보육비 포함)	2.6	4.9	2.1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2.0	12.3	12.5
교통비	3.9	4.9	13.2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6.4	16.0	3.1
경조비	9.0	6.2	6.6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4.3	8.6	2.4
기타	9.0	12.3	4.2
없음	22.3	11.1	27.5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표 3-6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가 ¹⁾	55.4	90.1	75.6
전세	23.6	2.5	0.3
월세	16.7	1.2	1.0
기타	4.3	6.2	23.0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자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소유한 집이 있을 경우, '자가'로 간주하였음.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취업 비율은 약 47%로 비슷한 수준이나, 충주시 소태면은 74.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특징은 직업 분류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충주시 소태면의 중고령자 중 86.6%가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통계청 분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북구 정릉3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6.5%), 판매 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0%) 순이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2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4.3%), 사무 종사자(10.7%)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외에는 서비스 종사자가 6.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직종은 비율이 낮았다(표 3-66 참조).

〈표 3-6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1	47.9	74.2
미취업	52.9	52.1	25.8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직업			
관리자	2.4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	5.4	0.3
사무 종사자	3.7	10.7	0.3
서비스 종사자	6.7	5.4	6.4
판매 종사자	11.0	8.9	1.7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8	5.4	8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4.3	0.6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0	26.8	1.1
단순노무 종사자	40.9	23.2	3.1
군인	-	-	-
기타	-	-	-
계 ¹⁾	100.0	100.0	100.0
(명)	(164)	(56)	(359)

주: 1) 취업중인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관계

〈표 3-67〉을 살펴보면, 세 지역간 자녀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의 평균자녀수는 2.3명, 익산시 영등2동은 2.7명으로 3명 미만인 데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3.4명으로 도농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출산 연령대였던 시기 가 출산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이로 인하여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2명이 일반적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이들이 출산을 하던 시기에 도시지역은 이미 이상자녀수가 2명으로 정착되고 있던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이상자녀수가 변해가던 전이기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6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총 자녀수			
0명	5.7	0.9	1.2
1명	13.5	10.3	5.2
2명	43.1	44.4	26.9
3명	26.7	23.1	22.7
4명	7.2	12.0	19.2
5명	3.7	9.4	24.8
(평균)	2.3	2.7	3.4
비동거자녀수			
0명	22.4	18.8	4.3
1명	23.6	17.9	8.1
2명	30.2	25.6	25.6
3명	14.9	24.8	24.0
4명 이상	8.9	12.8	38.0
(평균)	1.7	2.1	3.2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또한 자녀와의 동거율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차이가 크다. 성북구 정릉3동은 49.1%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녀수는 1.7명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44.0%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녀수는 2.1명이다(표 3-68 참조). 즉 도시지역은 약 절반정도가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미혼인 자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24.5%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비동거자녀는 3.2명으로 세 지역 중 가장 많다. 즉 이미 교육, 취업, 결혼 등으로 충주시 소태면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60~70% 정도가 자녀중 1명 이상은 자녀와 동거하거나 최소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 근거리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자녀동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각 15.3%와 14.7%가 최소 1명은 동일한 동·읍·면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약 1/4만이 자녀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36.7%는 모든 자녀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와 동거	49.1	44.0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5.3	14.7	0.4
최소 1인은 동일 시·군·구 거주	4.7	17.2	27.2
가깝게 거주하는 자녀도 타 시·군·구에 거주	18.4	9.5	11.2
모두 타 시·도에 거주	12.5	14.7	36.7
계	100.0	100.0	100.0
(명) ¹⁾	(320)	(116)	(474)

주: 1) 기타 및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다음으로 비동거 자녀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자녀의 경제상태가 다양한 비율이 각각 43.3%, 47.7%, 38.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3-69 참조). 그러나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다는 응답의 경우는 세 지역중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아 11.4%이다. 한편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18.4%로 익산시 영등2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성북구 정릉3동은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8.4%)보다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18.4%)이 월등히 높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11.4%)이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3.4%)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대조적이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6.4%)과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6.7%)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표 3-6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비동거자녀의 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 ¹⁾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음	8.4	11.4	6.4
모든 자녀가 그저 그렇다	29.9	37.5	48.1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음	18.4	3.4	6.7
그 외	43.3	47.7	38.8
계	100.0	100.0	100.0
(명)	(261)	(88)	(451)

주: '매우 높다' 또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낮은 편이다' 또는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비동거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2.0%가 거의 매일 왕래하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7.4%, 충주시 소태면은 2.6%에 불과하다. 이는 일정 부분 비동거자녀와의 물리적 거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락빈도의 경우는 왕래빈도에 비하여 이러한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4.3%, 익산시 영등2동 20.4%, 충주시 소태면은 19.8%이다. 또한 전반적인 연락빈도는 익산시 영등2동이 제일 활발하고 다음이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표 3-70 참조).

〈표 3-7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왕래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왕래	12.0	7.4	2.6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왕래	12.8	18.1	4.4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왕래	18.8	14.9	16.6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28.9	22.3	43.6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19.5	22.7	23.7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4.9	9.6	8.1
모든 자녀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3.0	-	1.1
계	100.0	100.0	100.0
(명)	(266)	(94)	(459)
연락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	14.3	20.4	19.8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연락	21.1	43.0	34.0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	27.5	23.7	27.0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23.8	6.5	16.1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0.2	4.3	2.0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5	2.2	0.2
모든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음	1.5	-	0.9
계	100.0	100.0	100.0
(명)	(265)	(93)	(459)

주: 1)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4.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표 3-71〉을 통하여 부부의 연령구성, 교육수준, 취업 및 건강실태를 비교해보았다. 부부가 모두 80세 이상으로 기능저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은 0.9%, 익산시 영등2동은 2.2%, 충주시 소태면은 6.3%이다. 즉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 후기노인부부의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학인 비중은 매우 적지만, 대체적인 학력구성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약 절반이 부부중 최소 1인은 고등학교를 졸업(성북구 정릉3동 49.4%, 익산시 영등2동 43.3%)한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26.4%로 도시지역의 약 절반 수준이고, 36.8%가 부부중 최소 1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부중 최소 1인이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부부는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이 15.9%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6.7%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동 비율이 5.2%에 불과하여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의 경제활동의 경우, 도시지역은 모두 약 1/3 정도가 맞벌이이다. 이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76.4%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부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맞벌이 다음으로 많은 취업형태가 남편만 취업하는 전통적인 형태로 두지역 각각 30.5%와 30.0%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8.0%에 불과하다. 또한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21.6%와 22.2%로 상당한 규모임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12.1%이다.

더불어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부부가 모두 건강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 27.2%, 익산시 영등2동 32.4%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동 비율이 20.6%로 차이가 크다. 이는 세 지역 중고령자의 연령구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은 비율 또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은 20.6%로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9.7%, 익산시 영등2동 2.9%)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7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구성			
부부 모두 중년층 (65세 미만)	45.9	68.9	38.5
부부 중 1명 이상 전기노인(65~79세)	53.2	28.9	55.2
부부 모두 후기노인(80세 이상)	0.9	2.2	6.3
교육수준(최고학력 기준)			
부부 모두 무학	0.4	-	4.0
부부 중 최소 1명은 초등학교 졸업	10.3	17.8	36.8
부부 중 최소 1명은 중학교 졸업	21.5	10.0	22.7
부부 중 최소 1명은 고등학교 졸업	49.4	43.3	26.4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학 이상 졸업	2.6	12.1	4.9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학교 이상 졸업	15.9	16.7	5.2
취업실태			
부부 모두 취업	31.8	36.7	76.4
남편만 취업	30.5	30.3	8.0
아내만 취업	17.2	11.1	3.4
부부 모두 비취업	21.6	22.2	12.1
계 ¹⁾	100.0	100.0	100.0
(명)	(233)	(90)	(348)
배우자의 건강			
부부 모두 건강	27.2	32.4	20.6
1명 건강+1명 그저 그러함	19.4	5.9	11.9
1명 건강+1명 건강 나쁨	18.4	20.6	18.8
부부 모두 그저 그러함	7.8	17.6	10.6
1명 그저 그러함+1명 건강 나쁨	17.5	20.6	17.5
부부 모두 건강 나쁨	9.7	2.9	20.6
계 ¹²⁾	100.0	100.0	100.0
(명)	(206)	(68)	(320)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문항은 유배우 중고령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령 등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사례수에서 차이를 보임.

한편 부부가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반 외출 빈도를 살펴보았는데, <표 3-72>에 의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0명 중 1명은 거의 부부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동 비율이 각각 14.4%와 12.7%이다. 세 지역 모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아 11.1%이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은 약 4%에 불과하다.

<표 3-7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거의 매일	4.3	11.1	4.0
일주일에 2~4번 정도	12.4	16.7	11.5
일주일에 한번 정도	14.6	24.4	25.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5.8	23.3	30.8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5.5	5.6	9.8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6.7	4.4	5.5
거의 하지 않는다	10.7	14.4	12.7
계	100.0	100.0	100.0
(명)	(233)	(90)	(347)

주: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함.

5.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수 및 기타 관계

중고령자의 20% 내외가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다. 부모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3.0% 익산시 영등2동이 27.4%, 충주시 소태면이 17.8%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다(표 3-73 참조). 이는 이 지역 중고령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의 나이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생존해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

모의 경우도 유사하다(표 3-74 참조).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약 1/3이 부모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20.9%이고 응답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6.0%로 높다. 응답자 또는 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경우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이 45.1%, 익산시 영등2동이 37.5%, 충주시 소태면이 55.8%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또한 시설에 입소했다는 응답도 일정 규모(성북구 정릉3동 11.3%, 익산시 영등2동 6.3%, 충주시 소태면 11.6%)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유사하다.

〈표 3-75〉와 〈표 3-76〉을 통하여 생존해 있는 부나 모, 배우자의 부나 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건강상태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사례수가 많은 본인 모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건강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세 지역 모두 생존해 있는 어머니의 4명 중 1명은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충주 소태면에서 가장 높아 24.4%이며, 성북구 정릉3동은 19.5%, 익산시 영등2동은 9.7%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의 접촉실태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왕래나 연락 빈도는 다양한 편인데, 비교적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하가 많은 편으로 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다. 또한 연락의 경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고령으로 인하여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접촉 빈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7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생존 여부 및 거주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3.7	6.8	3.5
아버지만 생존	0.9	0.9	1.7
어머니만 생존	18.4	19.7	12.6
두 분 모두 사망	77.0	72.6	82.2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부모의 거주 형태 ¹⁾			
응답자와 동거중	11.3	3.1	36.0
혼자 생활	31.3	34.4	20.9
부모님 두분만 거주	12.5	21.9	9.3
타 자녀와 동거	33.8	34.4	19.8
시설 입소	11.3	6.3	11.6
기타	-	-	2.3
계	100.0	100.0	100.0
(명)	(80)	(32)	(86)

주: 1) 부모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표 3-7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5.0	11.0	4.5
아버지만 생존	1.3	3.3	2.3
어머니만 생존	19.3	19.8	13.9
두 분 모두 사망	74.4	65.9	79.3
계	100.0	100.0	100.0
(명)	(238)	(91)	(353)
부모의 거주 형태 ¹⁾			
응답자와 동거중	6.6	3.3	24.7
혼자 생활	34.4	30.0	23.3
부모님 두분만 거주	18.0	20.0	12.3
타 자녀와 동거	32.8	46.7	28.8
시설 입소	8.2	-	8.2
기타	-	-	2.7
계			
(명)	(61)	(30)	(73)

주: 1) 배우자 부모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표 3-7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의 건강상태 ¹⁾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37.5	33.3	28.0
그저 그렇다	6.3	33.3	16.0
건강이 나쁜 편이다	37.5	33.3	32.0
건강이 매우 나쁘다	18.8	-	24.0
계	100.0	100.0	100.0
(명)	(16)	(9)	(25)
모의 건강상태 ²⁾			
매우 건강하다	-	-	1.3
건강한 편이다	23.4	25.8	25.6
그저 그렇다	11.7	22.6	23.1
건강이 나쁜 편이다	45.5	41.9	25.6
건강이 매우 나쁘다	19.5	9.7	24.4
계	100.0	100.0	100.0
(명)	(77)	(31)	(78)
부모와의 왕래 빈도 ³⁾			
거의 매일(5회 이상)	2.9	3.2	-
일주일에 2~4번 정도	2.9	-	7.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2.9	16.1	7.3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7.1	45.2	25.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5.7	12.9	25.5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2.9	16.1	29.1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5.7	6.5	5.5
기타	-	-	-
부모와의 연락 빈도 ³⁾			
거의 매일(5회 이상)	7.1	6.5	7.3
일주일에 2~4번 정도	17.1	19.4	12.7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4.3	19.4	18.2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37.1	45.2	36.4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4.3	3.2	12.7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9	-	1.8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17.1	6.5	10.9
계	100.0	100.0	100.0
(명)	(70)	(31)	(55)

주: 1)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부모가 1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만 응답대상으로 함.

〈표 3-7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부의 건강상태¹⁾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40.0	30.8	20.8
그저 그렇다	6.7	23.1	12.5
건강이 나쁜 편이다	33.3	38.5	41.7
건강이 매우 나쁘다	20.0	7.7	25.0
계	100.0	100.0	100.0
(명)	(15)	(13)	(24)
배우자 모의 건강상태²⁾			
매우 건강하다	-	-	1.5
건강한 편이다	29.3	21.4	26.2
그저 그렇다	10.3	35.7	24.6
건강이 나쁜 편이다	39.7	39.3	27.7
건강이 매우 나쁘다	20.7	3.6	20.0
계	100.0	100.0	100.0
(명)	(58)	(28)	(65)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³⁾			
거의 매일	1.8	6.7	-
일주일에 2~4번 정도	3.5	-	3.6
일주일에 한 번 정도	7.0	10.0	7.3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6.3	30.0	27.3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2.8	16.7	18.2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6.3	30.0	34.5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12.3	6.7	9.1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명)	(57)	(30)	(55)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빈도³⁾			
거의 매일	-	3.3	5.5
일주일에 2~4번 정도	7.3	6.7	7.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9.1	20.0	12.7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0	40.0	34.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8.2	10.0	12.7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8.2	6.7	12.7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27.3	13.3	14.5
계	100.0	100.0	100.0
(명)	(55)	(30)	(55)

주: 1) 배우자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배우자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배우자 부모가 1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부모에 비하여 생존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의 현황을 살펴본 <표 3-77>에 의하면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14.7%가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동 비율이 9.8%, 익산시 영등2동 5.1%로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구성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평균 형제·자매수를 비교해보면, 성북구 정릉3동 3.3명, 익산시 영등2동 3.8명, 충주시 소태면 3.1명이다.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형제·자매수가 적은 것은, 농촌지역 중고령 응답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형제·자매의 연령도 높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표 3-7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형제자매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없음	9.8	5.1	14.7
1명	12.6	9.4	11.8
2명	13.8	7.7	14.7
3명	17.8	17.9	17.8
4명	19.3	24.8	15.7
5명	12.6	15.4	12.0
6명 이상	14.1	19.7	13.4
(평균)	(3.3)	(3.8)	(3.1)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이 외에도 친인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3.0명, 익산시 영등2동은 3.6명, 충주시 소태면은 3.9명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친구·이웃의 경우도 유사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 1/3이 친한 친인척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응답률은 성북구 정릉3동이 35.7%, 익산시 영등2동이 29.8%, 충주시 소태면이 32.5%이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를 나눈 평균 친구·이웃수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성북구 정릉3동이 5.8명, 익산시 영등2동은 7.9명, 충주시 소태면은 9.1명이다. 또한 친한 친구·이웃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인 성북구 정릉3동이 17.0%로 매우 높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6.1%, 충주시 소태면은 4.2%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에서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동창·동문의 규모를 살펴보면 친인척이나 친구이웃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를 나눈 동창·동문의 평균 규모는 성북구 정릉3동은 1.9명, 익산시 영등2동은 2.2명, 충주시 소태면은 2.4명이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충주시 소태면이 80.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성북구 정릉3동으로 77.8%, 익산시 영등2동이 66.7%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에게서 동창동문과의 관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직장동료의 경우 도시지역(익산시 영등2동 3.1명, 성북구 정릉3동 2.3명)이 농어촌 지역(0.6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중고령자가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호회 회원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1.6명, 익산시 영등2동은 3.9명, 충주시 소태면은 0.9명으로 지역간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직장동료나 동호회 회원

등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관계를 모두 합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18.6명, 익산시 영등2동은 22.5명, 충주시 소태면은 19.8명이다(표 3-78 참조).

〈표 3-7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사회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친인척			
0(없음)	35.7	29.8	32.5
1~2명	23.7	33.3	21.5
3~4명	18.7	14.0	14.6
5명 이상	21.9	22.8	31.4
(평균)	(3.0)	(3.6)	(3.9)
친구·이웃			
0(없음)	17.0	6.1	4.2
1~2명	14.6	21.1	7.6
3~4명	14.3	17.5	18.8
5~9명	28.9	22.8	28.9
10~14명	16.7	18.4	23.6
15명 이상	8.5	14.0	16.9
(평균)	(5.8)	(7.9)	(9.1)
동창·동문			
0(없음)	77.8	66.7	80.6
1~4명	9.6	15.8	3.2
5명 이상	12.6	17.5	16.2
(평균)	(1.9)	(2.2)	(2.4)
직장·동료			
0(없음)	67.0	57.9	91.8
1~4명	14.3	15.8	4.0
5명 이상	18.7	26.3	4.2
(평균)	(2.3)	(3.1)	(0.6)

〈표 3-78〉 계속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호회 회원			
0(없음)	87.1	72.8	94.1
1~4명	2.9	1.8	0.6
5명 이상	9.9	25.4	5.3
(평균)	(1.6)	(3.9)	(0.9)
기타			
0(없음)	62.3	76.3	75.7
1명 이상	37.7	23.7	24.3
(평균)	(4.0)	(1.8)	(2.9)
총합			
0(없음)	1.5	1.8	0.4
1~4명	14.9	13.2	9.5
5~9명	19.3	13.2	23.6
10~14명	19.3	21.1	17.1
15~19명	12.6	12.3	15.0
20~29명	12.6	12.3	13.9
30명 이상	19.9	26.3	20.5
(평균)	(18.6)	(22.5)	(19.8)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6. 중고령자의 거주형태

중고령자중 1인가구의 경우는 거주기간 및 이유를, 배우자와만 동거하는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구 생활기간을,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3-79와 표 3-80 참조). 독거하는 경우 평균 독거 기간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커, 성북구 정릉3동 15.5년, 익산시 영등2동 9.2년, 충주시 소태면은 11.3년이다. 독거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32.3%이며, 다음이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로 21.5%, 자녀의 결혼 13.8%, 자녀의 직업상의 이동 10.8%의 순이다. 즉 배우자의

사망 및 자녀의 생활 상의 변동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비율도 높다 하겠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14명만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이들 다수가 배우자의 사망(71.4%)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64.5%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가장 빈번한 이유이지만 그 비중이 높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는 달리 기존 거주지에 거주할 것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10.5%에 달하고 있다.

〈표 3-79〉 조사지역별 독거 중고령자의 독거 기간 및 독거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독거 기간			
5년 미만	26.2	42.9	31.6
5~10년 미만	24.6	21.4	22.4
10~20년 미만	20.0	14.3	23.7
20~30년 미만	7.7	21.4	15.8
30년 이상	21.5	-	6.6
(평균)	(15.5)	(9.2)	(11.3)
혼자 사는 이유			
배우자의 사망	32.3	71.4	64.5
자녀의 결혼	13.8	7.1	5.3
자녀의 직업 상의 이동	10.8	-	7.9
경제적 능력	-	-	1.3
건강해서	-	-	-
개인생활 향유를 위해	21.5	-	3.9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	7.1	-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	-	10.5
자녀의 별거 희망	4.6	-	1.3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4.6	-	1.3
자녀가 없어서	4.6	-	1.3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1.5	-	-
기타	6.2	14.3	2.6
계	100.0	100.0	100.0
(명)	(65)	(14)	(76)

한편, 배우자와만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 평균 부부가구 생활 기간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4.2년으로 성북구 정릉3동의 8.4년이나 익산시 영등2동의 9.2년보다 훨씬 길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중노년층 부부가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부부끼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가 29.6%,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29.6%,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 22.2%으로 규범적 이유 외에도 현실적인 도구적 이유도 상당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도시인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가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해서, 가사노동 부담때문에, 본인/배우자 수발이 필요해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규범적 이유, 중고령자의 필요, 자녀의 필요에 의하여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사례수가 매우 적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압도적이어서 55.6%이며, 다음이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20.4%이다. 즉 전통적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녀동거가 농촌지역에서의 중고령층 자녀동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표 3-8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부가구 기간 및 자녀동거시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부가구 기간(부부만 살게 된 기간)			
5년 미만	43.5	44.0	19.2
5~10년 미만	17.6	4.0	9.2
10~20년 미만	25.9	44.0	44.8
20년 이상	13.0	8.0	26.8
(평균)	(8.4)	(9.2)	(14.2)
계	100.0	100.0	100.0
(명)	(108)	(50)	(250)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	29.6	14.3	55.6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	-	-
가사노동 부담	-	14.3	3.7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3.7	14.3	-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2.2	28.6	7.4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	-	-
경제적 능력 부족	14.8	14.3	7.4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29.6	-	20.4
기타	-	14.3	5.6
계	100.0	100.0	100.0
(명)	(27)	(7)	(54)

7.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매우)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9.8%, 익산시 영등2동이 18.4%, 충주시 소태면이 35.9%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적은 익산시 영등2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함을 볼 수 있다(표 3-81 참조).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흡연율, 음주정도, 정기적 운동실천율, 건강검진율을 살펴보았다.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과 성북구 정릉3동의 흡연율은 각각 14.3%, 16.1%로 익산시 영등2동(11.4%) 보다 더 높다.

지난 1년간 중고령자의 음주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46.2%, 익산시 영등2동이 43.9%, 충주시 소태면이 34.2% 등으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음주자 중 적정 음주자(1주일에 7잔 이하) 비율이 17.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63.2%)과 성북구 정릉3동(45.0%)이 충주시 소태면(14.3%)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고연령자가 많고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건강검진율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91.4%)이 익산시 영등2동(81.6%)과 성북구 정릉3동(74.6%) 보다 더 높다.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영양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관리상태가 양호한 수준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63.7%, 익산시 영등2동이 85.1%, 충주시 소태면이 50.4% 등으로 고령화가 높은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34.0%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15.6%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고연령층이 많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16.4%, 15.6%이고, 고령화율이 낮은 익산시 영등2동은 6.1%로 낮았다.

〈표 3-8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 편이다	40.4	46.5	37.1
그저 그렇다	29.8	35.1	27.0
(매우) 나쁜 편이다	29.8	18.4	35.9
흡연 여부			
아니오(비흡연)	83.9	88.6	85.7
예(흡연)	16.1	11.4	14.3
음주 정도 ¹⁾			
비음주	53.8	56.1	65.8
적정 음주	28.7	25.4	17.1
과음주	17.5	18.4	17.1
정기적 운동 여부 ²⁾			
운동 함	45.0	63.2	14.3
운동 안함	55.0	36.8	85.7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예(검진)	74.6	81.6	91.4
아니오	25.4	18.4	8.6
1개월간 영양관리 상태 ³⁾			
양호(0~2점)	63.7	85.1	50.4
영양관리 주의(3~5점)	19.9	8.8	34.0
영양관리 개선(6점 이상)	16.4	6.1	15.6
비만지수(BMI) ⁴⁾			
저체중	2.9	2.6	5.9
정상	35.1	39.5	32.7
과체중	24.0	26.3	27.6
경도비만	34.5	29.8	30.2
중증도비만	3.5	1.8	3.6
계 ⁵⁾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1) 본 연구에서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이고, 과음주는 일주일에 8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로 분석함.

2) 정기적 운동 실천이란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 스포츠, 체조 등을 주 3회 이상 실시한 경우로 조사함.

3) NSI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4)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

5)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N=930).

또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비만지수(BMI)를 살펴 보았다. 비만지수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활용하여, $BMI = \text{체중} / (\text{신장 m})^2$ 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경도비만 25~30 미만, 중증도비만 3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신장(키)과 체중(몸무게)을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저체중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2.9%)과 익산시 영등2동(2.6%)이 비슷한 수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5.9%로 가장 높다. 50대 연령층이 많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정상수준(39.5%)은 높고, (경도·중증도) 비만은 31.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3-82〉에서 만성질환상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치료중인 만성질환수로 파악하였다. 지역별로 현재 치료중인 만성질환수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만성질환이 1개(28.1%), 2개(17.0%), 3개 이상(27.8%)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인 경우가 44.8%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만성질환이 1개(33.3%), 2개(16.7%), 3개 이상(20.2%)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인 비율이 36.9%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만성질환이 1개(30.6%), 2개(23.0%), 3개 이상(18.8%)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인 비율이 41.8%로 지역간 고연령층의 분포 차이에 비하여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에는 차이가 적은 수준이다. 한편 치료중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치료비를 주로 누가 지불하는 지를 보면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이 약 85% 이상(성북구 정릉3동 84.3%, 익산시 영등2동 92.5%, 충주시 소태면 85.4%)이고, 그 다음은 자녀라는 응답(성북구 정릉3동 10.4%, 익산시 영등2동 6.3%, 충주시 소태면 8.2%)으로 나타났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상태는 저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8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 및 치료비 지불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치료중인 만성질환수			
없음	27.2	29.8	27.6
1개	28.1	33.3	30.6
2개	17.0	16.7	23.0
3개 이상	27.8	20.2	18.8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치료비 지불			
본인·배우자	84.3	92.5	85.4
자녀	10.4	6.3	8.2
친인척	-	-	0.3
무료	4.8	1.3	6.1
이웃·기타	0.4	-	-
계 ²⁾	100.0	100.0	100.0
(명)	(249)	(80)	(343)

주: 치료중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우선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7개 항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표 3-83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은 94.5%, 익산시 영등2동은 85.4%,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90.7%가 완전자립상태이다. 즉, 성북구 정릉3동은 5.5%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4.6%, 충주시 소태면은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인 상태인 비율이 9.3%로 고령자의 기능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는 본 조사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10개 항목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상태를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82.3%, 익산시 영등2동은 66.7%,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47.0%가 완전자립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화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인 상태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

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한가지라도 제한이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18.2%,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은 53.3% 등이다. 한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모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성북구 정릉3동은 5.0%, 익산시 영등2동은 14.6%, 충주시 소태면은 9.0% 등이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12.7%, 익산시 영등2동은 18.8%, 충주시 소태면은 44.0% 등으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83〉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¹⁾			
완전 자립	94.5	85.4	90.7
1개 도움 필요	2.8	2.1	3.3
2개 도움 필요	-	2.1	3.7
3개 도움 필요	0.6	6.3	1.0
4개 도움 필요	-	2.1	-
5개 도움 필요	1.1	-	0.3
6개 도움 필요	-	-	0.7
7개 도움 필요	1.1	2.1	0.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²⁾			
완전 자립	82.3	66.7	47.0
1~2개 도움 필요	3.9	12.5	28.7
3~4개 도움 필요	5.0	8.3	14.7
5~6개 도움 필요	2.8	2.1	3.7
7~8개 도움 필요	2.8	4.2	4.3
9~10개 도움 필요	3.3	6.3	1.7
기능상태 종합			
기능제한 없음	81.8	66.7	46.7
IADL만 제한	12.7	18.8	44.0
ADL만 제한	0.6	-	0.3
ADL&IADL 모두 제한	5.0	14.6	9.0
계 ³⁾	100.0	100.0	100.0
(명)	(181)	(48)	(300)

주: 1)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2)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투약관리,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3)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한편, 본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 운동장(400m) 한 바퀴 걷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거나 쭉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등 8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수행률을 보인 지표는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약 2.3점)였고,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인 것은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약 4.0점)였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대체로 대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 노인에게서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나,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에서는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표 3-84 참조).

〈표 3-84〉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신체근력상태(평균 점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뛰기	2.3	2.2	2.3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3.5	3.2	3.2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3.4	3.1	3.1
몸을 구부리거나, 쭉그리거나, 무릎을 꿇기	3.3	3.1	3.1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뻗쳐서 닿기	3.9	3.5	3.7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4.0	3.9	4.0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	3.0	3.9	3.9
쌀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3.5	3.5	3.7
(대상자 수)	(176)	(45)	(293)

주: 1) 평균점수는 전혀 할 수 없다=1, 매우 어렵다=2, 약간 어렵다=3, 전혀 어렵지 않다=4로 재코딩으로 평균 값으로 계산함.

2) 65세 이상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29.8%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16.9%로 가장 낮았다(표 3-85 참조).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중인 비율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가입하였으나 미납부 중인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를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익산시 영등2동은 39.5%, 성북구 정릉3동은 60.6%, 충주시 소태면은 71.1%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미가입 비율이 75.2%, 성북구 정릉3동 91.2%, 충주시 소태면 92.8% 등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은 세 지역 모두 낮게 나타났다. 기업퇴직연금의 가입률은 그 수준이 더 낮았다.

노후를 위한 부동산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13.2%로 가장 낮았다. 노후를 위한 저축은 성북구 정릉3동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역시 보유 비율은 세 지역 모두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실태는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조차 익산시 영등2동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미가입 상태이다.

〈표 3-86〉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준비수준이 미흡한 주식·채권 등과 기타를 제외한 노후를 위한 부동산과 저축을 부부단위로 준비정도를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중고령자 부부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별에 따라 양극화 되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가입한 비율은 44.7%로 익산시 영등2

동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그 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3개 지역 모두 남편만 가입한 비율이 아내만 가입한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주체는 주로 남자임을 시사한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부부가 모두 가입한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17.5%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5.4%로 가장 낮았다. 기업퇴직연금은 대부분 미가입한 상태이며, 노후를 위한 부동산 역시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남편만 준비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은 부부 모두 준비된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이 17.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를 위한 저축의 경우, 부부 모두 준비한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19.9%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16.5%, 성북구 정릉3동이 8.1%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아내가 준비한 비율(4.7%)이 남편이 준비한 비율(2.4%)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낮았다. 개인별로 준비수단을 질문하였지만, 부동산과 저축을 1개 가구의 주된 노후소득원으로 간주한다면, 충주시 소태면이 부동산 44.6%, 저축은 39.3%로 준비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주된 노후소득원으로 하는 데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위한 부동산과 저축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후를 위한 부동산 준비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노후소득을 볼 때, 남자의 준비율이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성별에 따라 노후

소득이 양극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후소득 준비율이 낮은 것은 주요한 문제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8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22.2	29.8	16.9
가입하여 납부중	17.3	30.7	12.0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1.2	1.8	0.6
미가입	59.4	37.7	70.5
개인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1.8	6.2	0.2
가입하여 납부중	7.0	18.6	7.0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	-	-
미가입	91.2	75.2	92.8
기업퇴직연금 가입실태			
가입	2.0	5.3	-
미가입	98.0	94.7	100.0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있음	16.7	13.2	28.1
없음	83.3	86.8	71.9
노후를 위한 저축			
있음	12.9	21.1	27.4
없음	87.1	78.9	72.6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있음	1.8	0.9	0.2
없음	98.2	99.1	99.8
기타			
있음	-	-	0.4
없음	100.0	100.0	99.6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3-86〉 조사지역별 유배우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¹⁾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가입 실태 ²⁾			
부부 모두 가입	18.6	44.7	11.1
남편만 가입	45.7	31.8	38.9
아내만 가입	5.7	7.1	2.4
부부 모두 미가입	30.0	16.5	47.6
개인연금 가입 실태 ²⁾			
부부 모두 가입	8.1	17.5	5.4
남편만 가입	3.3	15.0	3.9
아내만 가입	2.9	2.5	2.4
부부 모두 미가입	85.7	65.0	88.2
기업퇴직연금 가입실태			
부부 모두 가입	1.0	-	-
남편만 가입	2.9	9.4	-
아내만 가입	1.0	-	-
부부 모두 미가입	95.2	90.6	100.0
노후를 위한 부동산			
부부 모두 준비	5.7	5.8	17.2
남편만 준비	19.0	12.8	23.8
아내만 준비	4.8	-	3.6
부부 모두 준비 없음	70.5	81.4	55.4
노후를 위한 저축			
부부 모두 준비	8.1	16.5	19.9
남편만 준비	10.5	2.4	17.5
아내만 준비	4.8	4.7	1.8
부부 모두 준비 없음	76.7	76.5	60.7
계 ¹⁾	100.0	100.0	100.0
(명)	(210)	(86) ³⁾	(332) ⁴⁾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표 상에서 조사된 만 49세 이하 배우자의 노후준비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함.

2) 조사표 상에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와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는 가입한 것으로,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와 '가입하지 않았다'는 미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3) 항목별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4) 항목별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9. 중고령자의 지역사회 자원 이용실태

가. 보건복지자원 이용 실태

중고령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로당 이용률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북구 정릉3동 5.7%, 익산시 영등2동 33.3%, 충주시 소태면 80.9%). 반면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 성북구 정릉3동 5.7%, 익산시 영등2동 4.4%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1.0%이다(표 3-87 참조).

중고령자는 노인복지관 외에도 다양한 복지관의 이용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종 복지관 이용률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이 4.4%이고, 공공 여가복지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8.0%로 더 높고, 성북구 정릉3동 5.8% 순이며, 민간 여가문화센터 이용률은 성북구 정릉3동 12.9%, 익산시 영등2동 6.2% 순이다.

한편 공적 보건인프라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37.7%, 익산시 영등2동 27.4%, 충주시 소태면 70.7%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보건소는 보건의료자원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유병률이 높은 중고령자의 경우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의 이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높는데, 성북구 정릉3동 96.2%, 익산시 영등2동 83.2%, 충주시 소태면 86.3%로 나타났다.

〈표 3-8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보건복지자원 이용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경로당	5.7	33.3	80.9
노인복지관	5.7	4.4	1.0
(대상자 수) ¹⁾	(176)	(45)	(293)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4.4	-	0.2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5.8	8.0	3.8
민간 여가문화센터(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	12.9	6.2	0.8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37.7	27.4	70.7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96.2	83.2	86.3
(대상자 수) ²⁾	(342)	(114)	(474)

주: 1) 65세 이상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50세 이상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나. 거주지역 만족정도 및 친밀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표 3-88〉에 의하면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이 성북구 정릉3동 74.2%, 익산시 영등2동 91.2%, 충주시 소태면 70.0%로 익산시 영등2동 중노년층의 주거지역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현 거주지역이 중노년기를 보내기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긍정적 응답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73.6%, 익산시 영등2동 87.7%, 충주시 소태면 68.0%로 익산시 영등2동 중노년층의 긍정적 응답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 친밀도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내 친목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마을(또는 아파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지, 요청하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를 부여한 총점(15점)을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 8.7점, 익산시 영등2동 9.0점, 충주시 소태면

11.8점으로 2개 도시지역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점수가 약 3점 더 높아 지역친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8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거주지역 만족 정도 및 친밀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역 만족 정도 ¹⁾			
매우 만족한다	14.0	12.3	8.2
만족하는 편이다	60.2	78.9	61.8
보통이다	16.1	8.8	22.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2	-	7.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	0.6
현거주지역이 중고령자가 살기 좋은 곳 ¹⁾			
매우 그렇다	19.0	18.4	18.4
그런 편이다	55.6	69.3	49.6
보통이다	16.1	7.0	15.6
그렇지 않다	7.6	4.4	15.0
전혀 그렇지 않다	1.8	0.9	1.5
지역친밀도 ¹⁾			
• 지역내 친목모임에 적극적 참여 ²⁾			
매우 그렇다	-	18.4	29.2
그런 편이다	16.7	31.6	25.6
보통이다	7.6	14.0	9.5
그렇지 않다	26.6	18.4	11.8
전혀 그렇지 않다	38.6	17.5	23.9
• 마을(또는 아파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16.4	5.3	53.4
그런 편이다	31.9	30.7	32.5
보통이다	23.1	21.9	9.9
그렇지 않다	19.3	34.2	3.2
전혀 그렇지 않다	9.4	7.9	1.1
• 요청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0.8	5.3	50.2
그런 편이다	35.7	28.9	29.5
보통이다	19.3	27.2	13.7
그렇지 않다	22.2	30.7	6.1
전혀 그렇지 않다	12.0	7.9	0.4
(평균 점수) ²⁾	(8.7)	(9.0)	(11.8)
계	100.0	100.0	100.0
(명) ¹⁾	(342)	(114)	(474)

주: 1) 거주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해당 동·읍·면 기준임.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3개 문항을 매우 그렇다(5)~전혀 그렇지 않다(1)로 재부호화하여 합산한(총 15점) 값임.

제 4 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제1절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행태

제2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4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
및 심층사례연구

제1절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행태

본 절에서는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 조사결과와 질적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양적 조사결과 분석은 이번 3차년도 조사내용 중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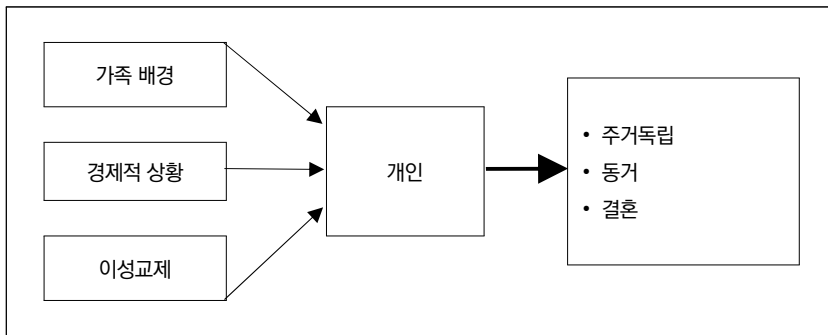
심층사례연구는 본 양적 조사의 미혼 응답자 중에서 독립 상태, 취업 여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7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에 대한 인식과 결혼관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사례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3명, 익산시 영등2동에서 2명, 충주시 소태면에서 2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현재 독립생활을 하는 사례는 1명이었다. 비취업자가 2명이었고, 나머지는 5명은 취업 중이었다.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심층면접은 개인당 약 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개인별 1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미혼자)

지역	사례	성	연령	취업	독립
성북구 정릉3동	사례 1-1	여자	30대중반	취업	비독립
	사례 1-2	남자	30대중반	취업	독립
	사례 1-3	남자	20대중반	비취업	비독립
익산시 영등2동	사례 1-4	남자	30대초반	취업	비독립
	사례 1-5	남자	20대후반	비취업	비독립
충주시 소태면	사례 1-6	남자	30대중반	취업	비독립
	사례 1-7	여자	30대초반	취업	비독립

독립과 결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구동태에서 혼인과 출산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독립이란 좁게는 공간적 의미로 주거 독립을 함축하며,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독립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림 4-1]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분석 모형



한국 사회에서 독립은 전통적 용어로 분가(分家)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가는 “가족성원의 일부가 원래 속하던 집에서 분리,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나가는 일”로 정의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혼인에 의한 분가가 일반적 형태였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독립은 반드시 혼인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분가에서 독립하면 혼인이행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립, 2013). 따라서 독립과 혼인은 현대사회에서도 일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의 연기는 최근의 출산을 하라 추세와 연계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산을 하라에는 피임의 확산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최근에는 혼인연령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은기수, 2005).

본 절에서는 독립과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적 배경, 경제

적 상황, 이성교제에 주목할 것이다. 최근의 독립과 결혼에는 세 가지 요인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이 세 요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우선 인식과 가치의 측면에서 문화구조와 연계되는 사회 규범에 주목한다. 규범이 어려서부터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가족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는 규범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사 결정에서 부모세대나 형제자매의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이 여자의 경우에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유홍준·현성민, 2010). 이런 경향은 일반적으로 독립이나 결혼과 관련된 규범의 변동을 말해주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범 또한 다양성이 공존할 수도 있다. 한국의 미혼여자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서 변화와 혼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현재의 불확실한 사회 경제적 상황은 결혼 의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동시에 결혼의 연령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문선희, 2012)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족 배경은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많이 하는 가족 환경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이 구성원의 개인주의적 생활형태가 중심인 가족 환경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반승원·전범수, 2011).

다음은 독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주거 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자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자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진다고 한다(윤자영, 2012). 또한 취업 및 고용형태의 변화는 최근 20~30대 남자 미혼율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이들의 취업률 감소에 의한 것이고, 미취업이 결혼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안태현, 2010).

이와 같은 고용 불안이나 경제위기는 독립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남자에게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자원이 여자의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유홍준·현성민, 2010). 미혼여자들의 경우 불확실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결혼의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결혼 연령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선희, 2012).

마지막으로 독립이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성 친구를 고려한다. 원 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은 새로운 가족 또는 가구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혼전 이성교제 경험의 빈도가 높고 교제기간, 대상도 다양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연애-결혼의 경로가 불일치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결혼에 관한 현실주의적 성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확산되었다는 것이다(유가효,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 요인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은 독립과 결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성교제와 동거, 독립, 결혼이 상호 연계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연속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1. 동거와 독립에 대한 행태

가. 미혼남녀 부가조사 결과

양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응답자 중에서 현재 주거 독립 상태인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 7.3%, 익산시 영등2동 8.3%, 충주시 소태면 3.8%로 나타나 독립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4-2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소 높은 독립 상태를 나타내고, 연령층은 고연령층에서, 그리고 비취업보다 현 취업자가 다소 높은 독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취업상태에 따른 주거 독립의 경향성은 확인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결혼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윤자영, 2012; 안태현, 2010), 주거 독립 상황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 여건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지역에서 미취업상태에서 주거 독립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조사대상 중에서 전체 독립 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8명에 불과하여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재 독립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독립 거주자가 모두 4명인데, 이들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4명 모두 직장이나 학업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분가한 상태였다.

〈표 4-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주거독립여부(1인 주거)

(단위: %, 명)

구분		독립	비독립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9.7(3)	90.3(28)	100.0(31)
	여자	4.2(1)	95.8(23)	100.0(24)
	연령			
	20대	-	100.0(30)	100.0(30)
	30대	11.8(2)	88.2(15)	100.0(17)
	40대	25.0(2)	75.0(6)	100.0(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11)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00.0(22)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18.2(4)	81.8(18)	100.0(22)
	취업상태			
	취업	10.0(4)	90.0(36)	100.0(40)
	비취업	-	100.0(15)	100.0(15)
전체		7.3(4)	92.7(51)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10.5(2)	89.5(17)	100.0(19)
	여자	5.9(1)	94.1(16)	100.0(17)
	연령			
	20대	-	100.0(30)	100.0(30)
	30대	50.0(2)	50.0(2)	100.0(4)
	40대	50.0(1)	50.0(1)	100.0(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7(1)	83.3(5)	100.0(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12.5(1)	87.5(7)	100.0(8)
	대학교 재학 이상	4.5(1)	95.5(21)	100.0(22)
	취업상태			
	취업	13.6(3)	86.4(19)	100.0(22)
	비취업	-	100.0(14)	100.0(14)
전체		8.3(3)	91.7(33)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4.8(1)	95.2(20)	100.0(21)
	여자	-	100.0(5)	100.0(5)
	연령			
	20대	-	100.0(10)	100.0(10)
	30대	-	100.0(11)	100.0(11)
	40대	20.0(1)	80.0(4)	100.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8)	100.0(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00.0(8)	100.0(8)
	대학교 재학 이상	10.0(1)	90.0(9)	100.0(10)
	취업상태			
	취업	4.8(1)	95.2(20)	100.0(21)
	비취업	-	100.0(5)	100.0(5)
전체		3.8(1)	96.2(25)	100.0(26)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조사대상 중에서 독립 거주자는 3명으로 학력이나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한 상태에서 모두 취업 중이었다. 이 중 1명은 직장 때문이었고, 나머지 2명은 본인이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분가 거주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1명의 독립 거주자가 있었는데, 40대 대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취업상태였다. 이 사람은 학업 때문에 독립 거주하고 있었다.

〈표 4-3〉 조사지역별 주거독립 미혼자의 독립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직장(취업)	학교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성북구 정릉3동	4	-	-	4
익산시 영등2동	3	1	-	2
충주시 소태면	1	-	1	-

현재 독립 거주 상태를 볼 때 세 지역 모두 약 90%이상 비독립 상태였는데, 이들의 독립 의사를 살펴보면 조사 시점 현재 성북구 정릉3동의 독립의사는 54.9%,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은 48.0%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여자(39.1%)보다는 남자(67.9%)의 독립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29.4%)보다 여자(37.5%)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45.0%)보다 여자(60.0%)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취업자 중 55.6%가 독립의사가 있었고, 익산시 영등2동의 취업자 중 31.6%가 독립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취업자 중 40.0%가 독립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례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북구 정릉3동의 비독립 미혼응답자의 독립의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익산시 영등2동의 비독립 미혼응답자의 독립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의사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적 배경 또는 이성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독립의사가 높거나 낮다면 그 특징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번 양적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독립의사가 낮은 경우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가족적 배경으로써 보수적인 가족규범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요인에 대한 설명은 이후 심층사례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 독립하고 싶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년 이내(1년 이내와 1~3년의 합)라고 응답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이라는 생애과정을 고려하면 3년 이내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다. 즉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명 중에서 결혼예정 7명,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17명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 전체 응답자 11명 중에서 직장(취업) 때문 4명,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4명으로 나타났으며, 충주시 소태면 전체 응답자 12명 중에서 직장(취업) 때문 5명,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6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 독립을 원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표 4-5, 표 4-6 참조). 현재의 젊은 세대는 혼인여부를 떠나서 일단 개인의 생활이 더 자유로운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의사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67.9(19)	32.1(9)	100.0(28)
	여자	39.1(9)	60.9(14)	100.0(23)
	연령			
	20대	46.7(14)	53.3(16)	100.0(30)
	30대	73.3(11)	26.7(4)	100.0(15)
	40대	50.0(3)	50.0(3)	100.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5(6)	45.5(5)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54.5(12)	45.5(10)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55.6(10)	44.4(8)	100.0(18)
	취업상태			
	취업	55.6(20)	44.4(16)	100.0(36)
	비취업	53.3(8)	46.7(7)	100.0(15)
전체		54.9(28)	45.1(23)	100.0(51)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29.4(5)	70.6(12)	100.0(17)
	여자	37.5(6)	62.5(10)	100.0(16)
	연령			
	20대	33.3(10)	66.7(20)	100.0(30)
	30대	50.0(1)	50.0(1)	100.0(2)
	40대	-	100.0(1)	100.0(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5)	100.0(5)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42.9(3)	57.1(4)	100.0(7)
	대학교 재학 이상	38.1(8)	61.9(13)	100.0(21)
	취업상태			
	취업	31.6(6)	68.4(13)	100.0(19)
	비취업	35.7(5)	64.3(9)	100.0(14)
전체		33.3(11)	66.7(22)	100.0(33)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45.0(9)	55.0(11)	100.0(20)
	여자	60.0(3)	40.0(2)	100.0(5)
	연령			
	20대	50.0(5)	50.0(5)	100.0(10)
	30대	45.5(5)	54.5(6)	100.0(11)
	40대	50.0(2)	50.0(2)	100.0(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0(4)	50.0(4)	100.0(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2.5(5)	37.5(3)	100.0(8)
	대학교 재학 이상	33.3(3)	66.7(6)	100.0(9)
	취업상태			
	취업	40.0(8)	60.0(12)	100.0(20)
	비취업	80.0(4)	20.0(1)	100.0(5)
전체		48.0(12)	52.0(13)	100.0(25)

〈표 4-5〉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을 하고 싶은 시기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잘 모르겠다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	8	2	4	19
	여자	2	3	3	1	9
	연령					
	20대	1	6	4	3	14
	30대	5	4	1	1	11
	40대	1	1	-	1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1	-	1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2	5	3	2	12
	대학교 재학 이상	1	5	2	2	10
	취업상태					
	취업	5	7	4	4	20
	비취업	2	4	1	1	8
전체		7	11	5	5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3	1	1	-	5
	여자	1	2	2	1	6
	연령					
	20대	3	3	3	1	10
	30대	1	-	-	-	1
	40대	-	-	-	-	-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	1	1	3
	대학교 재학 이상	4	2	2	-	8
	취업상태					
	취업	3	1	1	1	6
	비취업	1	2	2	-	5
전체		4	3	3	1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	6	1	2	9
	여자	-	1	-	2	3
	연령					
	20대	-	4	-	1	5
	30대	-	2	1	2	5
	40대	-	1	-	1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	-	1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3	-	2	5
	대학교 재학 이상	-	1	1	1	3
	취업상태					
	취업	-	5	1	2	8
	비취업	-	2	-	2	4
전체		-	7	1	4	12

〈표 4-6〉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결혼예정	직장(취업)	학교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	1	1	12	19
	여자	2	-	2	5	9
	연령					
	20대	2	-	3	9	14
	30대	5	1	-	5	11
	40대	-	-	-	3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6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5	-	2	5	12
	대학교 재학 이상	2	1	1	6	10
	취업상태					
	취업	6	-	1	13	20
	비취업	1	1	2	4	8
전체		7	1	3	17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1	2	2	-	5
	여자	-	2	-	4	6
	연령					
	20대	-	4	2	4	10
	30대	1	-	-	-	1
	40대	-	-	-	-	-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	1	2	3
	대학교 재학 이상	1	4	1	2	8
	취업상태					
	취업	1	1	1	3	6
	비취업	-	3	1	1	5
전체		1	4	2	4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1	4	-	4	9
	여자	-	1	-	2	3
	연령					
	20대	-	3	-	2	5
	30대	1	1	-	3	5
	40대	-	1	-	1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	-	3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3	-	2	5
	대학교 재학 이상	1	1	-	1	3
	취업상태					
	취업	1	4	-	3	8
	비취업	-	1	-	3	4
전체		1	5	-	6	12

현재 독립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독립 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명 중 경제적인 이유라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7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전체 11명 중에서 10명, 충주시 소태면 전체 12명 중에서 9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동이나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 미혼응답자의 주거 독립이 더 어렵다는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주거비용이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 취업상황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의 반대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28명 중 2명, 익산시 영등2동은 11명 중 1명, 충주시 소태면은 12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수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보수적인 가족규범이 작동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23명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한 사람 5명, '돌봄 및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5명, '독립할 필요가 없음' 8명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22명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한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소태면 13명 응답자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 4명, '돌봄 및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3명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서는 독립의사조차 갖지 않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임이 드러난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향후 청년층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7〉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이유	가족의 반대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18	1	-	19
	여자	7	1	1	9
	연령				
	20대	13	1	-	14
	30대	9	1	1	11
	40대	3	-	-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	-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10	1	1	12
	대학교 재학 이상	9	1	-	10
	취업상태				
	취업	18	1	1	20
	비취업	7	1	-	8
전체		25	2	1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4	1	-	5
	여자	6	-	-	6
	연령				
	20대	10	-	-	10
	30대	-	1	-	1
	40대				
	교육수준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	-	-	3
	대학교 재학 이상	7	1	-	8
	취업상태				
	취업	5	1	-	6
	비취업	5	-	-	5
전체		10	1	-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8	1	-	9
	여자	1	1	1	3
	연령				
	20대	4	-	1	5
	30대	3	2	-	5
	40대	2	-	-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	-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	1	1	5
	대학교 재학 이상	3	-	-	3
	취업상태				
	취업	6	2	-	8
	비취업	3	-	1	4
전체		9	2	1	12

〈표 4-8〉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제적 이유	돌봄·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직장 (취업) 관계로	학교 때문에	가족의 반대로	독립할 필요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성북구 정릉3동	23	5	5	-	-	-	8	5
익산시 영등2동	22	9	-	2	1	1	3	6
충주시 소태면	13	4	3	1	-	-	1	4

〈표 4-9〉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독립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로 결혼시점, 취업시점,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제시하였고, 이는 독립의 사회적 규범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결혼시점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취업 29.1%, 성인 9.1%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 41.7%, 취업 38.9%, 성인 13.9%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결혼 50.0%, 취업 34.6%, 성인 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독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독립시기의 사회규범은 결혼시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규범은 사실 앞서 설명한 독립 희망 의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규범적으로 이상적 독립 시점이 결혼시점이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개인적 희망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결혼 시점이라는 독립시기는 규범적 측면과 독립의 경제적 어려움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년층의 독립 욕구는 경제적 여건 또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일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9〉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이상적인 독립시기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성인	필요없음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4.8(17)	29.0(9)	12.9(4)	-	3.2(1)	100.0(31)
	여자	58.3(14)	29.2(7)	4.2(1)	4.2(1)	4.2(1)	100.0(24)
	연령						
	20대	60.0(18)	30.0(9)	6.7(2)	-	3.3(1)	100.0(30)
	30대	58.8(10)	23.5(4)	11.8(2)	-	5.9(1)	100.0(17)
	40대	37.5(3)	37.5(3)	12.5(1)	12.5(1)	-	100.0(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4(4)	36.4(4)	9.1(1)	9.1(1)	9.1(1)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3.6(14)	31.8(7)	-	-	4.5(1)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59.1(13)	22.7(5)	18.2(4)	-	-	100.0(22)
	취업상태						
	취업	57.5(23)	27.5(11)	10.0(4)	2.5(1)	2.5(1)	100.0(40)
	비취업	53.3(8)	33.3(5)	6.7(1)	-	6.7(1)	100.0(15)
전체		56.4(31)	29.1(16)	9.1(5)	1.8(1)	3.6(2)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57.9(11)	26.3(5)	5.3(1)	10.5(2)	-	100.0(19)
	여자	23.5(4)	52.9(9)	23.5(4)	-	-	100.0(17)
	연령						
	20대	36.7(11)	43.3(13)	13.3(4)	6.7(2)	-	100.0(30)
	30대	75.0(3)	-	25.0(1)	-	-	100.0(4)
	40대	50.0(1)	50.0(1)	-	-	-	100.0(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7(4)	16.7(1)	-	16.7(1)	-	100.0(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7.5(3)	25.0(2)	25.0(2)	12.5(1)	-	100.0(8)
	대학교 재학 이상	36.4(8)	50.0(11)	13.6(3)	-	-	100.0(22)
	취업상태						
	취업	36.4(8)	36.4(8)	22.7(5)	4.5(1)	-	100.0(22)
	비취업	50.0(7)	42.9(6)	-	7.1(1)	-	100.0(14)
전체		41.7(15)	38.9(14)	13.9(5)	5.6(2)	-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57.1(12)	28.6(6)	4.8(1)	4.8(1)	4.8(1)	100.0(21)
	여자	20.0(1)	60.0(3)	20.0(1)	-	-	100.0(5)
	연령						
	20대	50.0(5)	40.0(4)	10.0(1)	-	-	100.0(10)
	30대	36.4(4)	36.4(4)	9.1(1)	9.1(1)	9.1(1)	100.0(11)
	40대	80.0(4)	20.0(1)	-	-	-	100.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5(3)	37.5(3)	12.5(1)	12.5(1)	-	100.0(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2.5(5)	25.0(2)	12.5(1)	-	-	100.0(8)
	대학교 재학 이상	50.0(5)	40.0(4)	-	-	10.0(1)	100.0(10)
	취업상태						
	취업	57.1(12)	28.6(6)	4.8(1)	4.8(1)	4.8(1)	100.0(21)
	비취업	20.0(1)	60.0(3)	20.0(1)	-	-	100.0(5)
전체		50.0(13)	34.6(9)	7.7(2)	3.8(1)	3.8(1)	100.0(26)

나. 미혼남녀 심층사례연구

양적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미혼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독립의사가 있으나 현재 제반 여건상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독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독립 시기는 결혼시점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좀 더 심층적인 맥락을 통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미혼남녀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결혼 또는 독립에 이르는 과정은 보통 몇 가지 경로를 따르게 되는데, 첫째는 결혼과 동시에 원 가족에서 분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1인가구로 독립해 있다가 결혼과 함께 신생가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결혼하지 않고 원 가족에서 분가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원 가족에서 분가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성 친구 또는 미래의 배우자와 관계가 형성되고 공간적 독립 또는 신생가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성 친구와 결혼 또는 미혼 상태로 동거생활을 할 수도 있다. 혼전 동거생활은 전통적 규범에서 금기시 되던 것이지만 현대의 청년층에서 어찌면 일반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혼전 동거생활에 대한 공식적 또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심층사례 연구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혼전 동거가 청년층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한 면접대상자는 재학 당시 주변에서 동거하는 친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좀 많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다른 면접 대상자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부터 혼전 동거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많아요. 딱 보면은...한 20%? 30%?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은데...제가 본거는 좀 그래요(사례 1-5, 남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일 년 연중 따지면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우리 만나요. 이성적인 생활을 해요. 같이 살 때도 있었구요(사례 1-2, 남자).

그 때 동거 좀 했었죠. 동거를 한 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성)관계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둘이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집이 좁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만나면 있을 데도 없고 하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1-4, 남자).

청년층에게 인식의 차원에서 혼전 동거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는 규범의 혼재 또는 공존 상태가 확인된다.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어도 가족 규범이 작동하면 독립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독립을 억제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하지 않은 개인의 독립 가구는 아직 가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

이 나이에 돈도 벌고 하니까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은 허락을 안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하...그냥... 어... 아빠가 좀 저를. 저희 아빠가 좀 저희 아버지가 뭐랄까... 많이 애지중지하세요(사례 1-7, 여자).

혼전 동거의 규범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 규범의 작동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으로 확장되는 부분이다. 동거생

활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행동이며 심지어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경직성은 전통적 사회규범의 약화를 우려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동거가 자유로워지면 미혼모가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동거가 자유로워지는 사회) 전 그렇게 그런 사회가 오면, 미혼모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솔직히 저도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지만. 그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지만, 숨기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은...그러면서 더 미혼모들도 많아지고 더 그게 자연스럽게 될까봐(사례 1-7, 여자).

반면 혼전 동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도 관찰된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의 경우도 주변에서 직장동료의 혼전 동거자를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도 혼전 동거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전에 동거가 가능하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나이 되면.. 주위에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언니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면(사례 1-1, 여자).

현실 사회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규범의 공존은 명확히 관찰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개인 안에서 규범의 혼재 또는 공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사례에서 이런 맥락을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이 혼전 동거를 억제하고 있는 측면을 잘 보여준다. 한편, 자신이 제 3자의 입장에서 혼전 동거자를 보았을 때 나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런 욕구가 있어도 혼전 동거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변한다면 또는 우리 사회를 벗어나 억압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자기도 개방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경직된 사회규범이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는 전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남들에 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보서는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아요...사회가 그렇게 변한다면. 네. 저도. 아무래도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근데 만약에, 저도 외국에 나가고 그러면은 저도 개방적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정말 보수적이니까. 숨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프리하다면 저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사례 1-1, 여자).

현실 사회에서 혼전 동거는 일반화된 상태이지만, 그 관계의 성격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사례 역시 혼전 동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방식이었다. 그리고 혼전 동거가 결혼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명확하다. 이런 인식은 혼전 동거가 관계 형성과 유지의 책임감에서 일정정도 자유롭다는 전제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결혼 전에 동거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결혼과 무관하게?)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봤는데..저는.. 그런 거.. 동생들도 많이 하고, 동거도 하고, 대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동거는..(사례 1-3, 남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전제를 딱 둔 순간부터,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사례 1-2, 남자)”가 되는 것이다. 동거 중에 임신을 해도 “도장 안 찍었는데 제가 보기엔 안 살 거 같아요. 친구도 그런 친구 있는데 동거하다가 애 가졌는데 바로 그냥 헤어지던데요...(사례 1-6, 남자)”라는 언급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 일반화된 혼전 동거가 결혼과 연계되는 순간 혼전 동거 관계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대로 결혼과 연계되지 않는 순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이 경직적인 구조로 작동함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일반화된 혼전 동거의 책임회피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경직된 사회규범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혼전 동거는 비밀에 붙이고, 동시에 관계 유지의 책임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독립을 억제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하는 맥락을 보여준다. 혼인하지 않은 한 사람의 독립 가구는 아직 가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것이다.

혼전 동거에 대한 서로 다른 규범이 공존하듯이, 혼전 동거 경험 또는 이성 친구의 존재가 주거 독립에 영향을 주는 방향도 상반된 방향으로 공존하고 있다. 우선 혼전 동거 또는 이성 친구의 존재가 혼인이나 주거 독립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이 독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즉시 “예”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집안이 있는 율타리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거랑 나가서 살아보면서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사례 1-3, 남자)”라는

이유이다. 또 다른 면접 대상자는 여자 친구가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질문했을 때 “예! 살고 싶었어요(사례 1-6, 남자)”라고 말한다. 반면 또 다른 면접 대상자는 독립을 결정하는 데 여자 친구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했을 때, “굳이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사례 1-5, 남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혼전 동거 경험 또는 이성 친구의 존재는 공간적 주거 독립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혼전 동거에 대한 규범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공간적 주거 독립 시기에 대한 규범은 규범적 차원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은 청년층에서 생각하는 독립 시기는 대체로 결혼 시점이라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규범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심층 사례연구에서도 규범적 측면에 경제적 현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독립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독립,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면 나가야지...(사례 1-4,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런 언급은 독립 시점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보여준다. 반면 더 일반적인 생각은 결혼과 무관하게 여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독립의 시기에 대한 규범적 차원에서 연령이나 결혼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독립은 능력이 될 때 저는...나이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독립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20대 초반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독립은 능력,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그 정도가 된다면.. (사례 1-1, 여자).

그런데 여기서 독립시점에 대한 규범은 결국 경제적 현실에 막혀 작동을 멈춘다. 여건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말하며, 곧 취업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현실이 충족되었을 때, 독립된 삶에 대한 자신의 규범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독립된 삶에 대한 규범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환경으로 확장되어 잘 발달된 개인주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직업을 잡았을 때죠. (경제적인 게 해결 되면 결혼 전에도 독립할 것인가?) 그러면 나가죠. 저는 경제적인 게 기준이니까...혼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게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사례 1-3, 남자).

요컨대 경제적 여건은 독립에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적 배경요인이 허락한다 해도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면 독립은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 준비상태는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 상태 역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준비 상태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적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주거 독립이 여전히 혼인의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집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결혼을 준비해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는 혼인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독립은 혼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거환경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2. 결혼에 대한 인식

가. 미혼남녀 부가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비율은 34.6%,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9.6%,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13.5%,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9.6%,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9.2%, ‘잘 모르겠다’ 13.5%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31.3%,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15.6%,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12.5%,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21.9%,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9.4%, ‘잘 모르겠다’ 9.4%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75.0%,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12.5%,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4.2%,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0.0%,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4.2%, ‘잘 모르겠다’ 4.2%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부정적 대답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 28.8%, 익산시 영등2동 31.3%, 충주시 소태면 4.2%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이 결혼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가장 부정적 응답이 익산시 영등2동에서만 21.9%로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0〉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잘 모르겠다	계(명)
성별							
남자	46.7	10.0	3.3	10.0	23.3	6.7	100.0(30)
여자	18.2	9.1	27.3	9.1	13.6	22.7	100.0(22)
성북구 정릉3동							
연령							
20대	32.1	7.1	17.9	10.7	7.1	25.0	100.0(28)
30대	56.3	18.8	6.3	6.3	12.5	-	100.0(16)
40대	-	-	12.5	12.5	75.0	-	100.0(8)
전체	34.6	9.6	13.5	9.6	19.2	13.5	100.0(52)
성별							
남자	29.4	11.8	17.6	23.5	5.9	11.8	100.0(17)
여자	33.3	20.0	6.7	20.0	13.3	6.7	100.0(15)
익산시 영등2동							
연령							
20대	26.9	15.4	15.4	26.9	3.8	11.5	100.0(26)
30대	50.0	25.0	-	-	25.0	-	100.0(4)
40대	50.0	-	-	-	50.0	-	100.0(2)
전체	31.3	15.6	12.5	21.9	9.4	9.4	100.0(32)
성별							
남자	75.0	10.0	5.0	-	5.0	5.0	100.0(20)
여자	75.0	25.0	-	-	-	-	100.0(4)
충주시 소태면							
연령							
20대	44.4	33.3	11.1	-	-	11.1	100.0(9)
30대	100.0	-	-	-	-	-	100.0(10)
40대	80.0	-	-	-	20.0	-	100.0(5)
전체	75.0	12.5	4.2	-	4.2	4.2	100.0(24)

응답자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미혼 응답자는 ‘소득이 적어서’와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다음은 ‘본인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응답이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이른 나이’라는 응답과 ‘생각이 없어서’, ‘실업상태여서’,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음 순으로 많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영등2동의 경우 아직 이르다는 태도와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가 특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응답자 중 전체적으로 32.7%가 결혼에 대한 압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익산시 영등2동은 13.9%, 충주시 소태면은 4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태면의 미혼자에 대한 사회적 결혼 압력이 가장 크고, 영등2동의 미혼자에 대한 사회적 결혼 압력이 가장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태면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반면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1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압력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8.1	38.7	-	3.2	-	-	-	100.0(31)
	여자	79.2	16.7	-	4.2	-	-	-	100.0(24)
	연령								
	20대	86.7	10.0	-	3.3	-	-	-	100.0(30)
	30대	35.3	58.8	-	5.9	-	-	-	100.0(17)
	40대	62.5	37.5	-	-	-	-	-	100.0(8)
전체		67.3	29.1	-	3.6	-	-	-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78.9	15.8	-	-	-	-	5.3	100.0(19)
	여자	94.1	-	-	-	-	5.9	-	100.0(17)
	연령								
	20대	90.0	3.3	-	-	-	3.3	3.3	100.0(30)
	30대	75.0	25.0	-	-	-	-	-	100.0(4)
	40대	50.0	50.0	-	-	-	-	-	100.0(2)
전체		86.1	8.3	-	-	-	2.8	2.8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52.4	23.8	4.8	14.3	4.8	-	-	100.0(21)
	여자	80.0	20.0	-	-	-	-	-	100.0(5)
	연령								
	20대	80.0	10.0	-	-	10.0	-	-	100.0(10)
	30대	27.3	36.4	9.1	27.3	-	-	-	100.0(11)
	40대	80.0	20.0	-	-	-	-	-	100.0(5)
전체		57.7	23.1	3.8	11.5	3.8	-	-	100.0(26)

나. 미혼남녀 심층사례연구

미혼남녀의 결혼인식에 대한 양적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낮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충주시 소태면과 같은 농촌지역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양적조사 결과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⁷⁾

여기서는 이런 양적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우선 이번 심층 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의 다양성은 명확히 확인된다.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의 필요성을 내면화하고 있는가 하면, 결혼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관찰된다. 한 사람이 다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는 결혼의 필요성에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부모님에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외동아들이잖아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꼭해야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그래도 아들 하나인데 결혼하는 모습은 엄마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사례 1-5, 남자).

7) 본 양적 조사 결과는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적 경향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음 사례는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통적 결혼관의 한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미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로서 이상적 배우자상을 현모양처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결혼생활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인데.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두고 경제적인 여유만 되면 내 배우자가. 일을 그만 두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내 애기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은 게 꿈이에요...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봤으면 좋겠어요(사례 1-7, 여자).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반드시 전통적 규범의 틀 내에서만 사고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사례는 오히려 매우 탈전통적인 관점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결혼을 자기 발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가정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고 싶죠. 꼭 해야 돼요. (왜 결혼은 꼭 해야 될까요?) 자기발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혼자서 결혼 안하고 혼자 살아가도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정을 이제 꾸리고 생활한다는 거 자체가 많은 도전이기도 하고,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사례 1-3, 남자).

결혼에 대해서 더욱 자유로운 생각도 발견된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는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꼭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거나 강하게 긍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런 자신의 생각이 가족적 배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거의 19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거의 이제 부모님 별거 중이신 상태에서 저는 수능 준비할 때도 혼자 오피스텔에서 따로 공부했었어요...도시락 싸간 일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이후부터. 어머니도 바쁘셨던 것 같고. 열굴 뵈도 거의 뵈 시간이 없었고...거의 용돈만 받아서. 나중에는 거의 아파서 학교 못나간 적 있었거든요. 모르시더라고요...제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가족인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 결혼관이라든가 그런 게 잡혔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건 아니다 라는 생각,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사례 1-2, 남자).

인식의 차원에서 결혼에 대한 상(像)을 말하는 것과 달리, 결혼과 연결되는 현실적 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는 더욱 절실히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적 인식은 결혼을 유보하거나 결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 또는 결혼 자체의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혼에 이르는 시점이 언제일지 자신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자신의 삶에서 설정한 목표 때문이었다. 안정적인 디자이너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자신이 설정한 결혼의 전제조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도 결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만약 인연을 만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또 한번 결혼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여자의 경우 현재의 인식상태가 지속된다면 결혼할 가능성보다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른다.

(앞으로 결혼하실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일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 목표가 빨리 디자이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고 그 때 만약에 인연을 만난다면 결혼을 생각하겠죠(사례 1-1, 여자).

결혼의 좌절된 경로를 보여주는 다음 사례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남자는 9년간 교제한 친구와 헤어졌다. 헤어진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을 반대하는 친구의 부모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제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친구 부모님의 반대를 자신의 경제적 여건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결혼의 좌절은 결혼만의 좌절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삶까지 연속되는 생각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 ① 나이가 서른 넘으니까 집에서 결혼도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직업도 없고 없으니까...
- ② 제 입장에서. 네. 돈이죠. 제 입장에서 돈이었어요. 아(탄식), 헤어지자는데, 아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잡을 수 없더라고요...
- ③ 아직 결혼생각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결혼생각이 없어져버리니까.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 ④ 지금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벌어서는 못 가죠. 아무래도. 못가는 게 맞는 거죠. 못 하는 거죠.
- ⑤ 지금은 아무래도 결혼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 ⑥ 사는 게 팍팍하더라고요.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고...그냥 뭐. 살면서 딱 1억만 있어도 그냥 나 죽을 때까지는 쓰겠다라는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사례 1-4, 남자).

결혼에 대한 좌절, 유보, 부정은 현실의 벽에서 직접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결혼은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생애사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들에게 인식의 차원에서는 돈 없으면 결혼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결혼과 함께 자녀 출산 역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해야하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다음 사례에서, 남자는 우선 취직을 하고 3~4년 동안 경제적 준비를 한 이후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삶의 기틀과 배우자 삶의 기틀까지 마련해 놓고 나서 자녀를 낳겠다는 것이다. 취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낳을 거예요?) 네. 낳기는 낳을 건데, 진짜 준비되면. (준비라는 것은 뭘 말해요?) 기틀이죠. 제 생활의 기틀이랑 와이프 생활의 기틀.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럼 언제 결혼할거예요?) 취직한 다음에 한 3~4년 뒤에 결혼하고 싶어요. 한 33? 34? (취직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사례 1-3, 남자).

그리고 결혼의 조건에서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 상황이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경제적 준비는 결혼과 자녀출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런 게 많잖아요, 솔직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인 게... 경제적인 게 크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사례 1-1, 여자).

이런 현실적 인식은 경제위기를 통해 강화된 맥락도 발견된다. 외환위기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남자는 그 기억을 ‘상처’로 표현하고,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기억이 이 남자를 엄격한 현실주의자로 만들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취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도덕적 기준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IMF 외환위기가 터졌으니까...(어떤 기억이 있어요?) 상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집안이 되게 화목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네. (엄마가)아빠랑 같이 일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죠 (사례 1-3, 남자).

결혼과 관련하여 지금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심층사례 연구에서 만난 7명은 대체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의 시작은 거의 아르바이트였다. 현재 취업 준비 중 1명, 안정적 직장으로 시작한 사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반복적으로 이직했으며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고용문제가 가족형성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것(사례 1-1, 여자)”, 결혼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집이겠죠(사례 1-4, 남자)”,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장(사례 1-5, 남자)”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결혼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3. 소결

독립 또는 동거와 혼인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질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양적 접근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응답자 중에서 현재 주거 독립 상태인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 7.3%, 익산시 영등2동 8.3%, 충주시 소태면 3.8%로 나타나 독립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약 90% 이상 비독립 상태이지만, 이들의 독립 의사를 살펴보면 조사 시점 현재 성북구 정릉3동의 독립의사는 54.9%,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 48.0%로 나타남으로써,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 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명 중 경제적인 이유라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전체 11명 중에서 10명, 충주시 소태면 전체 12명 중에서 9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반대는 성북구 정릉3동은 28명 중 2명, 익산시 영등2동은 11명 중 1명, 충주시 소태면은 12명 중 2명으로 나타났으나, 사례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독립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 항목으로 결혼시점, 취업시점,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결혼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취업 29.1%, 성인 9.1%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 41.7%, 취업 38.9%, 성인 13.9%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결혼 50.0%, 취업 34.6%, 성인 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독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독립이나 동거에 대한 심층사례연구 결과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독립을 억제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혼인하지 않은 개인의 독립 가구는 아직 하나의 개별적인 가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현실에서는 혼전 동거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본인의 경험과 주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심층사례연구 대상자 7명 중 3명이 동거를 직접 경험했으며, 주변에서 동거를 많이 보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독립 가구는 언젠가는 혼인에 의한 가족으로 완성되어야 할 불완전 상태로 인식되며, 현대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이런 맥락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은 독립에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상태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적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주거 독립이 여전히 혼인의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집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결혼을 준비해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는 혼인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독립은 혼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거환경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미혼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 28.8%,

익산시 영등2동 31.3%, 충주시 소태면 4.2%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충주시 소태면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심층사례연구 결과 결혼에 대한 미혼남녀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나타났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생애사적 통과의례라는 인식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더 일반적인 태도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이거나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였다.

결혼과 관련하여 지금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심층사례연구에서 만난 7명은 대체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의 시작은 거의 아르바이트였다. 현재 취업 준비 중 1명, 안정적 직장으로 시작한 사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반복적으로 이직했으며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고용문제가 가족형성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것(사례 1-1, 여자)”, 결혼하는 데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집이겠쥬(사례 1-4, 남자)”,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장(사례 1-5, 남자)”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결혼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2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와 심층사례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사례연구는 양적 조사대상 중 연령, 자녀연령,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두 8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성북구 정릉3동에서 3명, 익산시 영등2동에서 2명, 충주시 소태면에서 3명을 선정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3명 중 40대 1명이 취업 중이었고 나머지는 비취업 중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2명 중 30대 중반 1명이 취업 중이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3명 중 2명이 취업 중이었다. 전체 8명 중에서 자녀가 2명인 사람은 4명이었고, 자녀가 3명인 사람은 3명, 자녀가 4명인 사람이 1명이었다.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4-13〉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기혼여성)

(단위: 명)

지역	사례	연령	취업	자녀수
성북구 정릉3동	사례 2-1	40대 초반	취업	3
	사례 2-2	30대 후반	비취업	2
	사례 2-3	30대 초반	비취업	2
익산시 영등2동	사례 2-4	30대 중반	취업	2
	사례 2-5	30대 후반	비취업	3
충주시 소태면	사례 2-6	40대 후반	비취업	3
	사례 2-7	40대 초반	취업	4
	사례 2-8	30대 초반	취업	2

심층사례연구는 주로 자원동원 형태와 환경 및 돌봄 형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자녀양육 규범의 특성에도 주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가족 내 제반 환경에 따른 자녀 돌봄 자원의 동원형태이다. 자녀 양육 자원의 동원형태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아버지의 참여정도, 부모이외의 돌봄 조력자 유무 등에 따라서 차별적일 수 있다. 양육 자원의 동원가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기회의 불평등과 연계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 자원의 공적 공급이 사회계층화와 연계되어 정책적 초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아동 양육형태와 관련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른 상이한 아동양육형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추구한 평등 이념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야기했다(윤홍식, 2010). 이는 선택권의 보장이 기존 사회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돌봄 자원의 배치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돌봄 자원의 배치는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직접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모의 취업은 직접양육에 비해 유급 혹은 무급의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도 예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최상설·홍경준, 2012).

가구소득은 부모의 양육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이 자라나는 환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은설·도남희, 2012).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소득 상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며, 양육스트레스는 소득하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또한 소득 상위집단에서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임현주·이대균, 201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양육자원의 동원형태는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이 자녀 양육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주요 관점을 고려하여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부가조사 결과

양적 조사 자료 분석에서 우선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보육 및 교육 기관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은 64.7%, 유치원 이용률은 5.9%로서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합하면 70.6%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기 및 보습 학원 이용률은 23.5%를 나타내고 있다.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기 및 보습 학원 이용률은 비취업여성(5.6%)보다 취업여성이(43.8%)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4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24.6%, 유치원 이용률 23.0%로 두 시설 이용률을 합하면 47.6%로 절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은 28.7%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많이 낮은 편이고,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합하면 57.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은 7.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학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나 환경적 압박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표 4-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 기관 보육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반 이상)	특가· 보습 학원	지역아동 센터 주민센터	문화 센터 등 사설	시간제 보육 등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68.8	6.3	-	43.8	-	6.3
	비취업	18	61.1	5.6	5.6	5.6	-	5.6
	가구소득							
	상	6	83.3	-	-	-	-	-
	중	24	62.5	8.3	4.2	29.2	-	8.3
	하	4	50.0	-	-	25.0	-	25.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64.3	7.1	7.1	28.6	-	14.3
	2명	17	58.8	5.9	-	23.5	-	11.8
	3명	3	100.0	-	-	-	-	33.3
	전체	34	64.7	5.9	2.9	23.5	-	5.9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23.8	25.4	4.8	36.5	3.2	4.8
	비취업	59	25.4	20.3	3.4	20.3	-	6.8
	가구소득							
	상	19	21.1	26.3	10.5	31.6	5.3	5.3
	중	77	23.4	22.1	1.3	31.2	-	7.8
	하	25	32.0	24.0	8.0	20.0	4.0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15.2	7.6	4.5	40.9	3.0	10.6
	2명	47	38.3	42.6	2.1	17.0	-	-
	3명	9	22.2	33.3	11.1	-	-	-
	전체	122	24.6	23.0	4.1	28.7	1.6	5.7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33.3	33.3	-	8.3	-	-
	비취업	2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중	9	44.4	22.2	-	11.1	-	-
	하	3	-	66.7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	16.7	-	16.7	-	-
	2명	6	33.3	50.0	-	-	-	-
	3명	2	100.0	-	-	-	-	-
	전체	14	28.6	28.6	-	7.1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다음은 보육 관련 기관 이용 건수와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표 4-15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4.6시간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0.3시간,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3.8시간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어린이집 주당 평균 시간은 약 3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을 5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약 6시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는 현재 무상보육 제도 내에서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6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례수가 작아서 취업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세분해 보는 것은 어렵다.

〈표 4-16〉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사적 돌봄 조력자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전체 응답자 34명 중에서 9명이 친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주당 평균 1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4명 있었으며, 주당 평균 18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 122명 중에서 친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명이었고 이 경우 주당 평균 21.4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명으로 주당 평균 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 1명의 응답자가 취업상태에서 개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소득은 중간 60%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전체 응답자 14명 중에서 친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6명으로 주당 평균 1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이 사적 돌봄 조력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기관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반 이상)	특기· 보습 학원	지역아동 센터· 주민센터	문화 센터 등 시설	시간제 보육 등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37.4(11)	20.0(1)	-	9.7(7)	-	1.0(1) 8.0(2)
	비취업	18	31.8(11)	28.0(1)	3.0(1)	5.0(1)	-	1.0(1) 1.0(1)
	가구소득							
	상	6	30.6(5)	-	-	-	-	-
	중	24	35.9(15)	24.0(2)	3.0(1)	9.7(7)	-	1.0(2) 1.0(2)
	하	4	35.0(2)	-	-	5.0(1)	-	- 15.0(1)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34.2(9)	20.0(1)	3.0(1)	10.0(4)	-	- 8.0(2)
	2명	17	36.3(10)	28.0(1)	-	8.3(4)	-	1.0(2) -
	3명	3	30.0(3)	-	-	-	-	- 1.0(1)
	전체	34	34.6(22)	24.0(2)	3.0(1)	9.1(8)	-	1.0(2) 5.7(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32.3(15)	37.7(16)	8.3(3)	6.8(23)	8.0(2)	0.7(3) 8.9(17)
	비취업	59	28.2(15)	35.8(12)	5.0(2)	8.0(12)	-	7.5(4) 5.9(8)
	가구소득							
	상	19	25.8(4)	37.0(5)	10.0(2)	4.8(6)	11.0(1)	1.0(1) 6.4(5)
	중	77	29.2(18)	36.1(17)	5.0(1)	7.5(24)	-	5.2(6) 9.7(13)
	하	25	35.0(8)	39.2(6)	5.0(2)	8.4(5)	5.0(1)	- 5.7(7)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31.0(10)	38.0(5)	8.3(3)	7.4(27)	8.0(2)	4.6(7) 7.9(22)
	2명	47	29.1(18)	36.2(20)	5.0(1)	6.5(8)	-	- 7.5(2)
	3명	9	37.5(2)	40.0(3)	5.0(1)	-	-	- 10.0(1)
	전체	122	30.3(30)	36.9(28)	7.0(5)	7.2(35)	8.0(2)	4.6(7) 7.9(25)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33.8(4)	30.8(4)	-	10.0(1)	-	- -
	비취업	2	-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
	중	9	33.8(4)	24.0(2)	-	10.0(1)	-	- -
	하	3	-	37.5(2)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	35.0(1)	-	10.0(1)	-	- -
	2명	6	30.0(2)	29.3(3)	-	-	-	- -
	3명	2	37.5(2)	-	-	-	-	- -
	전체	14	33.8(4)	30.8(4)	-	10.0(1)	-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표 4-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돌봄 조력자 이용건수 및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육아전문 파견인력	이웃 등 기타 비혈연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17.5(4)	8.5(2)	-	-	2.0(1)	5.0(1)
	비취업	18	8.0(5)	27.5(2)	5.0(1)	-	-	-
	가구소득							
	상	6	8.0(1)	15.0(1)	5.0(1)	-	-	-
	중	24	12.8(8)	19.0(3)	-	-	2.0(1)	5.0(1)
	하	4	-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15.6(5)	10.0(1)	-	-	-	-
	2명	17	8.0(4)	20.7(3)	5.0(1)	-	2.0(1)	5.0(1)
	3명	3	-	-	-	-	-	-
	전체	34	12.2(9)	18.0(4)	5.0(1)	-	2.0(1)	5.0(1)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26.5(4)	19.9(8)	1.0(1)	10.0(1)	-	-
	비취업	59	1.0(1)	30.5(2)	-	-	-	-
	가구소득							
	상	19	-	27.0(2)	-	-	-	-
	중	77	26.5(4)	23.6(7)	1.0(1)	10.0(1)	-	-
	하	25	1.0(1)	1.0(1)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15.3(3)	21.6(7)	1.0(1)	10.0(1)	-	-
	2명	47	40.0(1)	23.0(3)	-	-	-	-
	3명	9	21.0(1)	-	-	-	-	-
	전체	122	21.4(5)	22.0(10)	1.0(1)	10.0(1)	-	-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12.2(6)	-	-	-	-	-
	비취업	2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중	9	11.8(5)	-	-	-	-	-
	하	3	14.0(1)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14.0(1)	-	-	-	-	-
	2명	6	12.7(3)	-	-	-	-	-
	3명	2	10.5(2)	-	-	-	-	-
	전체	14	12.2(6)	-	-	-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사적 돌봄 조력자는 중복응답 처리하였음.

〈표 4-17〉에서 지역별로 자녀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월평균 40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사교육비는 월 6만 9천원 수준이었다. 아직 자녀의 평균 연령이 어려서 사교육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영등2동의 월 평균 양육비는 71만 8천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월평균 18만 5천원을 지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21만 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교육비는 5만 6천원으로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녀가 1명인 경우만 비교한 월평균 양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지역별 특성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자녀가 1명인 14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46만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자녀가 1명인 66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76만 5천원이었고, 충주시 소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따라서 익산시 영등2동이 자녀 양육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표 4-1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평균 양육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총 양육비	보건 의료비	보육비	공 교육비	사 교육비	조력자 지급비용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45.9	2.6	3.9	-	12.5	5.7	21.3
	비취업	18	35.1	1.9	2.8	0.7	1.9	2.8	25.0
	가구소득								
	상	6	36.8	2.5	5.5	-	-	-	28.8
	중	24	43.1	2.3	2.9	0.5	9.3	5.9	22.2
	하	4	28.0	1.3	2.8	-	2.8	-	21.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46.0	2.1	4.1	-	13.2	4.3	22.4
	2명	17	38.9	2.6	2.9	0.7	2.6	4.8	25.3
	3명	3	20.3	1.0	2.0	-	1.3	-	16.0
	전체	34	40.2	2.2	3.3	0.4	6.9	4.1	23.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83.2	4.0	2.2	5.0	20.3	14.0	37.8
	비취업	59	59.6	4.6	2.3	1.5	16.7	1.2	33.4
	가구소득								
	상	19	95.2	5.5	1.6	8.8	29.3	7.4	42.7
	중	77	67.2	3.4	2.0	2.3	15.7	10.5	33.4
	하	25	69.8	6.2	3.5	2.6	19.9	-	37.6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76.5	3.4	1.5	1.6	24.6	8.5	36.8
	2명	47	70.4	5.4	3.4	5.7	13.2	8.3	34.4
	3명	9	45.2	5.0	1.3	3.7	2.0	-	33.2
	전체	122	71.8	4.3	2.2	3.3	18.5	7.8	35.6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22.0	2.5	0.2	0.5	5.2	-	13.7
	비취업	2	20.0	1.5	-	0.5	8.5	-	9.5
	가구소득								
	상	2	27.5	1.5	-	1.5	7.5	-	17.0
	중	9	22.8	3.0	0.2	0.3	6.0	-	13.2
	하	3	14.7	1.0	-	0.3	3.3	-	10.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23.8	2.3	-	0.7	10.3	-	10.5
	2명	6	21.7	2.7	0.3	0.5	2.8	-	15.3
	3명	2	15.5	1.5	-	-	-	-	14.0
	전체	14	21.7	2.4	0.1	0.5	5.6	-	13.1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한편, 부부의 가사 및 육아 활동 분담 시간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남편의 주중 가사활동 시간은 0.9시간, 부인 3.5시간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인이 남편에 비해 3배 이상 가사활동을 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남편의 주중 가사활동 시간은 0.7시간, 부인 3.4시간으로 역시 부인이 남편에 비해서 주중에 3배 이상 가사활동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도 남편의 가사활동 시간은 0.3시간 인 반면 부인은 3.7시간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육아활동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주중을 기준으로 남편 1.2시간, 부인 5.1시간으로 나타나 가사활동에 비해서 부부의 시간배분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주중의 남편 육아활동 시간이 0.9시간, 부인 3.8시간으로 나타나 가사활동 부부 격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충주시 소태면은 주중 남편의 육아활동 1.0시간, 부인 2.2시간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사활동에 비해서 남편의 육아활동 참여시간이 높고 부인 육아활동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편 이외에 가사활동 조력자에 대한 조사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응답자 32명 중 21.9%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시부모 도움 정도는 33명 중 15.2%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응답자 119명 중 7.6%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응답자 111명 중 1.8%는 시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응답자 10명 중 50.0%가 시부모의 가사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표 4-19 참조).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볼 때, 전체적으로 충주시 소태면과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10% 미만으로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조사지역별 부부의 가사 및 육아활동 분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가사				육아				
		주중 (남편)	주중 (부인)	주말 (남편)	주말 (부인)	주중 (남편)	주중 (부인)	주말 (남편)	주말 (부인)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5	1.3	2.8	2.0	4.8	1.3	3.2	4.6	7.2
	비취업	18	0.5	4.1	0.9	4.3	1.2	6.7	2.8	7.3
	가구소득									
	상	6	0.7	4.2	1.6	3.5	1.4	6.0	3.2	7.9
	중	24	1.0	3.2	1.5	4.8	1.3	4.7	4.1	7.0
	하	3	0.4	4.3	0.4	4.3	0.6	6.7	0.8	8.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3	0.9	2.7	1.5	3.7	1.1	3.5	3.9	6.7
	2명	17	1.0	3.9	1.5	5.2	1.4	6.3	3.6	7.8
	3명	3	0.3	4.3	0.2	4.7	0.8	5.0	2.3	6.7
	전체	33	0.9	3.5	1.4	4.5	1.2	5.1	3.6	7.2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0.8	3.0	1.4	4.1	1.0	2.8	2.7	4.3
	비취업	58	0.5	3.9	1.4	4.1	0.9	5.0	2.7	5.0
	가구소득									
	상	19	0.7	3.1	1.6	4.4	0.9	3.1	2.7	4.3
	중	77	0.7	3.4	1.4	3.9	1.0	3.7	2.9	4.4
	하	24	0.5	4.0	1.3	4.7	0.7	4.4	2.2	5.4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5	0.6	3.4	1.5	3.9	0.9	3.8	3.0	4.1
	2명	47	0.8	3.2	1.3	4.2	1.0	3.4	2.1	5.1
	3명	9	0.7	5.1	1.4	5.1	0.9	5.8	3.5	6.1
	전체	121	0.7	3.4	1.4	4.1	0.9	3.8	2.7	4.6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0.3	3.9	0.9	4.6	1.0	2.2	1.6	2.8
	비취업	2	0.5	2.5	1.0	2.5	0.8	2.3	1.5	1.3
	가구소득									
	상	2	0.2	3.3	0.5	6.3	0.3	0.8	1.3	2.8
	중	9	0.5	4.1	1.1	4.2	1.3	2.4	1.8	2.6
	하	3	-	3.0	0.7	3.0	0.7	2.5	1.0	2.5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0.3	3.6	0.9	4.4	0.6	2.3	1.6	2.8
	2명	6	0.3	3.8	1.0	4.1	1.5	2.0	1.8	2.5
	3명	2	0.5	4.0	0.8	4.3	0.8	2.3	0.8	2.3
	전체	14	0.3	3.7	0.9	4.3	1.0	2.2	1.6	2.6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0임.

〈표 4-1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남편 외 가사분담 지원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친인척	시댁	친인척	가사도우미	이웃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35.7(14)	13.3(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비취업	11.1(18)	16.7(18)	5.6(18)	0.0(18)	0.0(18)	0.0(18)	0.0(18)	0.0(18)
	가구소득								
	상	16.7(6)	16.7(6)	16.7(6)	0.0(6)	0.0(6)	0.0(6)	0.0(6)	0.0(6)
	중	26.1(23)	16.7(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하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8.3(12)	15.4(13)	0.0(13)	0.0(13)	0.0(13)	0.0(13)	0.0(13)	0.0(13)
	2명	29.4(17)	17.6(17)	5.9(17)	0.0(17)	0.0(17)	0.0(17)	0.0(17)	0.0(17)
	3명	33.3(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전체	21.9(32)	15.2(33)	3.0(33)	0.0(33)	0.0(33)	0.0(33)	0.0(33)	0.0(3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11.3(62)	3.5(57)	1.6(63)	0.0(63)	0.0(63)	0.0(63)	0.0(63)	0.0(63)
	비취업	3.5(57)	0.0(54)	0.0(59)	0.0(59)	0.0(59)	0.0(59)	0.0(59)	0.0(59)
	가구소득								
	상	5.6(18)	0.0(17)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중	9.1(77)	2.9(70)	1.3(77)	0.0(77)	0.0(77)	0.0(77)	0.0(77)	0.0(77)
	하	4.3(23)	0.0(23)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7.8(64)	1.6(61)	1.5(66)	0.0(66)	0.0(66)	0.0(66)	0.0(66)	0.0(66)
	2명	6.4(47)	2.4(41)	0.0(47)	0.0(47)	0.0(47)	0.0(47)	0.0(47)	0.0(47)
	3명	12.5(8)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전체	7.6(119)	1.8(111)	0.8(122)	0.0(122)	0.0(122)	0.0(122)	0.0(122)	0.0(122)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0.0(12)	62.5(8)	0.0(12)	8.3(12)	0.0(12)	0.0(12)	0.0(12)	0.0(12)
	비취업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가구소득								
	상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2)
	중	0.0(8)	57.1(7)	0.0(9)	11.1(9)	0.0(9)	0.0(9)	0.0(9)	0.0(9)
	하	0.0(3)	50.0(2)	0.0(3)	0.0(3)	0.0(3)	0.0(3)	0.0(3)	0.0(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0.0(5)	25.0(4)	0.0(6)	0.0(6)	0.0(6)	0.0(6)	0.0(6)	0.0(6)
	2명	0.0(6)	75.0(4)	0.0(6)	0.0(6)	0.0(6)	0.0(6)	0.0(6)	0.0(6)
	3명	0.0(2)	50.0(2)	0.0(2)	50.0(2)	0.0(2)	0.0(2)	0.0(2)	0.0(2)
	전체	0.0(13)	50.0(10)	0.0(14)	7.1(14)	0.0(14)	0.0(14)	0.0(14)	0.0(14)

2. 기혼여성 심층사례연구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인식에서 양적 조사결과는 지역별, 취업 여부별, 자녀 연령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사교육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 교육시설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상태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사적 돌봄 조력자의 의존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의존적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의존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비 지출 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양적 자료 분석결과를 심층사례연구 내용 분석과 종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심층사례연구 분석은 자녀 양육의 규범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양적 조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녀 양육 행태는 이와 같은 양육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양육 규범이 자녀에 대한 기대나 도덕적 훈육의 원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규범들이 자녀에 대한 헌신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양육 실태의 측면에서 각종 양육 자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양육 자원이라 함은 공적 보육 및 교육시설, 민간 보습 학원 등의 기관과 함께 조부모 및 친척, 개인 베이비시터 등 돌봄 인적 자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양적 조사자료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익산시 영등2동의 한 심층연구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자. 이 사례의 경우(사례 2-4) 부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남편이 취업상태

이며, 가구소득은 세전 월 300만원 수준이다. 자녀는 6세아, 4세아 둘을 두고 있다(표 4-20 참조).

첫째아이는 3세 때 어린이집을 처음 보냈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둘째아이는 돌 지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첫째아이는 유치원 이외에 가정 방문 학습으로 한글과 수학을 추가로 가르치고 있고, 둘째아이는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내용은 없었다.

첫째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유치원에 지출하는데, 특별활동으로 월 10만원, 유치원 중식비 월 3만원을 지출한다. 그리고 방문학습비용으로 월 7만원을 지출한다. 유치원 교재비는 학기당 24만원 일시불로 납입하고 원아복으로 3만원을 지출하였다. 둘째아이는 교재비로 어린이집에 월 4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에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없었다.

〈표 4-20〉 익산시 영등2동 심층연구 사례(2-4)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구분	연령	보육교육기관 처음 보낸 시기	현재 이용기관	보육교육비 지출액	
				항목	금액
첫째아	6세	3세(어린이집)	유치원	• 특별(영어, 체육 등)	월 10만원
				• 유치원 중식비	월 3만원
				• 방문학습(한글, 수학)	월 7만원
				• 교재비	학기 24만원
				• 원아복	회 3만원
둘째아	4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교재비	월 4만원

첫째아이보다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낸 이유는 무상보육 제도 시행이 계기였다고 한다. 무상보육 제도가 아니었다면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무상보육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것 이외에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된다는 점이다.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진다면 가족의 제반 환경이 그 아동 성장환경을 대체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의 성장환경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기회획득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성장과정에서 기본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양육 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나 프로그램의 개발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은?) 돈이 들어가면 못 보내요, 진짜. 한 달에 생활비만도 빠듯한데. 애기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 편하자고. 물론 사회성도 기르고 하려고 보내긴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 돈은 못 내죠.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은 점은?) 제 마음이 여유로운 거? 애기도 좋아하고. 친구들과하고 노는 걸 좋아하죠. 아무래도 집에서 엄마랑 있는 거 보다는. 나는 이제 집에 데리고 있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부담감이 쌓여요. 어디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야 하나... 오늘은 어디 가지? 주말마다 고민되는 게 그게 제일로 크긴 해요. 뭐 하고 놀지?(사례 2-4)

양적 조사 분석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는 충주시 소태면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인은 남편과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세전 월 약 250만원 수준이다. 자녀는 4명으로 중학생 1명, 초등학교생 2명, 유치원생 1명이다. 당초 계획은 2명을 두는 것이었는데 딸을 갖고 싶어서 4명까지 출산한 경우이다(표 4-21 참조).

보육 및 교육비 관련하여 공교육기관 이외의 지출비용은 첫째아와 둘째아의 방문학습 비용으로 두 명 합산 금액 13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정기적 지출비용은 없었다. 네 명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보육 및 교육비용에서 공교육 비용부담을 제외하면 월 13만원이

전부인 것이다. 중학교,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돌봄)과 유치원에서 교육비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이 전혀 없었다. 이는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표 4-21〉 충주시 소태면 심층연구 사례(2-7)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구분	연령	보육·교육기관 처음 보낸 시기	현재 이용기관	보육교육비 지출액	
				항목	금액
첫째아	14세	6세(유치원)	중학교 2학년	• 방문학습(영어, 수학)	• 2명 합하여 월 13만원
둘째아	10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5학년	• 방문학습(영어, 수학)	
셋째아	8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	-
넷째아	7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	-

이 사례 가구는 첫 아이부터 부모가 직접 돌보았고, 도움을 받은 조부모나 친인척은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도 없었다. 최대한 보육 및 교육 기관의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시간 이외에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는 그래도 농촌마을에 특별함 위험요소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관 이용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여긴 조그마한 시골이라 그런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처럼(사례 2-7)”. 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돌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들이 또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집에서 글하나 바쁘니까 못 가르쳐 주잖아. 거기선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는 게 편하고, 아이들 배움성도 높고(사례 2-7).

다음은 심층사례연구에서 주목하는 자녀양육 규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이 크다는 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 사례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특별활동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 4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아이가 혼자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내 아이는 밖에서 혼자 놀아야 돼요. 다른 방에 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딱히 뭐... 뭘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놀아, 가서.” 그러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하는데 내 아이는 혼자 소외되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사례 2-4).

유치원 과정에서도 이미 과외 활동이나 가족활동까지 의식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이 자녀 양육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는 향후 다가올 초등학교 시기까지 이미 확장되고 있다.

여기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건 해야 돼요. 애들이 막 그래요. 나 뭐 했다? 너 뭐 했냐? 하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애가 좀 슬퍼해요.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주말이야기 같은 걸 해요. “저는 어제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누구랑 누구랑 뭐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갔다, 여행을 안 가면 애가 말을 거짓으로 지어내요. 그러더라고. 또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으면... 선생님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가야하나... 또 그러고... 하하. (사례 2-4)

뒤쳐진다는 생각...? 그냥 한 번씩 그냥 6세 때를 비교했을 때요, 내 아이는 한글을 몰라요. 지 이름만 쓰는데, 같은 6세인데 재는 글자를 지가 쓰는 거예요.

요. 그런 건 좀 충격을 먹긴 했어요...진짜 딱, 어느 정도 표준은 맞춰서 가야겠다. 그냥 미움 받을까봐 싫은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요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치맛바람이 좀 세대요(사례 2-4).

학교는 내가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도 그렇게 해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정해놔야 좋겠어요. 명절, 생일. 내 식구 챙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을 왜 챙겨요...그냥 내 새끼 잘 봐줘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 선물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1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작게는 5만원...거기서 누가 줬다고 하지? 난 뒤처지면 안 돼. 해가지고 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좋은 엄마들은 이제, ‘허우...’ 이러죠...저도 또 편견을 따라가겠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안 줘서 그 선생님이 내 새끼한테는 더 혼내려나? 더 안 봐주려나? 그런 마음이 또 생기니까요(사례 2-4).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이와 같은 환경적 압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태면에도 일부 자녀양육 경쟁에 가세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굳이 공부해라, 공부해라...그렇게까지 하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시골에도 많아요. 열성적으로 애들 학원 뭐 한 두군데 돌고 그런 엄마들이. 농사 지으면 서도 그런 엄마들이 많은데...애가 너무 힘들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건강할 게 더 낫더라고요. (자녀가 농사일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저도 농사짓는다는 소리 해요. 그런데 지금은 장난삼아 아직 어리니까 하는 소리라는 건 아는데. 굳이 뭐 아빠 일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 대신 너는 니 농사 따로 지어라. 이렇게 해야죠. (사례 2-7).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환경적 압박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최근의 양태만은 아

니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 규범이 부모의 헌신성을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헌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나 충주시 소태면의 사례나 모두 자녀에 대한 헌신성을 잘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는 환경적 압박과 부모의 고유한 헌신성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난 뒤처지면 안 돼. 해가지고 더 올리고...저도 또 편견을 따라가겠쥬.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안 줘서 그 선생님이 내 새끼한테는 더 혼내려나(사례 2-4)”와 같은 언급은 부모의 헌신성과 주변의 압박이 결합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헌신성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시내까지 보낼 것인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 엄정(면)이라도 보내쥬. 엄정에 피아노 학원도 있고. 뭘 태권도 학원도 있고. (그걸 꼭 시키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피아노는 지금 애 꿈이 가수예요. 꿈이 가수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음계라도 볼 줄 알면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고 할 때 디딤돌이 되니까. 또 어렸을 때 배우는 게 흡수력이 빠르고. 해주고 싶쥬. 고학년 올라가면 시내로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례 2-7).

지금 노후도 준비하고 있어요. 연금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헐어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 잘하면 해줘야쥬. 밀어줘야쥬...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신랑도 할 것 같아요(사례 2-5).

3. 소결

기혼 여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인식에서 양적 조사 결과는 지역별, 취업 여부별, 자녀 연령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사교육 비율

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 교육시설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상태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사적 돌봄 조력자의 의존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의존적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의존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비 지출 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볼 수 있다.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적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심층사례연구에서도 익산시 영등2동 사례는 보육 및 교육 투자에 노력하는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공공 보육 교육 이외의 지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감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환경적 압박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유치원 과정에서도 이미 과외 활동이나 가족활동까지 의식해야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이 자녀 양육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는 향후 다가올 초등학교 시기까지 이미 확장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이와 같은 환경적 압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태면에도 일부 자녀양육 경쟁에 가세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도 주목할 사항이다. 익산시 영등2동 부모의 경우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것 이외에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진다면 가족의 제반 환경이 그 아동의 성장환경을 대체로 규정하게 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환경적 압박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최근의 양태만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 규범이 부모의 헌신성을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헌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나 충주시 소태면의 사례나 모두 자녀에 대한 헌신성이 잘 나타나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는 환경적 압박과 부모의 고유한 헌신성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3절 지역추적조사 함의 및 연구 제한점

제1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1. 조사지역 지역환경 및 인구학적 특성 비교

2013년 1차 지역추적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북구 정릉3동은 구릉지 지형으로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과 빌라·연립주택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은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산업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74.4%로 높은 수준이고, 65세 인구의 비율이 14.9%로 나타나 지역으로 인구의 자연증가는 적은 지역이다(표 5-1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중소도시 대규모 아파트 지역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많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69.5%이고, 0~14세 아동의 비율이 25.2%이며,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산지가 많고 리·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종사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 개개인의 농가운영형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는 0~14세 비율이 7.4%로 매우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33.1%로 초고령화 지역이다.

〈표 5-1〉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가구수,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지리적 특성 ¹⁾			
지형 및 주거 형태	구릉지 지형으로 넓은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	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으로 주변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	산지가 많고 라마율이 분산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단독주택
행정 단위	24개 통	24개 통	행정리 21개 (법정리 9개)
산업적 특성 ¹⁾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협화단체수리기타, 제조업(주로 개인농가 운영)
인구 특성(조사지역 동·면)			
총인구수(명)	18,502	16,838	2,064
세대수(가구)	7,889	5,523	942
연령구조(%)			
0~14세	10.7	25.2	7.4
15~64세	74.4	69.5	59.6
65세 이상	14.9	5.3	33.1
인구통태(명)			
출생건수	111	218	8
사망건수	75	41	31
자연증가 건수	36	177	-23

자료: 1) 오영희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사지역의 정책 추진환경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비교

2014년 2차 지역추적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환경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성북구가 30.5%, 익산시 20.7%, 충주시 18.8%로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았다(표 5-2 참조). 그러나 해당 광역 시·도 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원조달구조가 모두 취약한 수준

이다(오영희 외, 2014). 한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예산규모로 살펴보면 성북구(4,185억원)가 익산시(7,341억원), 충주시(5,980억원)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익산시(2,605억원)가 성북구(2,142억원), 충주시(1,663억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출생아수, 노인인구수 등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주 수혜계층의 많고 적음이 반영된 것으로, 익산시는 노인인구수가 3개 조사지역 중 중위에 해당하지만,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대책의 영향이 세출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인구 현황을 비교하면 총인구수는 성북구가 464천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03천명, 충주시 207천명의 순이다. 보건복지서비스의 잠재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연령구성 비율을 보면, 0~5세와 6~18세 연령층은 익산시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49세 여성인구 비율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충주시가 가장 높다,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분포도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현황으로 파악하였으며, 주요시설별 1개소당 이용가능자수(잠재적 서비스 대상 인구)로 비교하면, 어린이집은 익산시가 가장 낮아 시설수용성은 높은 수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충주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기준의 경로당 잠재수용성은 익산시와 충주시가 비슷한 수준이며, 보건(지)소 등, 소아청소년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잠재수용성도 중소도시인 익산시와 충주시가 비슷한 수준이다. 대도시지역인 성북구의 경우 광역시 내의 이동이 용이하여 의료기관당 인원수가 높아도 접근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조사지역의 정책추진 환경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단위: 억원, 개, 명, %, 개소)

구분	서울 성북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정책추진 환경 ¹⁾			
재정자립도(2013년)	30.5	20.7	18.8
일반회계 세입예산(2014년, 억원)	4,185	7,341	5,980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14년, 억원)	2,142	2,605	1,663
지자체 자체재원에 의한 독자적 사업수(2014년)			
저출산분야	21개	10개	5개
고령사회분야	15개	8개	20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 특성(2014년) ²⁾			
총인구수	464,357	303,246	207,079
0~5세 인구수	23,124	15,486	9,633
(비율)	(5.0)	(5.1)	(4.7)
6~18세 인구수	58,205	45,876	29,529
(비율)	(12.5)	(15.1)	(14.3)
15~49세 여성	123,719	72,065	47,331
(비율)	(26.6)	(23.8)	(22.9)
65세 이상 인구수	59,216	44,128	32,719
(비율)	(12.8)	(14.6)	(15.8)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내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수(2014년) ³⁾			
어린이집	331	269	128
(시설 1개소당 0~5세 인구수)	(70)	(58)	(75)
지역아동센터	33	46	36
(시설 1개소당 6~18세 인구수)	(701)	(337)	(268)
경로당	152	651	529
(시설 1개소당 65세 이상 인구수)	(390)	(68)	(6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2	40	30
(시설 1개소당 65세 이상 인구수)	(29,608)	(1,103)	(1,091)
소아청소년과	13	9	4
(시설 1개소당 0~18세 인구수)	(6,256)	(6,818)	(9,790)
산부인과	14	11	9
(시설 1개소당 15~49세 여성 인구수)	(8,837)	(6,551)	(5,259)

자료: 1) 오영희 외(20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정릉3동·영등2동·소래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3)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내부자료임.

3. 조사응답가구 특성 비교

조사지역별 가구조사 결과에 따른 비교분석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50.0%, 익산시 영등2동 80.7%)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22.3%)은 낮은 수준이다.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5.5세, 익산시 영등2동 29.8세, 충주시 소태면 58.9세로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다(표 5-3 참조).

가구 경제수준을 비교하면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41.3%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0.0%, 충주시 소태면은 60.3%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 50.6%, 익산시 영등2동 17.5%, 충주시 소태면은 69.7%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익산시 영등2동(16.9%)이 충주시 소태면(33.4%), 성북구 정릉3동(6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50.7%이고,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 자가소유율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다.

〈표 5-3〉 조사지역별 응답가구 특성 비교

(단위: %, 억원, 명, 세,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			
자녀동거가구 비율	50.0	80.7	22.3
동거 가구원수(평균, 명)	2.6	3.4	2.2
동거가구원 연령(평균, 세)	45.5	29.8	58.0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소득종류별 소득원			
근로소득률	71.0	78.2	30.3
사업소득률	22.0	26.5	75.3
월평균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41.3	10.0	60.3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200만원 미만)	50.6	17.5	69.7
주관적 생활수준(낮은 편이다)	64.0	16.9	33.4
주택 소유율(자가)	50.7	88.7	75.0
(조사가구 수)	(300)	(301)	(300)

4. 미혼남녀의 특성 비교

〈표 5-4〉에서 조사지역별 미혼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응답자 연령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은 20~24세(61.1%)가 충주시 소태면(19.2%)과 성북구 정릉3동(25.5%) 보다 매우 많고, 성북구 정릉3동은 25~29세 연령층(29.1%)이 더 많다. 성별로는 남자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80.0%로 타 지역(약 55%)보다 높다.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83.3%)과 성북구 정릉3동(80.0%)이 비슷한 수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69.2%이다. 즉 익산시 영등2동은 미혼자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대학 이상 학력의 비율은 더 높고, 취업률(61.1%)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혼지속기간은 3개 지역에서 모두 남자(26.8~33.3년)가 여자(23.9~28.8년)에 비해 더 길며,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26.8년)와 여자(23.9년)

가 모두 가장 짧은 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취업률(80.8%)이 높은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혼응답자의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이 매우 높지만, 사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 5-4〉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특성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미혼응답자의 연령: 20~29세			
20~24세	25.5	61.1	19.2
25~29세	29.1	22.2	19.2
미혼응답자중 남자 비율	56.4	52.8	80.8
미혼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80.0	83.3	69.2
미혼응답자의 취업률	72.7	61.1	80.8
미혼응답자의 미혼지속 기간(년)			
남자	31.2	26.8	33.3
여자	28.8	23.9	24.8
미혼응답자의 결혼의사 있는 비율			
남자	61.5	54.5	94.4
여자	54.5	61.5	100.0
(미혼응답자 수)	(55)	(36)	(26)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상승하였다(표 3-11 참조).

주거독립을 했을 경우에 미혼지속기간이 확실히 높으나 결혼의사에서 는 일관성이 없었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주거독립한 경우 주거독립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사가 낮았으나 익산시 영등2동 남자와 충주시 소태면 남자는 반대로 주거독립을 한 경우에 결혼의사가 높았다(표 3-16 참조).

이성교제는 결혼의사를 높이는 명확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3~2015년 조사 모두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의사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 여자는 교제 상대가 있을 경우 80.0%가 결혼의사가 있었고, 그 외 성북구 정릉3동 남녀, 익산시 영등2동 남자 및 충주시 소태면 남녀 모두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 경우 모두 결혼의사가 있었다(표 3-20 참조).

세 조사지역의 미혼자 모두 건강은 대부분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의 진찰 및 검진 경험이 낮았는데, 만30세 이상 여자에게 제공되는 자궁경부암 검진처럼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다. 대도시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정책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표 3-25 참조).

혼외출산이 2% 정도로 낮게 보고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 저출산 현상 해소로 가는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결혼의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만혼화 및 저출산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결혼 관련 정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특성별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조사 결과를 비교하면(표 5-5 참조), 연령에서 30~39세는 익산시 영등2동(46.9%)이 가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35.1%)과 충주

시 소태면(20.6%)의 순이고,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64.3%로 성북구 정릉3동(41.9%)과 충주시 소태면(20.6%)보다 훨씬 더 높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충주시 소태면(82.4%)이 타 지역(성북구 정릉3동 62.2%, 익산시 영등2동 58.3%)보다 더 높는데, 이는 충주시 소태면의 미혼남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이유와 같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충주시 소태면(23.7세)이 성북구 정릉3동(26.5세)과 익산시 영등2동(26.3세)보다 더 낮았고, 총 임신횟수는 30대 연령층이 많은 익산시 영등2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더 적다. 초혼연령은 가임기간에 영향을 미쳐 출산수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현존자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초혼연령의 영향일 수 있다.

출산방법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전체 임신 중 제왕절개 분만 비율에서 익산시 영등2동 31.9%, 충주시 소태면 17.1%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지역의 특성일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자녀수는 충주시 소태면(2.3명)이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1.8명, 익산시 영등2동 1.9명)에 비하여 더 많고, 이상자녀수(약 2.6명)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2자녀 규범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충족 출산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격차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0.8명, 익산시 영등2동 0.7명, 충주시 소태면 0.4명으로 나타났다.

〈표 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자응답자 연령			
20~29세	5.4	3.4	11.8
30~39세	35.1	46.9	20.6
기혼여자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41.9	64.3	20.6
기혼여자응답자의 취업률	62.2	58.3	82.4
초혼연령(평균, 세)	26.5	26.3	23.7
총임신헌수(평균, 회)	2.6	2.3	2.6
출산방법(제왕절개 분만율)	40.8	31.9	17.1
현존자녀수(평균, 명)	1.8	1.9	2.3
이상자녀수(평균, 명)	2.6	2.6	2.7
향후 추가출산 계획 있는 비율	17.2	11.5	6.3
초등 3학년 이하 자녀 있는 비율	45.9	51.9	41.2
보육·교육 이용서비스수(건)			
어린이집	31	37	6
유치원	7	49	8
학원	20	81	1
월평균 양육비용(평균, 만원)	81.9	120.1	38.3
부모지원 비율(양가 부모)	77~86	94~96	50~63
현거주지역 지역인프라 공급적정성(점)	1.7~2.7	1.4~3.0	1.6~2.2
현거주지역 양육에 좋은 환경(점)	2.9	4.0	2.8
현거주지역 양육 안전성(점)	2.9	3.7	3.8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보건소	27.0	25.1	52.9
산부인과	40.5	54.0	29.4
소아과	56.8	71.5	38.2
어린이집	41.9	29.4	29.4
(기혼여성응답자 수)	(74)	(235)	(34)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은 기혼여성의 연령이 적고 현존자녀수가 적은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17.2%, 익산시 영등2동 11.5%)이 충주시 소태면(6.3%) 보다 더 높다. 따라서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은 출산육구 미충족 상태가 더 심각하고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반면 소태면은 출산육구 충족 정도가 높고 출산을 조기에 종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자녀 양육 실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51.9%)이 타 지역에 비하여 더 높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원 이용정도는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학원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 동원하는 기관이용 이외의 돌봄 자원 이용실태를 보면, 민간시장 자원(베이비시터)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1가구에 불과하였다. 그 외는 친가 또는 외가 조부모와 기타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표 4-17 참조). 이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교육 기관 이외의 자원동원에서 친인척 등 가족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비용은 가구소득과 연계되어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표 3-43 참조). 성북구 정릉3동에서 1명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46만원이었고, 익산시 영등2동은 76만 5천원, 충주시 소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이었는데, 자녀 양육비 지출 규모도 이와 같은 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살펴보아도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자녀 1명일 때에 비해서 자녀가 3명일 때 145만 8천원을 더 지출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29만 7천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보다 자녀 3명일 때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충주시 소태면 가구에 비해서 116만 1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가족에서 세대 간 자원의 교환관계에서 지역별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은 80%대를 나타내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50%대로 나타났다(표 3-48 참조). 부모와의 동거 비율을 함께 살펴보면(표 3-47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동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부모 지원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모동거율이 높은 편이고, 자원 교환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프라 공급, 자녀 양육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보육 및 보건의료시설 등의 전체 공급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이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 환경이 좋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에 안전한 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이용에서 익산시 영등2동은 산부인과(54.0%), 소아과(71.5%)이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성북구 정릉3동(41.9%), 보건소 이용률은 충주시 소태면(54.3%)이 가장 높았다.

6. 조사응답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표 5-6〉에서 조사지역별 50세 이상 중고령자 특성을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52.0%)과 익산시 영등2동(41.0%)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61.9%)이 높다.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율은 77.8%로 가장 높고, 충주시 소태면의 유배우율(72.9%)은 성북구 정릉3동(68.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교 이상)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43.9%), 익산시 영등2동(52.2%)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21.2%)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업률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약 47%)보다 충주시 소태면(74.2%)이 높는데, 이는 미혼자조사나 기혼여성조사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상이다.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공적연금 가입률로 비교하면, 50대가 많은 익산시 영등2동 62.3%, 성북구 정릉3동이 40.6%, 충주시 소태면 29.5%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인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35.9%)이거나, 영양관리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49.5%)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자의 평균 자녀수는 충주시 소태면이 3.4명이고, 익산시 영등2동 2.7명, 성북구 정릉3동 2.3명이다. 자녀동거 비율은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동일한 경향으로 도시지역(49.1%, 44.0%)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24.5%)에서 낮은 수준이며, 최소 1명의 자녀가 동일 동·읍·면에 거주하는 비율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별거 자녀와의 왕래빈도(주 1회 이상)에서도 도시지역은 약 40%인 데 반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23.6%로 지리적 거리가 왕래의 빈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락빈도는 접촉빈도에 비해서 지역별 차이가 적다.

종합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8.6명, 익산시 영등2동은 22.5명, 충주시 소태면은 19.8명으로 대도시지역의 중고령자가 가장 적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의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비교하면, 경로당 이용률과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등)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80.9%, 70.7%)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회 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관, 여가문화 시설 및 센터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현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익산시 영등2동(91.2%)이 가장 높고, 거주지역 친밀도는 충주시 소태면(11.8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농촌지역의 부부가구가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 많았는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 모두 80세가 넘거나(6.3%),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17.5%)에 신체적 독립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중 최소 1인의 교육수준이 초 등 이하일 경우(40.8%) 정보습득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에서 2개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50~64세 연령층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도 연령에 상응하여 더 높다.

전반적으로 50대 연령층의 비율과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정기적 운동실천율,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율 등이 더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표 5-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연령(65세 이상 노인 비율)	52.0	41.0	61.9
중고령자의 유배우율	68.4	77.8	72.9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비율)	43.9	52.2	21.2
중고령자의 취업률	47.1	47.9	74.2
공적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40.6	62.3	29.5
개인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8.8	24.8	7.2
중고령자의 자녀수(평균, 명)	2.3	2.7	3.4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 비율	49.1	44.0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5.3	14.7	0.4
별거 자녀와 왕래 빈도(1주 1회 이상)	43.6	40.4	23.6
별거 자녀와 연락 빈도(1일 1회 이상)	14.3	20.4	19.8
사회적 관계망 크기(종합: 명)	18.6	22.5	19.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29.8	18.4	35.9
흡연율	16.1	11.4	14.3
과음주율(1주 8잔 이상)	17.5	18.4	17.1
정기적 운동실천율	45.0	63.2	14.3
영양관리 주의/개선 요구 비율	36.3	14.9	49.5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 이용경험률			
경로당 이용경험률(65세 이상)	5.7	33.3	80.9
노인복지관 이용경험률(65세 이상)	5.7	4.4	1.0
각종복지관 이용률	4.4	-	0.2
공공 여가문화시설	5.8	8.0	3.8
민간 여가문화센터	12.9	6.2	0.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률	37.7	27.4	70.7
병(의)원	96.2	83.2	86.3
현 거주지역이 (매우)만족하다는 비율	74.2	91.2	70.0
거주지역 친밀도(15점 기준)	8.7	9.0	11.8
(중고령자 응답자수)	(348)	(117)	(484)
연령: 부부 모두 후기(80세 이상)	0.9	2.2	6.3
교육수준: 부부중 1인 초등 이하	10.7	17.8	40.8
공적연금: 부부 모두 미가입	30.0	16.5	47.6
개인연금: 부부 모두 미가입	85.7	65.0	88.2
건강: 부부 모두 건강이 나쁨	9.7	2.9	17.5
(유배우 중고령자 응답자수)	(238)	(91)	(353)

7. 연령계층별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비교

〈표 5-7〉은 2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응답자의 주요 항목별 노후준비율을 성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49세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공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이 부동산과 저축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공적연금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 외의 수단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익산시 영등2동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개인연금(성북구 정릉3동)과 저축(익산시 영등2동)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의 준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이 92.1%로 매우 높았다.

50~64세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을 제외하면 공적연금 가입률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과 저축 부분은 20~49세와 동일하게 충주시 소태면에서 준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공적연금 개인연금기업퇴직연금의 준비율은 모두 남자에서 높았고, 부동산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만 배우자보다 준비율이 높았고, 저축은 성북구 정릉3동만 기혼여성이 배우자보다 준비율이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는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동산 및 저축이 다른 노후준비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두 지역은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상 기업퇴직연금의 적용시기와 매칭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 남자의 준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개인연금과 부동산은 여자가 다소 높았다.

〈표 5-7〉 20~49세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주요 항목별 노후준비율 비교

(단위: %)

구분	20~49세 기혼여성			20~49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54.1	50.2	26.5	78.6	92.1	57.1
개인연금	28.4	40.0	20.6	21.4	40.5	23.8
기업퇴직연금	8.1	10.6	2.9	12.5	34.9	-
부동산	1.4	4.7	14.7	8.9	7.4	38.1
저축	12.2	18.3	23.5	12.5	18.6	42.9
(대상자수)	(74)	(235)	(34)	(56)	(215)	(21)
구분	50~64세 여자			50~64세 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34.7	62.1	29.6	73.5	82.5	57.8
개인연금	15.3	28.6 ⁴⁾	13.3	17.6	42.5	14.5
기업퇴직연금	2.0	-	-	7.4	15.0	-
부동산	11.2	6.9	30.6	27.9	20.0	28.9
저축	11.2	31.0	32.7	19.1	20.0	27.7
(대상자수)	(98)	(29)	(98)	(68)	(40)	(83)
구분	6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17.9	26.9	8.7	48.4	57.9	37.5
개인연금	1.8	7.7	2.3	1.6	5.3	4.2
기업퇴직연금	-	-	-	-	-	-
부동산	13.4	11.5	16.2	18.8	10.5	42.5
저축	7.1	15.4	16.8	18.8	15.8	38.3
(대상자수)	(112)	(26)	(173)	(64)	(19)	(120)

주: 1) 항목별 노후 준비율은 전체 응답 중 각 항목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49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는 49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함.

3) 50~64세, 65세 이상은 중고령자 조사표의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지역별·연령군별·성별로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역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부동산과 저축의 경우에는 50~64세의 준비율이 가장 높았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적연금의 경우 50~64세 여자가, 부동산은 65세 이상 여자가, 저축은 50~64세가 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과 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50~64세는 개인연금과 부동산, 저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여자는 개인연금과 퇴직금은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율이 높았고, 공적연금과 부동산, 저축은 50~64세의 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았고, 65세 이상은 부동산과 저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특성상 기업퇴직연금 가입은 어느 계층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8. 지역추적조사 1~3차 조사결과의 가구원 변동 현황

2013년 1차 조사와 2015년 3차 조사 결과에서 조사지역 응답가구의 전체가구원 변동 현황을 <표 5-8>에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가구원수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하여 조금 증가한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약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가구원 중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탈락과 진입 등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1%포인트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5~24세, 35~44세, 45~54세 연령층이 감소하였으며 55~64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이 각각 약 2%포인트 증가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 및 14세 이하 가구원이 약 1%포인트 감소하였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차이 없이 1%포인트 이하 증감의 수준이고, 취업상태는 취업자가 약간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3차년도 가구조사 결과에서 가구원의 특성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지역추적조사 1~3차년도 가구변동에 따른 가구원 일반특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5년 조사 결과			2014년 조사 결과	2013년 조사 결과
	소계	원표본가구원	2~3차 신규진입		
조사지역					
성북구 정릉3동	31.4	29.2	39.4	32.6	32.5
익산시 영등2동	42.0	39.5	50.9	41.4	41.1
충주시 소태면	26.6	31.3	9.7	26.0	26.4
성별					
남자	47.7	47.5	48.3	48.3	48.7
여자	52.3	52.7	51.7	51.7	51.3
연령					
14세 이하	19.1	18.6	22.6	20.8	20.2
15~24세	8.7	8.9	8.2	7.7	9.0
25~34세	8.6	7.3	13.2	10.3	9.6
35~44세	15.5	14.8	18.1	17.0	17.3
45~54세	13.6	14.5	10.4	13.6	14.1
55~64세	12.7	13.0	11.6	10.9	10.6
65세 이상	21.9	22.8	15.9	19.7	19.2
혼인상태					
미혼	14.4	14.9	12.9	13.0	15.0
유배우(기혼)	54.6	54.9	53.4	55.4	54.3
무배우(기혼)	11.9	12.1	11.2	10.8	10.5
비해당(14세 이하)	19.1	18.1	22.6	20.8	20.1
교육수준					
미취학	7.0	6.0	10.6	9.1	8.2
초등학교 이하	26.9	28.4	21.3	26.2	26.3
중학교	13.2	13.8	11.2	12.9	12.9
고등학교	26.4	26.6	25.6	25.4	26.7
대학 이상	26.5	25.2	31.3	26.3	25.9
취업 여부					
예(취업)	51.8	53.4	46.1	49.6	49.4
아니오	29.1	28.5	31.3	29.6	30.5
비해당(14세 이하)	19.1	18.16	22.6	20.8	20.1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67)	(1,931)	(536)	(2,511)	(2,571)

주: 1) 지역추적조사 조사완료 가구의 동거가구원에 대한 분석임. 원표본유지는 2013년(1차)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이고, 신규진입은 2014년과 2015년에 신규로 조사된 가구원임.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에서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인구 집단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노인 인구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이 각각 반영된 수준이고 수급상 불균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역내 자원분포는 조사지역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림현상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읍·면지역은 시설보육에 애로를 겪거나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전 연령층의 인구가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읍·면단위 경로당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린이집, 경로당으로부터 각각 2km Buffer(도보 30분 거리)를 생성하여 조사지역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겹쳐지는지 살펴본 결과, 충주시 소태면의 어린이들은 보육시설 이용 선택권이 현격하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취약지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나 인근 읍·면 어린이

집의 차량 운행비 지원을 통한 등하원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보육 및 보건의료시설 등의 전체 공급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 환경이 좋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고령자 조사에서 현 거주지역에 (매우)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익산시 영등2동이 9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북구 정릉3동(74.2%), 충주시 소태면(7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역적인 개별특성도 존재하겠지만,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시설자원이 충분하게 분포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주지역 친밀도에서는 충주시 소태면(11.8점)이 익산시 영등2동(9.0점), 성북구 정릉3동(8.7점)에 비해 약 3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는 거주지역 만족정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로서 필요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결국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미혼남녀의 독립 및 가족형성 지원 정책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조사와 심층 사례연구는 이성교제, 결혼 및 독립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형성과 관련한 문제

에서 현재 미혼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는 고용 안정의 문제, 독립과 혼인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관한 것이었다. 세 지역의 미혼자들은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인 요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생애사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직장”과 “집”이라는 두 요인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청년 세대의 미래 설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계가 불투명하다면 혼인과 출산으로 안전하게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파악된다. 혼인과 출산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책무는 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기 삶을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20.5%에서 2015년 20.8%로 다소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5).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강화와 자기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심층면접 1명의 사례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그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 다양화되고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지원 대책 또한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정책의 체감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규모는 2015년 기준 2만 5천호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혼인이 30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 특별 공급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형성 초기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정보육 인프라 확산과 방과후 교실 확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족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대체로 사회화되지 않고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보육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돌봄 문제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관 보육 교육의 욕구는 대체로 충족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기관 미이용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10~20만원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 급여 이외의 돌봄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관이용 이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취업모의 경우는 조부모와 같은 사적 돌봄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미미하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또는 돌봄 자원의 동원가능성에 따라서 돌봄 기회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정의 기본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 양육 부모 및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또는 돌봄 조력자가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정책 사례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

고 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이 시간의 돌봄 공백은 곧 사교육으로 이어지거나 아동의 방임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결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초등학교 돌봄시간이 매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 거주 기혼여성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제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화된 수단들을 통해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3개 지역마다 조금씩 경향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활용인 듯하다. 그러나 가입률에 있어서는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가입유인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지역에서 부동산을 통한 노후준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생계수단이 농업이기 때문에 기업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부동산을 통한 농지연금 등의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의 가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저축의 활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연금 등 국가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보완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각 항목별 노후준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여자 노인의 빈곤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가 요구되고, 노인의 경우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현재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적절하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 항목별 노후준비율이 높거나 고르게 분포한 50~64세의 경우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한 노후준비율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연구 제한점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는 2013년도 기초표본가구를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5년 3차년도까지 저출산 및 고령사회분야의 기초조사는 3회 실시되었고, 2014년도에는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2015년도에는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기혼여성의 양육행태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가 각각 1회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종단적 조사방법으로써 지역단위 사례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양적분석은 5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패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자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의 50세 이상 전체가 개인조사대상으로 응답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으나, 미혼자 및 기혼여성 응답자 수는 조사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로 빈도분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안의 제시보다는 조사지역의 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초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특성, 계층 또는 지역 특성

을 반영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고 소규모 표집집단을 재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심층사례면접으로 질적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정책과제의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혼 및 출산 행태, 노화 현상으로의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생태학적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 개인 삶의 변화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의 매커니즘을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사례연구 방법의 수정·보완으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선도적 주제의 탐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9 참조).

〈표 5-9〉 향후 지역추적조사 심층사례연구의 수정·보완 방안(안)

구분	기존 질적자료 수집방법(1안)	질적자료 수집방법의 수정·보완(2안)
연구 비중	- 양적·질적 연구의 비중이 거의 동등	-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의 비중 확대
연구 순차	- 양적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면접 실시 - 양적자료와 질적자료의 수집시기가 거의 동시적 실시	- 순차적 질적자료 수집으로 1년에 2회 이상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관찰 또는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연구 주제	- 격년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 선정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 가능 [예시] ·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 미혼자의 결혼 의향, 기혼여성의 양육행태 ·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행태 ·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 연구대상과 중점탐구 주제의 선정 필요 - 질적 추적조사 가능 [예시] · 미혼의 데이팅부터 결혼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 부부의 출산 결정과정과 영향요인 파악 ·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인 자녀양육 패턴 이해 · 고령자의 기능상태 저하 과정 · 고령자의 퇴직과정이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과정
장단점	- 단순화·수량화된 응답의 한계 보완 - 연구자가 현장을 한번 정도 방문함으로써 시간, 예산 등이 절감 - 인터뷰 대상자가 매년 변경되어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제한적	- 조사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 등을 동태적 차원으로 파악 - 연구자가 현장을 여러번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연구진 수, 소요예산) 등 추가 필요

한편 지역추적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 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가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구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78.1%이고, 개인조사에서 중고령자의 표본유지율은 84.3%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혼자 및 기혼여성 개인조사의 경우 표본유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표본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비표본오차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문항의 경우 연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표의 설계 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등으로 면접자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지역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communitiy)에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표본가구 또는 개인을 전국으로 추적하는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고 지역표본(동·읍·면)에 대한 추적조사로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정책 과제 발굴이나 생애주기 상의 급변하는 단계(결혼 및 출산, 은퇴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 강은나·이민홍. (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2), pp.133~160.
- 강현철·김기영. (1994).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통계상담, 9(2), pp.1~7.
- 김영범·박준. (2006). 노인의 사회연계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비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6(2), pp.261~273.
- 김은설·도남희. (2012).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6), pp.73~88.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pp.57~70.
- 류기철·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pp.5~25.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정도. 한국사회학, 34(3), pp.621~647.
- 박다은·유계숙.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pp.29~65.
- 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 (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93호(2015-25).
- 반승원·전범수. (2011).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결혼관 및 배우자 선택 차이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6, pp.244~269.
-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pp.35~64.

- 오영희·정경희·이삼식·이소영·오신휘·임지영·김경래·송리라. (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정경희·이소영·오신휘·김경래·임지영. (20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가효. (2007). 해방 이후 혼전 교제와 배우자 선택 과정의 변화. 한국학논집, 34, pp.319~346.
-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pp.75~101.
- 윤자영. (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pp. 159~184.
- 윤홍식. (2010).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사회과학연구, 26(1), pp.1~25.
- 은기수.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보건복지 포럼, 2005년 4월호.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5~140.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pp.39~71.
- 이소정·정경희·손병돈·이미숙·홍백의·이은진.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 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현주·이대균. (2013). 가구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기 본생활습관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pp.1~25.
- 정경희. (1995).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pp.52~68.
- 정경희 외.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상설·홍경준. (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9(3), pp.29~57.
- 통계청. (2014). 2013 생명표 보도자료.
- _____. (2015). 2014년 출생통계(확정).
- _____.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_____. (각 년도). e-지방지표.

_____. (2015).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11. 4.(수) 12:00

_____. (2015). 요양기관현황(<http://kosis.kr>.)

Antonucci, T. C. (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R. 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94~128, NY.

Campbell, Marsden and Hurbert(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Vol.8

Cantor, M. H. and Little, V. (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Binstock, R.H. and Shanna, 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pp.745~780.

Gronovetter (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 Mars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Kimball (1982). *Factors influencing married people in the decision to
have children or remain childfree*. Anne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291. (No. 82-14745)

Lin, 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P.
Mars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pp.131~146.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ru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twin. H. L., Sinovitz-Ezra, S. (2006). Network type and mortality risk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6(6), pp.735~743.

- Moore, C. (1990). "Structural Determinants of Ma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55, pp.726~735.
- Moren-Cross and Lin (2006).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Binstock, R.H. and George, L.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 Edition), NY., pp.111~126.
- Mueller, K. A & Yoder, J. D. (1999). *Stigmatization of non-normative family size status. Sex Roles*, 41(11/12), pp.901~919.
- South, S. J. (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pp.606~626.
- South, S. J. (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pp.606~626.
- Unger, J. B. & Molina, G. B. (1999). Educational differences in desired family size and attitudes toward childbearing in Latine women. *Population and Environment: 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20(4), pp.343~351.

[부록] 2015년 조사표(4종)

1. 가구 조사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3차)
가구조사표

조사표 종류	조사연도	가구표본 ID						가구내 미혼자 원료수	가구내 기혼여성 원료수	가구내 종교령자 원료수
		가구 생성자수		가구 ID		가구분리번호				
		원 가 구 01 2014 신규가구 02 2015 신규가구 03					분 가 구 00 첫번째 분리가구 01 두번째 분리가구 02			
1	2015	0					0			

주소지	사군구 번호					사군구 내 원료 가구조사 일련번호			
	상세 주소	사도 _____ 구사군 _____ 읍면 _____, _____ 동 _____ 호 (_____ 동, _____ 아파트) (_____ 통·리)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 호		성명		가구원 번 호	
	연락처				연락처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 방문 횟수	총 회
1차방문	___월 ___일	① 오전 ___시 ___분 ② 오후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 미완사유 코드
2차방문	___월 ___일	① 오전 ___시 ___분 ② 오후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⑩ 비제약(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 출타 ⑤ 부재중(원인 비제약)
3차방문	___월 ___일	① 오전 ___시 ___분 ② 오후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④ 일부 문항 미응
최종방문	___월 ___일	① 오전 ___시 ___분 ② 오후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⑤ 조사거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지도원	(인)
-----------	--	-----------	-----------	--------------	-----	-----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 044-287-8355)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일반가구의 생활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3개 지역에서 각각 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 번째 조사입니다.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조사 결과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상 호

II. 가구 경제상태

■문1. 귀택의 **작년 한 해(2014.1.1.~2014.12.31.)**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과 부동산 등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의 기타지출은 제외함)

천원	백원	십원	원

□문1-1. 생활비 중 **귀택에서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을 순서대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지출 항목	
(0) 없음	
(1)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분유, 외식비 등)	
(2) 주거비(주택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수도비 등)	
(3) 교육비(보육비 포함)	
(4)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5) 교통비
(6)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7) 경조비	(8) 부채 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9) 기타()	

1) 첫 번째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_____	<table border="1"><tr><td>백원</td><td>십원</td><td>원</td></tr><tr><td></td><td></td><td></td></tr></table>	백원	십원	원				만원
백원	십원	원												
2) 두 번째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_____	<table border="1"><tr><td>백원</td><td>십원</td><td>원</td></tr><tr><td></td><td></td><td></td></tr></table>	백원	십원	원				만원
백원	십원	원												
3) 세 번째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_____	<table border="1"><tr><td>백원</td><td>십원</td><td>원</td></tr><tr><td></td><td></td><td></td></tr></table>	백원	십원	원				만원
백원	십원	원												

■문2. 귀택의 **작년 한 해(2014.1.1.~2014.12.31.)**의 소득항목별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연간 총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한 해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에게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 종류	소득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연간 소득 금액																
문2-1. 근로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2. 사업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3. 재산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4. 사적 이전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5. 공적 이전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6. 기타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7. 총소득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r><td>십억</td><td>억</td><td>천만</td><td>백만</td><td>십만</td><td>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문3. 귀택은 언제부터 현재까지(동·읍·면 기준)에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3

--	--	--	--

년

--	--	--	--

월

■문4. 귀택은 자가(명의 기준)입니까? 전·월세입니까?

(1) 자가 (2) 전세 (3) 월세(반전세 포함) (4) 기타() 기타: _____

□문4-1. 귀택에는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1

--	--	--	--

25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문4-2. 거주 주택 또는 소유 주택의 가격

1) (거주+소유 주택) 집의 시가는 얼마입니까?

4-2-1) 자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2) (전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4-2-2) 전세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3) (월세/기타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4-2-3)-① 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4-2-3)-② 월세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 문5.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 문6.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입니까?

6 ☐

(1) 예 (2) 아니요

Ⅲ. 가구원 변동사항

(※ 조사원: 2013~2014년 기준 표본가구만 질문하십시오)

■ 문1. 귀댁은 작년 가구조사 방문(2014년 4~5월) 이후에 동거가구원 중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1 ☐

(1) 예 → ()명 (2) 아니요(변동 사항 없음) → (조사원 확인 사항으로)

1-1) ☐

□문1-1. 신규가구원	□문1-2. 분가가구원	□문1-3. 사망가구원
☐ 명	☐ 명	☐ 명

구분	□문1-1-1. 신규 가구원			□문1-2-1. 분가 가구원				□문1-3-1. 사망 가구원		
	성명	원가구 가구원번호	신규 형태	성명	원가구 가구원번호	분가 형태	거주 지역	성명	원가구 가구원번호	사망 원인
1)										
2)										
3)										

【보기】 가구원 변동 이유 및 거주 지역

신규형태	(1) 출생	(2) 입양	(3) 결혼	(4) 합가	(5) 기타
분가형태	(1) 결혼	(2) 이혼별거	(3) 위임·직강	(4) 기타 경제적 여건	(5) 기타
거주지역	(1) 동일 동·읍·면 내	(2) 동일 사군·구 내	(3) 타 사군·구	(4) 타 시도	(5) 기타
사망원인	(1) 질병	(2) 교통사고	(3) 직장내 사고	(4) 자연사(노화)	(5) 기타

□문1-2-1-1. 분가 가구원의 거주지 주소를 알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구분	분가 가구원 상세 주소
1) 주소	_____사도 _____구사군 _____읍면 _____,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 ☎ () _____ - _____
2) 주소	_____사도 _____구사군 _____읍면 _____,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 ☎ () _____ - _____
3) 주소	_____사도 _____구사군 _____읍면 _____,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 ☎ () _____ - _____

■ 조사원 확인사항	
1.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빌라) (5) 상가주택 (6) 오피스텔 (7) 기타	조사원 확인 1 ☐
2. 주거위치는 어디입니까? (1) 지하 (2) 반지하 (3) 지상 (4) 옥탑	조사원 확인 2 ☐

※ 조사원: 향후 추적조사에 필요한 응답가구 특이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조사 협조 정도:
◇ 조사표에 대한 이해 정도:
◇ 가구원 개명(이름 변경) 관련 사항:
◇ 기타 사항: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미혼자 조사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3차)
미혼자(만 20~49세) 조사표

조사표 종류	조사연도	개인표본 ID								가구내 미혼자 조사번호	
		가구 생성차수 원 가 구 01 2014 신생가구 02 2015 신생가구 03	가구 ID			가구분리번호 원 가 구 00 신생배 분리가구 01 분리배 분리가구 02	가구원 번호 원가구 가구원 번호				
2	2015	0						0			

주소지	시군구 번호					시군구 내 원로 가구조사 일련번호			
	상세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 _____, _____ 동 _____ 호 (_____ 동, _____ 아파트) (_____ 통·리)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응답자 부모	
	성명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부)	가구원 번호 (모)
	연락처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 방문 횟수	총 회
1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미완사유 코드
2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⑩ 비태양(관외) ① 늦은 귀가
3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② 장기 출타
최종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③ 부재중(원인 비파악) ④ 일부 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 기재)	지도원	(인)
-----------	--	-----------	-------------------------	-----	-----

〈문의 및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 044-287-8355)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일반가구의 생활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3개 지역에서 각각 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 번째 조사입니다.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상 호

I. 사회경제적 특성

A. 학력

■ 문1. 귀하의 학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문1-1. 입학 연도 및 월	문1-2. 졸업 연도 및 월 (학위 취득 기준) ※ 현재 재학중인 경우 '7777년 77월'로 표기해 주십시오.	문1-3. 동일 학교급 내에서 기간이 길어진 가장 주된 이유	문1-4. 이전 학력과의 간격이 생긴 가장 주된 이유
			① 재수 이상 ③ 건강상의 이유 ⑤ 취업 준비 ⑦ 기타()	② 군복무 ④ 경제적 이유 ⑥ 학교를 다시 다님 ⑧ 비해당
1) 고등학교	년 월	년 월		
2) 대학(교) (※ 2~3년제 대학 포함)	년 월	년 월		
3) 대학원 (석사과정)	년 월	년 월		
4) 대학원 (박사과정)	년 월	년 월		

(※ 동일 학교급(예시: 2년제 졸업 후 4년제 간 경우 등)을 2개 이상 다닌 경우에는 처음 학교의 입학 연도 및 월과 마지막 학교의 졸업 연도 및 월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2. 귀하께서는 앞으로 상위 학교로 진학할 계획이십니까?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1) 예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A2 ☐

B. 직업력

■ 문1. 최근 3년 내에(2012.7.~2015.6.) 취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한 달 이상 근무한 직장**에 한해서 취업 경험으로 간주하여 응답해주시시오)

(1) 예 (2) 아니요 →(영역C로) B1 ☐

※ 아래의 <표>는 귀하의 직업이력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3년 내의 직업이력에 대해 최근 순으로 5개 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직장을 이동하여 직종이 바뀌었거나, 같은 회사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나 직장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으로 판단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문2. 최근 3년 동안(2012.5.~2015.6.) 귀하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 현재 직업부터 작성하여 주십시오. B2 회

구분		가) 첫 번째(현재 기준)		나) 두 번째	
문2-1. 경제활동 참여 시작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문2-2. 종사상 지위	① 자영업자(1인) ② 사업주/고용주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	
	① 판매자 ② 원천 및 판매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가정원 및 판매·가정 종사자 ⑧ 장차기계획 조사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상부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		□	
문2-3. 직업 (직종)		□		□	
문2-3-1. 직장유형		□		□	
① 일반회사(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문2-3-2로)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포함) ⑤ 기타 → (문2-4로)		□		□	
문2-3-2. 직장규모		□		□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⑪ 모르겠음 99. 비해당		□		□	
문2-4. 월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보세후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한원		□□□□□□한원	
문2-5. 평상시 출퇴근 총 소요시간(1일 통복시간)		□□□□시간 □□분		□□□□시간 □□분	
문2-6. 평균 1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시간	
문2-7.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공적연금 ① 앞술 ② 국민연금 ③ 공무원연금 ④ 군인연금 ⑤ 모름	□		□	
	2) 건강보험 ① 예 ② 아니오	□		□	
	3) 산재보험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④ 비해당	□		□	
	4) 고용보험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④ 비해당	□		□	
문2-8. 경제활동 중단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문2-8-1. 경제활동 중단 (이직)의 가장 주된 이유		□		□	
① 결혼(재정) ② 가사(집안일) ③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창업해서 ④ 건강 때문에 ⑤ 수입이 너무 적어서 ⑥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복식, 시설 등) ⑦ 거리가 멀어서 ⑧ 진학 또는 학업 ⑨ 회사와 파산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⑩ 가족이 반대해서 ⑪ 장래성이 없어서 ⑫ 계약이 만료되어 ⑬ 기타(무엇:) 99. 비해당		□		□	

26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문2. 계속

구분		다) 세 번째	라) 네 번째	마) 다섯 번째	
문2-1. 경제활동 참여 시작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2. 종사상 지위	① 자영업자(1인) ② 사업주/고용주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투글가족종사자 ⑦ 기타				
문2-3. 직업 (직종)	① 판매자 ②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술직 및 관련 기술 종사자 ⑧ 정작·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문2-3-1. 직종유형	① 일반회사(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문2-3-2로) ②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재투자기관 ③ 외국기업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포함) ⑤ 기타 → (문2-4로)				
문2-3-2. 직종규모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⑪ 포트폴리오 99. 비해당				
문2-4. 월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세후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원	만원	만원	
문2-5. 평상시 출퇴근 총 소요시간(1일 왕복시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문2-6. 평균 1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시간	시간	
문2-7.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공적연금	① 없음 ① 국민연금 ② 사학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③ 모름			
	2) 건강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3) 산재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③ 비해당			
	4) 고용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③ 비해당			
문2-8. 경제활동 중단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8-1. 경제활동 중단 (이적)의 가장 주된 이유	① 결혼(이적) ② 가사(집안일) ③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장일해서 ④ 건강 때문에 ⑤ 수입이 너무 적어서 ⑥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복직, 시설 등) ⑦ 가정이 떨어져서 ⑧ 전학 또는 학업 ⑨ 회사의 파산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⑩ 가족이 반대해서 ⑪ 장래성이 없어서 ⑫ 재력이 만료되어 ⑬ 기타(무엇:) 99. 비해당				

II. 인구동태사항

C. 주거상황 및 독립

C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독립: 경제적 독립과 상관없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인 주거)

-독 립: 경제적 독립과 주거독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독립

■ 문1.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까?

(1) 예 →(문2번으로)

(2) 아니요 →(문3번으로)

C1

※ <문2>와 <문2-1>은 현재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 문2. 언제부터 혼자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C2

년

월

□ 문2-1. 어떤 이유로 혼자 살고 있습니까?

(1) 결혼한 예정이어서

(2) 직장(취업) 관계로

(3) 학교 때문에

C2-1

(4)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5)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서

(6) 기타(_____)

기타:

→(문4번으로)

※ <문3>에서 <문3-4>는 혼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 문3. 귀하는 주거독립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문3-1번으로)

(2) 아니요 →(문3-4번으로)

C3

□ 문3-1. 주거독립을 하고 싶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1) 1년 이내

(2) 1~3년 사이

(3) 3년 이후

(4) 잘 모르겠다

C3-1

□ 문3-2. 어떤 이유로 주거독립을 하려고 하십니까?

(1) 결혼한 예정이어서

(2) 직장(취업) 관계로

(3) 학교 때문에

C3-2

(4)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5) 기타(_____)

기타:

□ 문3-3. 현재 주거독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인 이유로

(2) 돌봄·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3) 가족의 반대로

(4) 기타(_____)

C3-3

기타:

→(문4번으로)

□ 문3-4. 주거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인 이유로

(2) 돌봄·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3) 직장(취업) 관계로

(4) 학교 때문에

(5) 가족의 반대로

(6) 독립할 필요가 없다

(7) 생각해본 적이 없다

(8) 기타(_____)

C3-4

기타:

→(문4번으로)

※ <문4>, <문5>는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 문4. 귀하는 일반 사람들이 언제 독립(포괄적 의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결혼하면서 (2) 취업하면서 (3) 성인(만20세)이 되면서
 (4) 독립할 필요가 없다 (5) 기타 ()
- 문5. 귀하께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거주, 비거주 포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C4 ☐
기타: _____

C5 ☐

D. 이성교제 및 결혼관

- 문1. 귀하께서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1) 예 →(문2번으로) (2) 아니요 →(문4번으로)

D1 ☐

※ <문2>~<문3-2>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계시는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 문2. 현재 이성교제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개월
 ■ 문3. 귀하께서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분과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1) 예 →(문5번으로) (2) 아니요 →(문3-1번으로)
 (3) 모르겠다 →(문3-1번으로)

D2 개월

D3 ☐

- 문3-1. 그렇다면, 그 전에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습니까?
 (1) 예 →(문3-2번으로) (2) 아니요 →(문5번으로)
 (3) 모르겠다 →(문5번으로)

D3-1 ☐

- 문3-2.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의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응답 후 문5번으로)

D3-2 년 월

※ <문4>~<문4-3>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 문4. 귀하는 20세 이후 이성교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문4-1번으로) (2) 아니요 →(문5번으로)

D4 ☐

- 문4-1. 이성교제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이성교제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성교제 기간: _____개월

D4-1 개월

- 문4-2. 이성교제를 하면서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습니까?

- (1) 예 →(문4-3번으로) (2) 아니요 →(문5번으로)
 (3) 모르겠다 →(문5번으로)

D4-2 ☐

- 문4-3.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의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응답 후 문5번으로)

D4-3 년 월

E. 보건관련 사항

■ 문1.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B1

■ 문2.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비뇨기과 혹은 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B2

■ 문3.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1) 피운 적 없음 →(문4번으로)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문4번으로)
(3) 가끔 피움 →(문3-1번으로) (4) 현재 매일 피움 →(문3-1번으로)

B3

□ 문3-1. 귀하께서는 하루에 평균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1일 평균 _____ 개비
(※ 담배 1갑은 20개비이며, 하루에 1개 이하로 피우는 경우 '1개비' 로 적어주십시오)

B3-1 개비

■ 문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습니까?

- (1) 최근 1년간 한 잔도 마시지 않음 →(영역 III으로) (2) 한달에 1번 미만
(3) 한 달에 1번 정도 (4) 한 달에 2~3번 정도
(5) 1주일에 1번 정도 (6) 1주일에 2~3번 정도
(7) 1주일에 4~6번 정도 (8) 매일

B4

□ 문4-1.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 정도 마십니까? 평균 _____ 잔 (아래 보기 참고)

B4-1

【보기】 잔에 대한 정의: 캔맥주 1개(335cc)는 1.6잔, 맥주 1병(500cc)은 2잔, 막걸리 1병은 7잔, 소주 1병은 6.5잔, 와인 1병은 8잔, 양주는 병마다 잔 수가 다릅니다.

III. 정책적 요인

■ 문1. 귀하께서는 결혼과 관련된 다음의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래 정책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대상이 된다면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말씀해주시십시오.

구분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문1-1. 인지 여부	①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적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③ 모르겠다	☐	☐
문1-2. 향후 도움 정도	① 매우 도움 될 것이다 ② 도움 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	☐

주: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기준을 달리 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 공급하며,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음
(단,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1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에 경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권용면적 85㎡이하의 중기부등분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주택자금 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연간급여(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버팀목 전세자금: 연간급여(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광역경제권역: 보증금 12,000만원 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8,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7,000만원 이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기혼여성 조사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3차)
기혼여성(만 15~49세) 조사표

조사표 종류	조사연도	개인표본 ID								가구내 기혼여성 조사번호
		가구 생성차수 만 15~49세 01 2014 신생가구 02 2015 신생가구 03	가구 ID				가구분리번호 만 15~49세 00 성년제 분리가구 01 도합제 분리가구 02	가구원 번호 만 15~49세 가구원 번호		
3	2015	0					0			

주소지	사군구 번호							사군구 내 완료 가구조사 일련번호				
	상세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 _____ 동 _____ 호 (_____ 동, _____ 아파트) (_____ 통·리)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응답자의 배우자			
	연락처	성명		가구원 번호	성	성명		가구원 번호	성
		연락처	국 적	① 대한민국 출생 ② 대한민국 [귀화 (수반) 인적 국적취득] ③ 외국		연락처	국 적	① 대한민국 출생 ② 대한민국 [귀화 (수반) 인적 국적취득] ③ 외국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 방문 횟수	총		회
1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 미완사유 코드	
2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⑩ 비대응(완료) ⑪ 늦은 귀가 ⑫ 정기 휴가 ⑬ 부재중(원인 기재) ⑭ 일부 문항 미완 ⑮ 조사거부	
3차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최종방문	___월___일	① 오전 ___시___분	② 오후 ___시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지도원	(인)
-----------	--	-----------	-----------	--------------	--	-----	-----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 044-287-83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사회경제적 특성

A. 학력

■ 문1. 귀하의 학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동일 학교급을 2개 이상 다닌 경우에는 처음 학교의 입학 연도와 마지막 학교의 졸업 연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1-1. 입학 연도 및 월	문1-2. 졸업 연도 및 월 (학위 취득 기준) ※ 현재 재학중인 경우 "7777년 77월"로 표기해주시시오.	문1-3. 동일 학교급 내에서 가장 길어진 가장 주된 이유	문1-4. 이전 학력과의 간격이 생긴 가장 주된 이유
			① 재수 이상 ② 출산 ③ 건강상의 이유 ⑦ 취업(준비) ⑧ 기타()	② 결혼 ④ 육아 ⑥ 경제적 이유 ⑧ 학교를 다시 다님 ⑨, 비헤당
1) 고등학교				
2) 대학(교) (※ 2~3년제 대학 포함)				
3) 대학원 (석사과정)				
4) 대학원 (박사과정)				

■ 문2. 귀하께서는 앞으로 상위 학교로 진학할 계획이십니까?

- (1) 예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A2 ☐

B. 직업력

■ 문1. 한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습니까?

B1 ☐

-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 (영역C로)

※ 조사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한 달 이상 근무한 직장을 5회까지 질문하여 주십시오(문2. 직업력). 단, 연이어 이직한 경우에도 전 직장의 중단(이직) 이유를 질문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27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문2. 귀하의 취업 활동에 대하여 현재 직업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B8 ☐ 회

구분		가) 첫 번째(현재 기준)	나) 두 번째
문2-1. 경제활동 참여 시작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문2-2. 총사실 지위	① 자영업자(1인) ③ 사업주/고용주 ②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투잡가족종사자 ⑦ 기타	☐	☐
문2-3. 직업 (직종)	① 판매자 ② 직종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⑦ 기술원 및 관련 기술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와 및 조립 종사자 ⑨ 전문직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문2-3-1. 직장유형	① 일반회사(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문2-3-2로)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 ③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포함) ⑤ 기타 → (문2-4로)	☐	☐
문2-3-2. 직장규모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⑪ 모르겠음 99, 비배당		
문2-4. 월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후세후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원	만원
문2-5. 평상시 출퇴근 총 소요시간		시간 분	시간 분
문2-6. 평균 1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시간
문2-7.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공적연금 ① 없음 ① 국민연금 ② 사회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③ 모름	☐	☐
	2) 건강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	☐
	3) 산재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③ 비배당	☐	☐
	4) 고용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③ 비배당	☐	☐
문2-8. 경제활동 중단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문2-8-1. 경제활동 중단 (이직)의 가장 주된 이유	① 결혼 ② 출산 ③ 육아 ④ 가사(집안일) ⑤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창업해서 ⑥ 건강 때문에 ⑦ 수입이 너무 적어서 ⑧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복제, 시설 등) ⑨ 거리가 멀어서 ⑩ 전학 또는 학업 ⑪ 회사의 파산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⑫ 가족이 반대해서 ⑬ 장래성이 없어서 ⑭ 기타(무엇:) 99, 비배당		

■ 문3. 계속

구분		다) 세 번째	라) 네 번째	마) 다섯 번째	
문2-1. 경제활동 참여 시작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2. 총사상 지위	① 자영업자(1인) ⑤ 사업주/고용주 ③ 상용근로자 ④ 일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부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문2-3. 직업 (직종)	① 판매직 ⑤ 전보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 종사자 ⑥ 서비스 종사자 ③ 판매 종사자 ⑦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④ 기계·전기·전자·기계 관련 종사자 ⑧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종사자 ⑨ 기타(무엇: _____)				
문2-3-1. 직장유형	① 일반회사(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문2-3-2로)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채투자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 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공인포함) ⑤ 기타 → (문2-4로)				
문2-3-2. 직장규모	① 1~4인 ⑤ 5~9인 ② 10~29인 ⑥ 30~49인 ③ 50~69인 ⑦ 70~99인 ④ 100~299인 ⑧ 300~499인 ⑤ 500~999인 ⑨ 1000인 이상 ⑩ 모르겠음 99. 비 해당				
문2-4. 월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세후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원	만원	만원	
문2-5. 평상시 출퇴근 총 소요시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문2-6. 평균 1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시간	시간	
문2-7.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공적연금	① 없음 ① 국민연금 ② 사학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③ 모름			
	2) 건강보험	① 예 ① 아니요 ② 모름			
	3) 산재보험	① 예 ② 아니요 ② 모름 ③ 비 해당			
	4) 고용보험	① 예 ③ 아니요 ② 모름 ④ 비 해당			
문2-8. 경제활동 중단 연도 및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8-1. 경제활동 중단 (이직)의 가장 주된 이유	① 결혼 ② 출산 ③ 육아 ④ 가사(집안일) ⑤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장일해서 ⑥ 건강 때문에 ⑦ 수입이 너무 적어서 ⑧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복직, 시설 등) ⑨ 거리가 멀어서 ⑩ 진학 또는 학업 ⑪ 회사의 파산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⑫ 가족이 반대해서 ⑬ 장애인이 없어서 ⑭ 기타(무엇: _____) 99. 비 해당				

27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다음은 귀하와 배우자의 현재 직장의 근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가) 부인	나) 남편
※ 조사원: 가구원 사항에서 부인과 남편의 취업 여부 확인 (1) 취업 (2) 비취업 (9) 비해당(사별, 이혼, 별거 등 무배우 상태)	☐	☐
■ 문3. 현재 귀 닥 부부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떠합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9) 비해당	☐	☐
■ 문4. 귀 닥 부부께서는 현재 직장에서 교대제로 일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9) 비해당	☐	☐
■ 문5. 귀 닥 부부께서는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1주 평균 근로시간: _____시간 (999) 비해당	시간	시간

C. 노후준비

■ 문1.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가구원 사항에서 응답자의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예(남편이 만 50세 이상) (2) 아니요(남편이 만 50세 미만) (9) 비해당(무배우자)

※ 남편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문1-2> 남편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종교령자 조사표에서 이기하십시오. 무배우자(사별, 별거, 이혼 혹은 미혼모)인 경우 9. 비해당합니다.

※ ☐

구분	준비 여부	1-1. 부인	1-2. 남편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 가입 2) 미가입 9) 비해당	1) ☐	1) ☐
2) 개인연금	1) 가입 2) 미가입 9) 비해당	2) ☐	2) ☐
3) 기업퇴직연금	1) 가입 2) 미가입 9) 비해당	3) ☐	3) ☐
4) 노후를 위한 부동산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4) ☐	4) ☐
5) 노후를 위한 저축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5) ☐	5) ☐
6)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6) ☐	6) ☐
7) 기타(_____)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7) ☐	7) ☐

※ 조사원: <문1-1>에서 모두 '2'로 응답한 경우에 <문2>를 질문하십시오.

■ 문2. 귀하가 현재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C2 ☐

- (1) 시간이 없어서 (2) 노후준비보다 현재의 지출이 더 급해서
(3) 별로 관심이 없어서 (4)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5) 남편이 준비하고 있어서 (6) 기타(_____) (9) 비해당

기타: _____

II. 인구동태사항

D. 결혼력

- 문1.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현재의 결혼이 초혼입니까?
(※ 조사원: 유배우자인 경우만 배우자의 결혼 횟수를 질문하십시오.)
- (1) 초혼 (2) 재혼 (3) 삼혼 이상 (9) 비 해당 D1 ☐ ☐
- 부인 남편
- 문2. 귀하의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초혼 유배우 상대인 경우 <문2-1>에서 결혼 연월만 묻고, 해혼 연월 및 이유는 비 해당(9999, 99)으로 기입하십시오.)

구분	문2-1. 결혼 연도 및 월	문2-2. 해혼 연도 및 월	문2-3. 해혼 이유
	결혼 연월은 언제입니까?	해혼 연월은 언제입니까?	① 배우자의 사망 ② 외도 ③ 학대 또는 폭력 ④ 성격 차이 ⑤ 가족부양과무 불이행 ⑥ 가족 간 불화 ⑦ 경제적 문제 ⑧ 기타() 99. 비 해당
1) 초혼	년 월	년 월	
2) 재혼	년 월	년 월	
3) 삼혼	년 월	년 월	

27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E. 임신력

* 다음은 귀하의 산전관리임신 및 출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임신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신규 응답자와 기존 응답자 모두 모든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해주십시오.)

■ 문1. 귀하의 총 임신 횟수는 몇 번입니까? _____ 회 E1 회

구분	가) 첫 번째 임신	나) 두 번째 임신	다) 세 번째 임신
문2. 임신전 임신관련 진찰 및 검사 여부 (※적정제중검사,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빈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매독검사, 풍진항체검사 등) ① 예 ② 아니요	☐	☐	☐
문3.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년 월	년 월	년 월
문4. 산전 진찰 총 횟수	회	회	회
문4-1. 초진 시기(당시 임신 몇 주)	주	주	주
문5. 임신 결과 ① 사산 →(문5-1로) ② 자연유산 →(문5-2로) ③ 인공임신중절 →(문5-3로) ④ 현재 임신중 →(문5-4로) ⑤ 정상출산 →(문6으로)	☐	☐	☐
문5-1. 사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2. 자연유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3. 인공 임신 중절 이유 1) 인공임신중절 시기(임신 몇 주) 2) 인공 임신 중절 이유 (문11로) ①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② 출산을 연기하고 싶어서 ③ 파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④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⑤ 태아이상으로 판명되어서 ⑥ 유전병/전염병 때문에 ⑦ 태아가 말라라서 ⑧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⑨ 혼전임신 ⑩ 모르겠음 ⑪ 기타() 외 비합당	주 	주 	주
문5-4. 현재 임신중(재태주수) →(문11로)	주	주	주
문6. 정상 출산 1) 출생아 체중 2) 재태 주수(총 임신기간) 3) 태아 수(총_명, 남_명, 여_명) (※조사원: 출생아의 경우 가구원 번호)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문7. 산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1) 이용 여부 및 이용 일수 ① 있음 → 일 ② 없음 2) 총 비용(만 원)	☐ 일 만원	☐ 일 만원	☐ 일 만원
문8. 출산 장소 ① 일반병(리)원(1차 의료기관) ② 여성전문병원(2차 의료기관) ③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④ 조산원 ⑤ 자택 ⑥ 기타()	☐	☐	☐

구분		가) 첫 번째 임신	나) 두 번째 임신	다) 세 번째 임신	
문9. 출산 방법	① 자연분만 ②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외사견유) ③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본인결정) ④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	☐	☐	
문10. 산후 관리	1) 산후진찰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	☐	☐	
	2) 산후 조리 방법	① 산후조리원 이용 ② 산모도우미 이용 →(문10-3)으로 ③ 시댁·친정 친인척이 도와줌 ④ 별다른 산후조리를 하지 않음 ⑤ 기타()	1) ☐ 2) ☐	1) ☐ 2) ☐	1) ☐ 2) ☐
	3) 산모 도우미 형태	① 국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② 비영리기관(VWCA 등) ③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 ④ 아는 사람을 통해 개인적으로 고용 ⑤ 기타() ⑥ 비해당	☐	☐	☐
	4) 총 산후관리 비용(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조사원: 모든 임신 당시 취업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임신인 경우, 문12는 비해당합니다.)					
문11. 취업 여부	① 예 →(문12-1로) ② 아니요 →(문12-3으로)	☐	☐	☐	
문12. 직장 요인	문12-1. 유산·사산 유가	① 이용 ② 비이용 ③ 이용하지 않고 퇴직 ④ 회사에서 제도가 없었음 ⑤ 비해당(출산, 현임신인 경우)	☐	☐	☐
	문12-2. 출산전후 유가	1) 이용 여부 ① 이용 →(문12-2-2로) ② 비이용 →(문12-2-4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문12-3으로) ⑤ 비해당(비취업, 무급가휴사자, 현임신·유산·사산종결)	☐	☐	☐
		2) 이용기간: ____일 →(문12-2-3)으로	일	일	일
	3) 출산전후유가 후 직장 복귀 여부 ① 사용 후 직장복귀 ② 현재 출산전후유가 중 ③ 사용 중 퇴직 ④ 사용 후 퇴직 ⑤ 비해당 →(문12-3으로)	☐	☐	☐	
4) 출산전후유가 비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대상이 아니어서 ⑥ 사용 전에 퇴직해서 ⑦ 기타() ⑧ 비해당 →(문12-3으로)	☐	☐	☐		
문12-3. 배우자의 출산유가	1) 이용 여부 ① 이용 →(문12-2-2로) ② 비이용 →(문12-2-3)으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음 임신 사항으로) ⑤ 비해당(비취업, 무급가휴사자, 부임 현임신·유산·사산종결)	☐	☐	☐	
	2) 이용기간: ____일	일	일	일	
	3) 출산유가 비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대상이 아니어서 ⑥ 기타() ⑧ 비해당	☐	☐	☐	

27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임신·출산력: 4~6 번째 임신)

구분		라) 네 번째 임신	마) 다섯 번째 임신	바) 여섯 번째 임신
문2. 임신전 임신관련 진찰 및 검사 여부 (※적정제출검사,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빈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매독검사, 풍진항체검사 등) ① 예 ② 아니오		☐	☐	☐
문3.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년 월	년 월	년 월
문4. 산전 진찰 총 횟수		회	회	회
문4-1. 초진 시기(당시 임신 몇 주)		주	주	주
문5. 임신 결과 ① 사산 →(문5-1로) ② 자연유산 →(문5-2로) ③ 인공임신중절 →(문5-3로) ④ 현재 임신중 →(문5-4로) ⑤ 정상출산 →(문6으로)		☐	☐	☐
문5-1. 사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2. 자연유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3. 인공 임신 중절	1) 인공임신중절 시기(임신 몇 주)	주	주	주
	2) 인공 임신 중절 이유 (문11로) ① 자낙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② 출산을 연기하고 싶어서 ③ 태아를 조별하기 위해서 ④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⑤ 태아이상으로 판명되어서 ⑥ 유전병/전염병 때문에 ⑦ 태아가 말이라서 ⑧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⑨ 혼전임신 ⑩ 모르겠음 ⑪ 기타() 또 미해당			
문5-4. 현재 임신중(재태주수) →(문11로)		주	주	주
문6. 정상 출산	1) 출생아 체중	kg	kg	kg
	2) 재태 주수(총 임신기간)	주	주	주
	3) 태아 수(총_명, 남_명, 여_명)	총 남 여	총 남 여	총 남 여
(※조사원: 출생아의 경우 가구원 번호)				
문7.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1) 이용 여부 및 이용 일수 ① 있음 → 일 ② 없음	☐ 일	☐ 일	☐ 일
	2) 총 비용(만 원)	만원	만원	만원
문8. 출산 장소 ① 일반병(의)원(1차 의료기관) ② 여성전문병원(2차 의료기관) ③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④ 조산원 ⑤ 자택 ⑥ 기타()		☐	☐	☐

28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임신·출산력: 7~9 번째 임신)

구분	사) 일곱 번째 임신	아) 여덟 번째 임신	자) 아홉 번째 임신
문2. 임신전 임신관련 진찰 및 검사 여부 (※적경제중검사, 조음파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빈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매독검사, 풍진항체검사 등) ① 예 ② 아니요	☐	☐	☐
문3.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년 월	년 월	년 월
문4. 산진 진찰 총 횟수	회	회	회
문4-1. 초진 시기(당시 임신 몇 주)	주	주	주
문5. 임신 결과 ① 사산 →(문5-1로) ② 자연유산 →(문5-2로) ③ 인공임신중절 →(문5-3로) ④ 현재 임신중 →(문5-4로) ⑤ 정상출산 →(문6으로)	☐	☐	☐
문5-1. 사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2. 자연유산 시기(임신 몇 주) →(문11로)	주	주	주
문5 3. 인공 임신 중절 1) 인공임신중절 시기(임신 몇 주) 2) 인공 임신 중절 이유 (문11로) ① 자비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② 출산을 연기하고 싶어서 ③ 태아를 조별하기 위해서 ④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⑤ 태아이상으로 판명되어서 ⑥ 유전병/전염병 때문에 ⑦ 태아가 말이라서 ⑧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⑨ 혼전임신 ⑩ 모르겠음 ⑪ 기타() ⑫ 비답			
문5-4. 현재 임신중(재태주수) →(문11로)	주	주	주
문6. 정상 출산 1) 출생아 체중 2) 재태 주수(총 임신기간) 3) 태아 수(총_명, 남_명, 여_명) (※조사원: 출생아의 경우 가구원 번호)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kg 주 총 명 남 명 여 명
문7.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1) 이용 여부 및 이용 일수 ① 있음 → 일 ② 없음 2) 총 비용(만 원)	☐ 일 만원	☐ 일 만원	☐ 일 만원
문8. 출산 장소 ① 일반병(외)원(1차 의료기관) ② 여성전문병원(2차 의료기관) ③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④ 조산원 ⑤ 자택 ⑥ 기타()			

구분		가) 일곱 번째 임신	나) 여덟 번째 임신	다) 아홉 번째 임신	
문9. 출산 방법	① 자연분만 ②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외사견유) ③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본인결정) ④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	☐	☐	
문10. 산후 관리	1) 산후진찰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	☐	☐	
	2) 산후 조리 방법 ① 산후조리원 이용 ② 산모도우미 이용 →(문10-3)으로 ③ 시댁·친정 친인척이 도와줌 ④ 별다른 산후조리를 하지 않음 ⑤ 기타()	1) ☐ 2) ☐	1) ☐ 2) ☐	1) ☐ 2) ☐	
	3) 산모 도우미 형태 ① 국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② 비영리기관(VWCA 등) ③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 ④ 아는 사람을 통해 개인적으로 고용 ⑤ 기타() ⑥ 비해당	☐	☐	☐	
	4) 총 산후관리 비용(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조사원: 모든 임신 당시 취업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임신인 경우, 문12는 비해당합니다.)					
문11. 취업 여부	① 예 →(문12-1로) ② 아니요 →(문12-3으로)	☐	☐	☐	
문12. 직장 요인	문12-1. 유산·사산 유가 ① 이용 ② 비이용 ③ 이용하지 않고 퇴직 ④ 회사에서 제도가 없었음 ⑤ 비해당(출산, 현임신인 경우)	☐	☐	☐	
	문12-2. 출산전후 유가 1) 이용 여부 ① 이용 →(문12-2-2)로 ② 비이용 →(문12-2-4)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문12-3으로) ④ 비해당(비취업, 무급가휴사자, 현임신·유산·사산종결) 2) 이용기간: ____일 →(문12-2-3)으로 3) 출산전후유가 후 직장 복귀 여부 ① 사용 후 직장복귀 ② 현재 출산전후유가 중 ③ 사용 중 퇴직 ④ 사용 후 퇴직 ⑤ 비해당 →(문12-3으로) 4) 출산전후유가 비이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대상이 아니어서 ⑥ 사용 전에 퇴직해서 ⑦ 기타() ⑧ 비해당 →(문12-3으로)	☐	☐	☐	
		문12-3. 배우자의 출산유가 1) 이용 여부 ① 이용 →(문12-2-2)로 ② 비이용 →(문12-2-3)으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음 임신 사항으로) ④ 비해당(비취업, 무급가휴사자, 부임 현임신·유산·사산종결) 2) 이용기간: ____일 3) 출산유가 비이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대상이 아니어서 ⑥ 기타() ⑧ 비해당	☐	☐	☐
			☐	☐	☐

28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조사원: 앞 페이지의 임신 및 출산 기록표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총 임신횟수	사산 횟수	자연유산 횟수	인공임신중절 횟수	현재 임신	정상출산 횟수
총 출생아		생존 자녀수		사망 자녀수	

■ 문13. 귀하께서는 현재 몇 남 몇 녀를 두고 계십니까?(출가/분가한 자녀 모두 포함)

현존자녀수: 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E13 계 명 남 녀

■ 문14.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사원: 현재 임신 포함)

- (1) 있다(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 (문14-1로)
 (2) 없다 → (문14-2로)
 (3) 생각중이다 → (문14-2로)
 (9) 비해당(결혼상태가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 (문15로)

E14 명 남 녀
 E14-(1) 계 명 남 녀

□ 문14-1. 자녀를 언제쯤 더 낳으실 계획이십니까?

- (0) 현재 임신중 (1) 1년 이내 (2) 1~2년 이내
 (3) 2~3년 이내 (4) 3년 이후 (5) 생기는 대로
 (6)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9) 비해당

E14-1

▶ (문15로)

1순위

□ 문14-2. 자녀 출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현재 기준으로 순위별 2개만 선택)

기타:

(※ 조사원: 대상자가 답변한 사항을 아래 항목에서 찾아 기입하십시오.)

2순위

기타:

경제적 이유	(1) 월임상태에서 (2) 교육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3) 소득이 적어서 (4)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져서 (5)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료, 의류, 의료비 등) (6)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가족 관련 이유	(18)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19)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20)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과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사회적 이유	(7)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8)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9)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0)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경쟁에 열려스러워서	건강 관련 이유	(21)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2)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23)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가족·친 관련 이유	(11) 보의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12) 본인 또는 남편이 재를 싫어해서 (13)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14) 부부간의 생활이 즐거워서 (15) 계획한 만큼 자녀를 더 낳아서 (16) 남편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17) 아이가 많아서	기타	(24) 나이가 많아서 (25) 기타() (98) 무응답 (99) 비해당

■ 문15. 귀하께서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자녀수: 명

E15 명

(※ 조사원: 실수 기입, 7명 이상은 7로 기입하고 8은 무응답, 9는 비해당입니다.)

III. 자녀양육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모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가장 어린 자녀 순으로 4명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F 명

구분			자녀1의 가구원번호:	자녀2의 가구원번호:
문1. 보육·교육 이용 유형 (※ 모든 문항에 응답)	문1-1. 기관 보육 및 교육 이용 여부 및 시간 (지난1개월 동안 주당평균 총시간)	① 이용→ 시간 ② 비이용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학원(반일반 이상) 4) 학원(학기 및 보습) 5)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6)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7) 시간제보육 등 기타	1) 시간 5) 시간 2) 시간 6) 시간 3) 시간 7) 시간 4) 시간	1) 시간 5) 시간 2) 시간 6) 시간 3) 시간 7) 시간 4) 시간
	문1-2. 개인 양육지원 이용 여부 및 시간	① 이용→ 시간 ② 비이용 1) 친조부모 2) 외조부모 3) 친인척 4) 베이비시터 5) 육아전문파견인력 6) 이웃 등 기타 비혈연	1) 시간 4) 시간 2) 시간 5) 시간 3) 시간 6) 시간	1) 시간 4) 시간 2) 시간 5) 시간 3) 시간 6) 시간
문2. 양육비 (※ 3개월 평균)	문2-1. 총비용(※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는 등록비와 부자재(책값 등)의 비용이 포함)		만원	만원
	1) 보건의료비 (만원) 2) 보육비 (만원)	3) 공교육비 (만원) 4) 사교육비 (만원)	5) 초·중·고교 비품(만원) 6) 기타 (만원)	1) 3) 5) 2) 4) 6)
문3. 육아휴직	1) 이용 여부 ① 이용→(문3-2)로 ② 비이용→(문3-4)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문4로) ④ 비해당(비하절, 출산전후휴가) →(문3-3)으로	2) 이용기간: ____개월	1) 2) 개월	1) 2) 개월
	3)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여부 ① 사용 후 직장복귀 ② 현재 육아휴직 중 ③ 사용 중 퇴직 ④ 사용 후 퇴직 ⑤ 비해당 →(문4로)		3)	3)
문4. 배우자의 육아휴직	4) 육아휴직 비이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육아휴직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⑥ 사용 전에 퇴직해서 ⑦ 기타(____) ⑧ 비해당 →(문4로)		4)	4)
	1) 이용 여부 ① 이용→(문4-2)로 ② 비이용→(문4-3)으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음 자녀로) ④ 비해당(두배우자 비하절, 출산전후휴가 중) →(다음 자녀로)	2) 이용기간: ____개월	1) 2) 개월	1) 2) 개월
	3) 육아휴직 비이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육아휴직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⑥ 기타(____) ⑧ 비해당		3)	3)

28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구분		자녀3의 가구원번호:	자녀4의 가구원번호:
문1. 보육·교육 이용 유형 (※ 모든 문항에 응답)	문1-1. 기관 보육 및 교육 이용 여부 및 시간 (지난1개월 동안 주당평균 총시간)	① 이용→ 시간 ② 비이용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학원(반달반 이상) 4) 학원(특기 및 보습) 5) 지역아동센터, 주일센터 등 6)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7) 시·군·구립 등 기타	1) 시간 5) 시간 2) 시간 6) 시간 3) 시간 7) 시간 4) 시간	1) 시간 5) 시간 2) 시간 6) 시간 3) 시간 7) 시간 4) 시간
문2. 장학비 (※ 3개월 평균)	문2-1. 총비용(※ 공공육아의 사고료비에는 특별비와 부가제(책값 등)의 비용이 포함)	① 이용→ 시간 ② 비이용	
	1) 전조부모 2) 외조부모 3) 친인척 4) 베이비시터 5) 육아전문기관 6) 이웃 등 기타 비월연	1) 시간 4) 시간 2) 시간 5) 시간 3) 시간 6) 시간	1) 시간 4) 시간 2) 시간 5) 시간 3) 시간 6) 시간
문3. 육아휴직	문3-1. 총비용(※ 공공육아의 사고료비에는 특별비와 부가제(책값 등)의 비용이 포함)	1) 보건의료비 3) 공공육비 5) 조력자지급 (만원) (만원) 비용(만원)	1) 만원 3) 만원 5) 만원
	2) 보육비 4) 사고육비 6) 기타 (만원) (만원) (만원)	2) 만원 4)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6) 만원
문4. 배우자의 육아휴직	1) 이용 여부 ① 이용→(문3-2)로 ② 미이용→(문3-4)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문4로) ④ 비월연(비월연, 출산전후휴가) →(문3-3)으로	2) 이용기간: _____개월 1) 2) 개월	1) 2) 개월
	3)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여부 ① 사용 후 직장복귀 ② 현재 육아휴직 중 ③ 사용 중 퇴직 ④ 사용 후 퇴직 ⑤ 비월연 →(문4로)	3)	3)
문5. 배우자의 육아휴직	4) 육아휴직 비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육아휴직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⑥ 사용 전에 퇴직해서 ⑦ 기타(_____) ⑧ 비월연 →(문4로)	4)	4)
	1) 이용 여부 ① 이용→(문4-2)로 ② 미이용→(문4-3)으로 ③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음 자녀로) ④ 비월연(비월연, 출산전후휴가 중) →(다음 자녀로)	2) 이용기간: _____개월 1) 2) 개월	1) 2) 개월
문6. 배우자의 육아휴직	3) 육아휴직 비용 이유 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가 아니라서 ② 업무량이 많아 사용할 수 없어서 ③ 육아휴직급여가 낮아서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⑥ 사용 전에 퇴직해서 ⑦ 기타(_____) ⑧ 비월연	3)	3)

IV. 가족지원

G. 남편

※ 조사원: 남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유배우 상태인 경우만 질문하시오. 사별·이혼·별거와 미혼모의 경우는 비해당(9,99)으로 기입하고 H영역으로 이동합니다.

■ 문1. 귀하의 남편께서는 가사 및 육아를 하십니까?

(1) 예 →(문2로)

(2) 아니요 →(문2-1과 문3, 문4-1에서 부인 사항을 기록 후 문5로) (9) 비해당

■ 문2. 귀하의 남편께서 평소 어떤 유형의 가사활동을 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1) 예	(2) 아니요	(9) 비해당
1) 식사 준비	☐	☐	☐
2) 설거지	☐	☐	☐
3) 빨래	☐	☐	☐
4) 시장 보기	☐	☐	☐
5) 집안 청소	☐	☐	☐
6) 쓰레기 버리기	☐	☐	☐

□ 문2-1. 귀하와 남편의 일일 가사활동 분담 시간은 평일과 주말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문2-1-1. 평일		문2-1-2. 주말	
1) 부인	시간	분	시간	분
2) 남편	시간	분	시간	분

■ 문3. 남편 외에 가사를 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1) 예	(2) 아니요	(9) 비해당(친정·시부모 사망)
1) 친정 부모	☐	☐	☐
2) 시부모	☐	☐	☐
3) 친가 친인척	☐	☐	☐
4) 시댁 친인척	☐	☐	☐
5) 가사 도우미	☐	☐	☐
6) 이웃	☐	☐	☐
7) 기타 ()	☐	☐	☐

※ 조사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문4>를 질문하시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문4>와 <문4-1>을 비해당(9, 99) 처리하고, <문5>로 이동하시오.

■ 문4. 귀하의 남편께서 육아에 참여하신다면, 평소에 주로 하시는 육아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37지)

- (0) 아니요(없다) (1) 기저귀 갈기 (2) 분유타기 (3) 젖병소독
(4) 책 읽어주기 (5) 아이 재우기 (6) 놀아주기 (7) 밥 먹고 옷 입는 것
(8) 아플 때 돌봐주기 (9) 목욕, 샤워 등 씻기기 (10)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1)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학교 (12) 기타() (99) 비해당

□ 문4-1. 귀하와 남편의 일일 육아활동 분담 시간은 평일과 주말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문4-1-1. 평일		문4-1-2. 주말	
1) 부인	시간	분	시간	분
2) 남편	시간	분	시간	분

G1 ☐

G4-1) ☐
G4-2) ☐
G4-3) ☐
기타: _____

■ 문5. (주관적 견해) 귀하께서는 평소 남편과 가사 및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5

- (1) 매우 공평하다 (2) 공평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공평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공평하지 않다 (9) 비해당

H. 부모(친정/시댁)

■ 친정 및 시댁 부모님에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 친정		나) 시댁	
		부	모	부	모
문1. 성존 및 통거 여부	① 통거 ② 비통거 ③ 사망 →(다음 항목)	☐	☐	☐	☐
문1-1. 통거시 성명 및 가구원 번호					
문2. 연령	만 연령 _____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문3. 건강상태	① 매우 건강 ② 건강 ③ 그저 그렇다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	☐	☐	☐
문4. 경제활동상태	① 취업 ② 비취업	☐	☐	☐	☐
문5.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	☐	☐	☐	☐
문6. 부모의 자녀수	총 _____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문7. 응답자가 부모 지원 (※ 지난 1년 동안)	7-1. 여부 ① 지원하고 있음 ② 지원하지 않음 →(문8로)	☐	☐	☐	☐
	7-2. 종류 (중복응답) 1) 경제적 지원 2) 가사 3) 보살핌, 병수발 등 ① 예 ② 아니요 4) 기타()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7-3. 총비용 (※경제지원을 드릴 경우)	1) 월평균 _____회 2) 연간 총 _____만원	월 회 만원	월 회 만원	월 회 만원
	7-4. 횟수 및 시간(※월별)	1) 월평균 _____회 2) 월평균 _____시간	월 회 시간	월 회 시간	월 회 시간
	8-1. 여부 ① 지원 받음 →(문8-2으로) ② 지원받지 않음 →(1영역으로)	☐	☐	☐	☐
문8. 부모가 응답자 지원 (※ 지난 1년 동안)	8-2. 종류 (중복응답) 1) 경제적 지원 2) 속아 3) 가사 ① 예 ② 아니요 4) 기타()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1) ☐ 3) ☐ 2) ☐ 4) ☐ 4) 기타: _____
	8-3. 총비용 (※경제지원을 받을 경우)	1) 월평균 _____회 2) 연간 총 _____만원	월 회 만원	월 회 만원	월 회 만원
	8-4. 횟수 및 시간(육아가사)	1) 주 _____회 2) 주 _____시간	주 회 시간	주 회 시간	주 회 시간

V. 지역사회요인

※ 지난 1년 간,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산부인과	3) 신생아 집중치료실	4) 소아과 ※ 가정의학과, 내과 등 영유아 대심 진료 병원 모두 포함	5) 어린이집 유치원
문1. 시설	1-1. 이용 경험	① 있음 →(문1-2표) ② 없음 →(문4표)	☐	☐	☐	☐	☐
	1-2. 이용 기관명	기입					
	1-3. 이용 기관 소재지 (※ 이용 경험 이 있는 경우)	① 동일 통·출·면 내 ② 동일 시·군·구 내 ③ 타 시·군·구 ④ 타 시도 ⑤ 비 해당	☐	☐	☐	☐	☐
문2. 이용 기관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비 해당	☐	☐	☐	☐	☐
문3. 주관적 비용부담 정도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부담 ⑤ 매우 부담 ⑥ 비 해당	☐	☐	☐	☐	☐
문4. 공급 적정성		① 너무 많다 ② 많은 편 ③ 부족하다 ④ 매우부족 ⑤ 비 해당 →(다음항목으로)		☐	☐	☐	☐

※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해당 동·읍·면 기준)의 문화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5.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5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문6.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8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Ⅵ. 정책적 요인

※ 아래 문항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6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구분	세부 정책명	문1-1. 수혜여부	문1-2. 부담완화정도	
			① 예 ② 아니요 ③ 비해당	① 매우 도움 ② 보통 ③ 전혀 안됨	② 도움됨 ④ 안됨 ⑤ 비해당
01)	신혼부부 지원	① 신혼부부 주택 지원	☐	☐	☐
02)	임산출산 지원	② 임신·출산 의료·출산비 지원(요양병원, 병원한 카드,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③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	☐	☐
		④ 상담서비스(마라케이트, 엄마넷 인터넷 상담실)	☐	☐	☐
		⑤ 임신제·월경제 지원	☐	☐	☐
		⑥ 영양플러스 사업	☐	☐	☐
		⑦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	☐
03)	신생아 지원	⑧ 선원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	☐	☐	☐
		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원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04)	영유아 지원	⑩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	☐
		⑪ 국가예방접종 지원	☐	☐	☐
		⑫ 보육료유아학비 지원(0-5세)	☐	☐	☐
		⑬ 양육수당 지원(0-5세)	☐	☐	☐
		⑭ 아이돌봄 지원(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	☐
05)	초·중·고생 지원	⑮ 돌봄교실(초·중 돌봄교실 및 입학준비 센터 돌봄교실)	☐	☐	☐
		⑯ 방과후 학교 지원(자유수강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	☐	☐
		⑰ 지역아동센터	☐	☐	☐
06)	근로자 가정 지원	⑱ 모성휴가·유치급여(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	☐	☐
		⑲ 부성휴가·유치급여(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
		⑳ 가족돌봄 휴직제도	☐	☐	☐
		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
07)	다자녀 가정 지원	㉒ 다자녀가정 주택지원(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	☐	☐
		㉓ 세제혜택(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
		㉔ 전기요금 20% 감액	☐	☐	☐
		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
		㉖ 다자녀 우대카드	☐	☐	☐
08)	군복무 가정 지원	㉗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	☐	☐
09)	장애아동 가정 지원	㉘ 장애아동수당·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	☐
10)	입양아 가정 지원	㉙ 입양아 양육수당·의료급여1종 지원	☐	☐	☐
		㉚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
11)	기타	㉛ 기타()	☐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중고령자(만 50세 이상)의 자녀 사항

[illegible]

II. 중고령자 개인 특성

A. 배우자와의 관계

※ 조사원: 질문 <문1>~<문2>는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영역B>로 가시오.
무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가구원 번호는 (99)이고, <문1>~<문2>는 모두 비해당(9, 99)입니다.

배우자
가구원 번호

--	--

■ 문1. 배우자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9) 비해당(배우자 없음)

A1

--

■ 문2.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부부 동반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거의 매일(5회 이상) (2) 일주일에 2~4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6)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7) 거의 하지 않는다 (8) 기타 (9) 비해당(배우자 없음)

A3

--	--

B. 부모 및 형제·자매, 친인척·친구·이웃과의 관계

※ 조사원: <문1>~<문4>는 응답자가 미혼 및 무배우자(사별,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에는 본인 부모에 대한 질문만 하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시오.

질문 내용	1) 본인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 문1. (배우자)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의 연세(만 나이)는 몇이십니까? (1) 부모 모두 생존 (2) 아버지만 생존 (3) 어머니만 생존 (4) 두 분 모두 사망 →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질문으로) (5) 기타 (9) 비해당	생존 여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모 <table border="1"><tr><td></td></tr></table>				생존 여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모 <table border="1"><tr><td></td></tr></table>			
■ 문2. 현재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9) 비해당	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모 <table border="1"><tr><td></td></tr></table>			부 <table border="1"><tr><td></td></tr></table> 모 <table border="1"><tr><td></td></tr></table>				
■ 문3. 현재 (배우자) 부모님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0) 부모와 동거 중 (1) 혼자 생활 (2) 부모님 두분만 거주 (3) 타 자녀와 동거 (4) 시설 입소 (5) 기타 (9) 비해당	<table border="1"><tr><td></td></tr></table>		<table border="1"><tr><td></td></tr></table>					
■ 문4.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과는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다음 [보기] 왕래 및 연락빈도를 참조하여 해당번호를 기록하시오.	<table border="1"><tr><td></td></tr></table>		<table border="1"><tr><td></td></tr></table>					

29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질문 내용	1) 본인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 ★ 문5. 지난 1년간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휴대폰문자, 전화, 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아래 [보기] 왕래 및 연락빈도를 참조하여 해당번호를 기록하십시오.		
【보기】 왕래 및 연락 빈도 (0) 부모와 동거 중 (1) 거의 매일(5회 이상) (2) 일주일에 2~4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6)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8) 기타 (99) 비해당		

■ ★ 문6. 귀하께서는 생존해있는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있다 → ()명

(2) 없다

B6
B6-1) 명

■ 문7.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손)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외에 몇 명 정도와 만나거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명
 (* 조사원: 동일인이 중복되어 파악되지 않아야 하며, 비해당 없이 0명으로 표기합니다)

1) 친인척	2) 친구이웃	3) 동창동문	4) 직장동료	5) 동호회 회원	6)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C. 가구형태

※ 조사원: 가구원 사항을 확인하여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문1>과 <문2>를 질문하고, 배우자와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문3>을 질문하며,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문4>를 질문하십시오. 그 외의 경우는 <영역D>로 가시고, 비해당(9999, 99)으로 표시하십시오.

※ 조사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문1>, <문2>를 질문하시고, 그 외는 비해당으로 표시하십시오.

■ ★ 문1.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습니까?

C1 년 월

■ 문2. 귀하께서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배우자와만 살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2) 배우자 사별 후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3) 배우자 사별 후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 지역에 있게 되어서
 (4)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5)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6)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7) 동거시의 가사지원 및 손자녀양육 부담
 (8)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떠나기 싫어서
 (9)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하여서
 (10)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11) 자녀가 없어서
 (12) 모두 말이기 때문에
 (13) 기타(무엇:)
 (99) 비해당

C2 명

기타: 명

※ 조사원: 배우자와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문3>을 질문하시고, 그 외는 비례당으로 표시하십시오.

■ ★ 문3.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배우자와만 살게 되셨습니까?

C3

년

월

※ 조사원: 기혼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에 <문4>를 질문하시고, 그 외는 비례당으로 표시하십시오.

■ 문4. 귀하께서 기혼자녀와 함께 사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2)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3)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4) 나 또는 배우자의 장애나 질병으로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
 (5) 자녀의 가사 또는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6)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7)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8)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9) 기타(무엇: _____)

C4

기타: _____

(99) 비례당

D.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문1.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9) 비례당

D1

■ ★ 문2. 귀하께서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현재 치료 중인 만성질환(의사진단 기준)이 몇 개입니까?

(※ 조사원: 현재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를 실수로 기입하고, 없으면 00으로 기입) D2 총수

개

□ ★ 문2-1. 그 치료비는 주로 누가 지불합니까?

- (1) 본인(배우자) (2) 자녀 (3) 친인척
 (4) 무료 (5) 이웃·기타(_____) (9) 비례당

D2-1

기타: _____

■ ★ 문3. 귀하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 (1) 예(현재 피움) (2) 아니요

D3

■ 문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문5로) (2) 한 달에 1회 미만
 (3) 한 달에 1회 정도 (4) 한 달에 2~3회 정도
 (5) 일주일에 1회 정도 (6) 일주일에 2~3회 정도
 (7) 일주일에 4~6회 정도 (8) 매일

D4

(99) 비례당

□ 문4-1.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 정도 마십니까? 평균 _____ 잔 (아래 보기 참고)

D4-1

【보기】 잔에 대한 정의: 캔맥주 1개(335cc)는 1.6잔, 맥주 1병(500cc)은 2잔, 막걸리 1병은 7잔, 소주 1병은 6.5잔, 와인 1병은 8잔, 양주는 병마다 잔 수가 다릅니다.

29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 문5.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운동, 스포츠, 체조 등을 하십니까?

(※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

- (1) 예 (2) 아니요

D5 ☐

■ ★ 문6.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건강검진 등)

- (1) 예 (2) 아니요

D6 ☐

■ 문7. 다음은 귀하의 1개월 간 영양 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각각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영양 관리 상태 : (1) 예(있다) (2) 아니요(없다) (9) 비해당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D7-1 ☐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	D7-2 ☐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D7-3 ☐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D7-4 ☐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D7-5 ☐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D7-6 ☐
7)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D7-7 ☐
8)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D7-8 ☐
9)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D7-9 ☐
10) 정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D7-10 ☐

■ ★ 문8. 귀하의 몸무게와 키는 어느 정도입니까?

□ 문8-1) 몸무게: _____kg

D8-1) 몸무게 kg

8-1)-1. 체중 측정 여부: (1) 측정 (2) 미측정

D8-1)-1 ☐

□ 문8-2) 키 : _____cm

D8-2) 키 cm

8-2)-1. 신장 측정 여부: (1) 측정 (2) 미측정

D8-2)-1 ☐

■ 문9.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기 없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조사원: 자세한 설명은 지침서 참조)

【보기】 제한 정도 :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약간 어렵다 (3) 매우 어렵다 (4) 전혀 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9) 비해당			
1) 운동장 한바퀴(400m)정도 뛰기	☐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
2) 운동장 한바퀴(400m)정도 걷기	☐	6)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
3)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7)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	☐
4) 몸을 구부리거나, 꾸그리거나, 무릎을 꿇기	☐	8) 쌀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E. 노후준비

■ 문1. 귀하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가구원 사항에서 응답자의 배우자가 만 49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예(배우자가 49세 이하)
(2) 아니요(배우자가 50세 이상 또는 배우자 없음(※ 미혼·사별·이혼·별거))
(3) 기타(50세 이상 비동거 배우자, 50세 이상 배우자이나 조사미완 혹은 대리응답)

※ ☐

※ 조사원 사항에서 ‘(2) 아니요’로 응답한 경우, ‘1-2. 배우자 사항’은 비해당(9)으로 표시하고, ‘(1) 예’와 ‘(3)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준비 여부	1-1. 본인	1-2. 배우자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2)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원납) 3)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4) 가입하지 않았다 9) 비해당	1) ☐	1) ☐
2) 개인연금		2) ☐	2) ☐
3) 기업퇴직연금	1) 가입 2) 미가입 9) 비해당	3) ☐	3) ☐
4) 노후를 위한 부동산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4) ☐	4) ☐
5) 노후를 위한 저축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5) ☐	5) ☐
6)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6) ☐	6) ☐
7) 기타(_____)	1) 있다 2) 없다 9) 비해당	7) ☐	7) ☐

F. 지역사회와 여가문화활동

■ 문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의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횟수와 이용하는 기관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문1-1. 이용 경험	문1-2. 지난 1년간 이용 횟수	문1-3. 주된 이용 기관 위치		문1-4. 주된 선택 이유	문1-5. 평균 이용 소요 시간	문1-6. 이용 만족도
	① 있음 → (문1-2번으로) ② 없음 (문1-2번부터 비해당) ↓ (다른 유형으로)	① 거의 매일 5회 이상 ② 일주일에 2~4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⑤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⑥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⑦ 기타 ⑧ 비해당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입니까? () ① 동일 동·읍·면 내 ② 동일 사·군·구 내 ③ 타 사·군·구 ④ 타 시·도 ⑤ 기타 ⑥ 비해당 기관명(일부) 위치 코드		① 가가 하운 기관이라서 (교통편리성, 가까운 곳) ② 직원이 친절해서 ③ 서비스의 질이 좋아서 ④ 시설이 좋아서 ⑤ 비용(가격)이 적당하여 ⑥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서 ⑦ 기타() ⑧ 비해당	① 걸어서 10분 미만 ② 걸어서 10분~30분 미만 ③ 걸어서 30분 이상 ④ 자동차로 10분 미만 ⑤ 자동차로 10분~30분 미만 ⑥ 자동차로 30분 이상 ⑦ 기타() ⑧ 비해당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⑥ 미해당
1) 경로당	1) ☐	1) ☐		1) ☐	1) ☐	1) ☐	1) ☐
2)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2) ☐	2) ☐		2) ☐	2) ☐	2) ☐	2) ☐
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3) ☐	3) ☐		3) ☐	3) ☐	3) ☐	3) ☐
4) 공공 여가문화시설 (문화체육, 구민체육, 주민센터 등)	4) ☐	4) ☐		4) ☐	4) ☐	4) ☐	4) ☐
5) 민간 여가문화시설 (민간체육, 사설 산후조리원 등)	5) ☐	5) ☐		5) ☐	5) ☐	5) ☐	5) ☐
6)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 ☐	6) ☐		6) ☐	6) ☐	6) ☐	6) ☐
7) 병(의)원, 한방(의)원, 치과(의)원 등	7) ☐	7) ☐		7) ☐	7) ☐	7) ☐	7) ☐

■ 문2. 귀하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해당 동읍면 기준)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 비해당

F2 ☐

■ 문3. 귀하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해당 동읍면 기준)이 종교행자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9) 비해당

F3 ☐

■ 문4. 귀하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보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9) 비해당
1) 지역 내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P4-1 ☐					
2) 마을(또는 아파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P4-2 ☐					
3) 요청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4-3 ☐					

G.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간병수발

(※ 조사원: 만 65세 이상인 응답자에게만 질문하십시오)

■ ★ 문1. 지난 1주일간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다니까?

(※ 조사원: 자세한 설명은 지침서 참조)

【보기】 자립정도 :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9) 비해당	
1) 옷 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벨트)	☐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3)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에 혼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야 완전자립)	☐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기어서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으면 완전자립)	☐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
7) 대소변 조절하기(단기적 요실금은 제외)	☐

■ ★ 문2. 지난 1주일간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다니까?

(※ 조사원: 자세한 설명은 지침서 참조)

【보기】 자립정도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9) 비해당		【보기】 자립정도 (1) 완전자립 (2) 작은 부분 도움 (3) 많은 부분 도움 (4) 전혀 할 수 없음 (9) 비해당	
1) 물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	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출, 거스름돈 받기	☐
2) 집안일(살림쓰, 설거지, 침구장리, 집안청결 등)	☐	9) 전화 걸고 받기	☐
3) 식사준비(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자동차)	☐
4) 빨래(손 혹은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행거르기	☐		
6) 금전관리(종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		
7) 근거리 외출하기(걸어서)	☐		

※ 조사원: <문1>과 <문2>에서 1개 항목이라도 응답이 (2)~(4)인 경우에만 <문3>을 질문 하시고, 그 외의 경우는 비해당(9)으로 표시하십시오.

■ ★ 문3.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 (영역H표) (9) 비해당 → (영역H표)

G3 ☐

□ ★ 문3-1.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1) 가족(동거,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2)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3) 사군구청의 노인(종합)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4) 가족과 정부(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5) 가사도우미,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6) 가족과 가사도우미,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7) 기타() (9) 비해당

G3-1 ☐
기타: _____

H. 기초연금

(※ 조사원: 만 65세 이상인 응답자에게만 질문하십시오)

■ ★ 문1. 귀하께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 월 _____만 _____천원

(2) 아니요

(9) 비해당

H1-(1)

만 _____천원

H1

※ 조사원: 중고령자 조사표의 응답 유형에서 대리응답인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리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1) 와병상태

(2) 정신·심리 상태의 불안정(치매 등)

(3) 청각 장애

(4) 언어장애

(5) 노쇠하여

(6) 기타(_____)

(9) 비해당(본인응답자)

※

기타: 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 사 간 부양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자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